



3

1997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7. 3호

(루계 593)

◇◇◇◇◇◇◇◇◇◇

차 례

◇◇◇◇◇◇◇◇◇◇



작가들은 오늘의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최후돌격전에	
서 진군의 나팔수가 되자	4
땅의 소원	7
뜨거운 눈송이	7
얼빠진 주재소장	8
월비산 령길우에서	10
꿈속에서의 《사색》	11
주체의 화신	13
가사문학을 지도하시며	14
김정일화	15
파도우에 남기신 자욱	16
오시는 모습	16
인민위해 바치신 생신날의 이야기	17
말하라, 금강산아	19
조정지 언제우에서	21

력사의 새벽길에서 울려 퍼진 《지원》의 노래	22
애국의 넋이 깃든 땅	26
내 마음의 푸른 소나무	29
려명의 종소리	29
유산	30
추억과 소묘	31
빨간저고리	39
우리 집	46
겨울밤의 은하수	53
돌이 귀하여라 (외1편)	62
꽃버들	62
애국립을 바라보며	63
녀성의 노래	65
나의 첫 시를 두고... ..	67
순회길을 걸으며	68
와새골의 주인들	69
풀판	78

작가들은 오늘의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최후돌격전에서 진군의 나팔수가 되자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혁명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는 새로운 부흥의 해인 1997년을 맞으며 당보, 군보, 청년보에 실린 공동사설을 커다란 감격과 흥분속에 받아안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공동사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건설해나가자》에서는 지난해 1996년을 전당, 전군, 전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고난의 행군》을 힘차게 벌려온 준엄한 시련의 한해, 보람찬 투쟁과 승리의 한해로 특징지으면서 지난해의 어렵고 보람찬 투쟁을 통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의 3대진지가 굳건히 다져진데 대하여 자랑스럽게 총화하고있다.

지난해 우리 인민들이 항일혁명선렬들이 발취한 수령결사옹위정신, 자력갱생의 정신, 난관극복의 정신, 락관주의정신으로 특징지어지는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억세게 투쟁한 결과 우리의 정치사상적진지는 령도의 대가 바뀌고 제국주의자들의 공세가 강화되는 어려운 투쟁속에서도 추호도 흔들리지 않는 불패의 성세로,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 일층 강화된 사회주의보루로 튼튼히 다져지게 되었다. 또한 경제건설에서는 90년대 조선의 기적인 안변청년발전소를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거연히 일떠섬으로써 우리의 자립경제의 위력을 힘있게 떨쳤다. 또한 지난해는 60여성상에 걸치는 우리의 건군력사에서 빛나는 장이 아로새겨진 뜻깊은 한해로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우리 혁명무력건설의 최성기가 펼쳐지게 되고 나라의 방위력이 철벽으로 다져지게 된 뜻깊은 해였다.

이렇듯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정치사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더 큰 힘을 가지게 되었으며 사회주의에로의 승리적행군을 더 힘차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지난해 우리 주체사실주의문학건설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을 심어주고 우리 식 사회주의와 운

명을 같이하겠다는 결사의 각오,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싸우는 불굴의 투지를 안겨주는데 이바지하는 혁명적주제작품들을 어느때보다 더 왕성하게 창작해낸데서 찾아볼수 있다.

특히 서사시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 가사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 《최고사령관 기올렛》, 단편소설 《상봉》, 《불멸의 영상》 등이 시대의 명작으로 창작되었고 총서 《불멸의 향도》 중장편소설 《력사의 대화》, 《평양은 선언한다》가 창작된것은 이를 잘 말해준다.

우리 작가들이 오늘의 《고난의 행군》에서 진격의 나팔수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된것은 사회주의총진군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된 그 모든 결정적요인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있다.

지난해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우리 식 사회주의를 압살하려고 계속 악랄하게 책동하였으며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에서도 커다란 난관과 장애가 조성되었다.

하지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부다치는 모든 난관을 단신으로 뚫고나가시며 우리 인민을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싸워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면서 새해 정초부터 한해가 다 저물어가는 연말까지 수많은 인민군부대들과 단위들을 끊임없이 현지지도하시였다. 그렇게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작가들이 해야 할 일들을 일일이 밝혀주시고 작가들이 쓴 작품 한편한편을 친히 보아주시며 시대와 인민의 요구에 맞는 명작으로 완성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참으로 지난해 우리 문학건설에서 거둔 모든 성과는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 길에서 혁명적문학작품창작을 통한 사상사업을 중시하고 우리 작가들을 아끼고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거룩한 령도의 자욱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이신 우리 작가들은 조선혁명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해나가는 새로운 부흥의 해인 올해에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창작의 새로운 성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보답해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사상전선을 지켜선 우리의 작가들은 어떤 환경속에서도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야 하며 작가의 필봉은 언제나 당을 옹호하는 혁명의 보검으로 빛나야 한다.》

우리 작가들앞에는 올해에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해공동사설의 과업관철에로 불러 일으킬 혁명적주제작품창작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해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공동사설에 지적된바와 같이 붉은기를 높이 들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오늘 중요한 력사적시점에 놓여있다.

올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신 지 세뫼이 되는 해이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수령으로, 만민의 어버이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 어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순결한 마음은 해가 바뀔수록 더욱 뜨거워지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3뫼이 되는 올해에 전체 인민들이 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찰하여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위용을 더 자랑스럽게, 더 떼떽하게, 더 높이 온 세상에 펼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우수한 작품들을 왕성하게 창작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은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우리 인민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유족하고 문명한 인민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하여주는 강령적지침이다.

우리 작가들은 글 한편을 써도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에 담겨져있는 그 심원한 사상과 인민에 대한 한없는 사랑에 대하여 심장으로 공감하고 모두가 뜨겁게 느낄수 있게 써야 한다.

올해에 우리 당과 인민앞에는 우리 식 사회주의총진군을 다그쳐나가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총진군의 위력은 오늘의 난관을 참고 견디기만 하는것이 아니라 전진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며 방어가 아니라 대담한 공격으로 새로운 승리를 마련해나가는데 있다.

우리 작가들은 자기들의 작품을 통하여 전당, 전군, 전민이 한결같이 떨쳐나 올해의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칠 때 자주적인간의 삶을 계속 누리느냐 아니면 노예가 되느냐 하는 오늘의 결사전에서 승리를 이룩하고 인민생활이 더욱 활짝 꽃피는 찬란한 시대를 앞당겨나갈수 있다는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높이 구가하여야 한다.

《모두다 올해의 <고난의 행군>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이것이 올해 우리가 높이 들고 나가야 할 혁명적구호이다.

사회주의강행군을 다그쳐 우리 혁명의 정치, 경제, 군사적진지를 불패의것으로 튼튼히 다지고 인민생활을 최대한 향상시키는것을 총적과업으로 하는 올해의 총진군에서 중요한것은 온 사회를 우리 당의 붉은기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이다.

우리당의 붉은기사상은 본질에 있어서 혁명의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이며 령도자와 생사운명을 끝까지 같이하려는 수령결사옹위정신이다.

우리 작가들은 주체형의 인간-총신의 형상창조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계시는 한 그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우리는 두려울것이 없으며 언제나 승리한다. **김정일**동지는 우리 당과 군대, 우리 조국의 빛나는 상징이시고 우리 식 사회주의는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위업이라는 사상이 힘차게 울려나오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한다.

온 사회에 붉은기사상이 짙 차고넘칠 때 피로써 쟁취한 우리 식 사회주의는 철벽의 요새로 더욱 튼튼히 다져질것이며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의 승리가 보인다!》는 구호를 심장으로 부르며 풀죽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사회주의를 고수하겠다는 철석의 신념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투철한 인생관을 가지고 사회주의총진군을 다그쳐나가게 된다.

우리 작가들은 붉은기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한 원형, 실재한 총신의 생활을 전형화한 우수한 작품들을 왕성하게 창작하기 위한데 창작의 주되는 예봉을 돌려야 한다.

올해의 총진군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켜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한 보람찬 진군이다.

우리 당은 올해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혁명의 북소리가 높이 울리는 대고조의 해로 되게 하기 위하여 자력갱생의 구호밑에 이미 마련된 경제적밀천을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먹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풀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국토건설을 다그쳐 부강조국의 토대를 튼튼히 쌓는것을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과업으로 제시하였다.

우리 작가들은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의 요구대로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찰해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벽찬 현실속에서 긍정적주인공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투쟁과 생활을 반영한 작품들을 많이 써야 한다.

이와 함께 석탄, 전력, 금속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투쟁하는 이 부문 로동계급들의 생활을 취급한 작품들을 창작해야 한다.

올해의 총진군을 승리적으로 다그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전선은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는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우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제일근위병, 제일결사대로 준비되어나가는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을 반영한 작품들과 군대와 인민의 혈연적련계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왕성하게 창작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온 나라에 군사를 중시하고 군대를 사랑하는 기풍이 차넘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공동사설에서는 올해의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우리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다지기 위한 근본방도는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우리 작가들은 당조직들의 전투력에 사회주의 건설의 성패가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이 분야의 생활에 대담하게 뛰어들어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의 투쟁모습을 작품에 형상하여야 한다. 하여 문학작품을 통해 우리의 당조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필줄 아는 생기발랄한 당조직, 본때있게 일을 제끼는 전투력있는 당조직, 씨를 뿌리고 풍만한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힘있는 당조직이라는것을 실감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공동사설에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집단주의적생활방식, 이신작칙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는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오늘의 강행군은 제힘으로 난관을 맞받아 뚫고 나가는 자력갱생의 행군이며 집단주의와 동지애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일심단결의 행군이다.

우리 작가들은 벽천 현실속에 들어가 우에서 대주면 좋고 안대주어도 제힘으로 해낸다는 비대한 각오밑에 열걸음, 백걸음으로 뛰고 또 뛰면서 생산과 건설에서 비약을 일으켜나가는 로동계급의 참된 일본새를 진실하게 그려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 원료원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자기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가는 도, 시, 군들의 산모범을 그려낸 작품들을 실감있게 써내야 한다.

오늘의 강행군은 사회생활의 모든 단위에서 혁명적동지애를 더욱 높이 발휘하여 우리 사회의 집단주의적대풍모를 활짝 꽃피워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어려울수록 서로 돕고 이끄는것은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미덕이며 시대의 요구이다.

가정과 인민반, 작업반과 직장을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단위들에서 서로 돕고 이끄는 참모습을 그린 작품들은 우리 시대를 뜨겁게 느낄수 있게 한다.

우리 작가들은 우리 시대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공산주의미풍의 원형들을 적극 찾아내어 이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잘 그려야 한다.

이와 함께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호를 부르며 어렵고 힘든 경제건설장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이는 지도일군들의 풍모를 그린 작품들도 써내야 한다.

우리 작가들앞에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실현하기 위한 거룩적인 통일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는데 이바지할 조국통일주체의 작품들과 우리 당의 대외정책을 반영한 작품창작과제가 제기되고있다.

올해 우리 작가들앞에 나선 창작과제는 방대하지만 성과는 확정적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작가들을 시대와 인민이 요구하는 명작창작에 힘있게 이끌어주오계시며 백전백승의 기치인 우리 당의 붉은기사상이 우리 작가들을 사회주의강행군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들끓는 현실로 힘있게 떠밀어 주고있다.

우리 작가들모두가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 당문에로선의 철저한 옹호자, 적극적인 관철자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심장을 불태운다면 창작에서 거대한 비약을 일으킬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우리 당의 붉은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기의 예술적재능을 꽃피워 창작에서 실력전을 벌림으로써 우리 인민들의 삶과 투쟁의 훌륭한 길동무가 될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해내야 한다.

하여 모든 작가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오늘의 사회주의총진군에서 승리의 표대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붉은기이고 필생의 좌우명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반드시 이긴다는 철의 신념이라는것을 더 깊이 심어주는 명작창작으로 올해를 빛나게 장식하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것이다.

땅의 소원

리동후

고향땅아
정든 내 사랑아
발동소리 다기찬 벌에 나서니
기름진 이랑이랑 따라서며 반기며
내 발목에 휘감겨 어리광 부리누나

구슬땀 흥건히 쏟으며
수고로이 매가꾼 내 정성 고마워
해마다 풍성한 열매를 안겨주는 땅
매듭진 이 손에 한줌 흙을 쥐고
조용히 추억의 갈피를 더듬어보나니

태를 묻은 향촌이라고
논밭 이랑마다 내 숨결 숨배여
두렁길 산언덕에 내 발자욱 찍혀져
너를 품안아 가꾼다면
이다지도 내 가슴 부풀어오르지는 않으리

축복받은 땅 한가운데
대리석 사적비문 우리러 걸음 멈추면
오늘도 삼삼히 눈앞에 어려와라
해방의 감격속에 오셨던
자애로운 수령님의 그 영상

-땅은 영원히 농민들의것입니다!
뜨겁게 새겨안은 가슴의 격동
하늘땅에 영광의 환호성으로 터져올라
분여받은 발머리에 표말을 박아주실제
쿵쿵- 강산에 울려퍼진 그날의 메아리

아, 세기를 두고 바라던 땅의 소원
농민들의 숙망을 풀어준
봄날의 서곡이여
땅의 주인을 행복의 절정우에 세워준
위대한 선언이여

고향땅아
정든 내 사랑아
주체농법 꽃피는 오늘과 래일에도
너는 오곡을 키우는 흙이 아니라
계급의 징표임을 다시금 깨우쳐주나니

바로 이 땅은
어버이수령님 물려주신
영원한 유산
천만의 목숨과도 바꿀수도 빼앗길수도 없는
우리 운명과 하나로 이어진 조국이어라

뜨거운 눈송이

로영우

함박눈 내리네
키높은 철탑과
줄줄이 뻗은 송전선사이를 하얗게 메우며
내리고내리는 눈송이

흰눈이 내리네
뜨거움을 불러주는 눈
구내길 걸으시던 수령님 어깨우에
소복이 내려앉던 눈송이 눈송이

잊은적 없었네
그이의 자욱 멀어져간
구내길을 걷고 또 걸을 때에도
이 마음속에서 녹은적 없었네
열풍 몰아치는 타빈앞에서
계기의 눈금을 살펴갈 때에도

흰연기 쌍굴뚝에 피어오를 때

창을 여시고 아침마다 바라보시던
수령님의 자애로운 그 미소
화력타빈의 음향 울리는 구내길에 비끼여
긴긴세월 바치신 로고
그 높으신 뜻을 잊지 말자고
말없이 속삭이며 내리는 눈송이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주고
창조와 열정을 안겨주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따라
찬란한 래일로 달음치는 길우에
내리는 눈송이

락원의 강산에 만복을 꽃피주며
해를 넘어 세월을 이어
오늘도 이 가슴에 내리어 녹지 않는
아, 뜨거운 눈송이!

얼빠진 주재소장

해방전 압록강가의 어느 한 마을에서는 《얼빠진 주재소장》이라는 말이 돌고있었다.

《얼빠진 주재소장》이란 정신착란이 일어나 헤덤비다 죽은 이곳 경찰관주재소 소장님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지금도 이곳 인민들은 얼토당토않는 말을 하거나 정신없이 헤덤비는 사람을 보고 《얼빠진 주재소장》같다고 말하고있다. 그러면 《얼빠진 주재소장》이라는 말이 어떻게 되어 나왔는가?

삼천리강산에 해방의 새봄이 태동하던 1942년 2월준승경이었다.

항일유격대의 눈부신 활동으로 멸망의 구렁렁이에 깊이 빠져들어난 일제놈들은 백두산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여기 산골 작은 마을에도 경찰관주재소를 내왔다.

놈들은 외진 이 마을에도 국경경비를 겸해보는 주재소 소장을 새로 부임시키고 항일유격대의 조국진군과 지하공작원들의 활동을 막아보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하지만 놈들의 그 어떤 단말마적인 책동도 신출귀몰하는 항일유격대의 전법에 맥을 추지 못하고 녹아나고말았다.

더우기 보천보전투와 간삼봉전투에서 일제군경놈들이 무리로 황천객이 된 다음부터 놈들은 《대일본제국》을 위해 《멸사봉공》한다던 《아마도 다마시》도 다 췌버리고 바람에 문풍지가 울거나 어디서 바스락소리만 약간 들려도 오금을 퍼지 못하고 뜬눈으로 밤을 새우곤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항일유격대가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주재소 책상맡에서 밤을 지새우던 소장놈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한숨을 몰아쉬며 벌벌 기여나와 제놈의 등반이의자에 겨우 올라앉았다.

놈은 기지개를 한발 켜며 연거퍼 하품을 하더니 다시 책상에 어푸러져 킁아떨어졌다.

그런데 바로 이때였다.

《짱 파르릉-》하고 하늘땅을 진감하는 요란한 우뢰소리가 나더니 책상이 벌떡 뒤집혀지고 창문이 벌커덕 열리면서 찬바람이 홀 물려들어왔다.

등반이의자가 뒤로 벌렁 나자빠지는바람에 와틀 놀라 깨어난 소장놈은 《공산군이다!》하고 비명을 울리며 방구석에 대가리를 틀어박았다.

소장놈이 오금이 저려나 벌벌 떨고있는데 전화종소리가 《찌르릉 찌르릉》 울렸다.

놈은 다급하게 울리는 전화종소리를 듣기는 했

으나 전화기에 손이 나가지 않았다.

또다시 전화종이 다급하게 울려서야 할수없이 수화기를 드니 《고노, 고노》 하고 자기를 찾는 소리가 귀전을 때리었다.

해산경찰서장놈의 목소리였다.

그때에야 저으기 마음을 가라앉힌 소장놈은 잣아드는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헛, 헛, 소장입니다.》

그러자 해산경찰서장놈의 다급한 목소리가 또 다시 귀청을 찼다.

《소장인가, 지금 당장 창문을 열고 저 백두산쪽을 보라. 김일성장군이 또 무슨 지략을 펴는지 모르겠다. 빨리 알아보라.》

《헛, 하-》

얼결에 대답을 하고 창문너머 백두산쪽을 바라보던 소장놈은 그만 아연질색하고말았다.

화산이 다시 분출하였는지 신기하게도 시뻘건 안개와 구름이 백두산천지를 뒤덮더니 서서히 내려앉으면서 아름다운 칠색쌍무지개가 백두산천지에 뿌리를 박고 소백산쪽으로 뻗어가는것이였다.

무지개의 한쪽끝이 소백산줄기에 닿는 순간 백두산마루에 붉은 노을이 서서히 걷히고 장군별결에 전에 없던 큰 별 하나가 생기면서 평롱한 빛을 뿌리는것이였다.

소장놈이 그 황홀경을 한동안 바라보고 서있는데 또다시 전화가 울렸다. 해산경찰서장놈의 전화였다.

《고... 고노상, 배... 백두산에 새 장군별이 또 솟는것을 보니 김일성장군부대가 국경을 넘으려는것이 분명하다. 상스럽지 못한 일이 생길게 분명하니 국경경비를 더욱 강화하고 만전을 기하라. 알겠는가?》

김일성장군부대가 국경을 넘는다는 소리에 소장놈은 그만 몸이 굳어져 어쩔바를 몰라했다.

날이 밝자 소장놈은 방안을 오락가락하며 어떻게 하면 살아날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망루를 높이 세우자. 그러면 높은곳에서 항일유격대의 행동을 쉽게 가려볼수 있고 또 미리 손을 써서 달아뺄수도 있지 않는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소장놈은 급기야 순사들을 동원하여 마을사람들을 모이게 하였다.

순사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한참 분주탕을 피워서야 주재소앞마당에 사람들을 겨우 모아놓았는데 마을사람들은 여느때없이 기쁨에 넘쳐 응

성거리며 새벽에 있는 천지조화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아침에 일찌기 노루뿔을 보러 갔다왔다는 한 로인은 《내 오늘아침 백두산의 천지조화를 보았는데 장군별결에 또하나의 큰별이 뜨지 않았겠소.

그런데 그 별이 어찌나 밝은지 새벽어둠이 짙가지여지더란말이요.》 하고 백두산의 신비경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한 너인은 물을 길러 우물에 나왔다가 보았다면서 백두산의 쌍무지개가 소백산마루에 그루를 박자 거기에서 새벽이 솟아올랐다고 이야기했다.

그들의 말을 한참이나 듣고있던 다른 로인은 바람결에 펄펄 날리는 흰수염을 쓰다듬으며 《백두산하늘가에 쌍무지개가 비끼고 새벽이 솟았으니 조선에 대통운이 트일 징조일세. 왜놈이 망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네.》 하고 그루박아 말하였다.

그의 말에 마을사람들은 무릎을 치며 이제는 왜놈 망하는것을 보게 되었다고 환성을 올리는데 그때에야 제정신이 든 소장놈이 《에헴!》 하고 헛기침을 하며 마을사람들앞에 나섰다.

소장놈은 위엄을 돋구느라고 헛기침을 했지만 겁에 질린 눈길을 감추지 못하며 마을사람들에게 《비상시국》에 정신들을 차려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리고는 공산군이 여기에도 쳐들어올것이 예견되는데 사전에 대처할수 있게 망루를 하나 세워야겠다고 력설했다.

바로 이때 그놈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멀리 백두산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북소리같기도 하고 우뢰소리같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울리는 환호성같기도 하였다.

뒤이어 목화송이같은 흰구름이 몽게몽게 피어 오르더니 거기서 황금빛을 뿌리는 수천수만마리의 새들이 일시에 하늘높이 날아올랐다가 백두산 줄기를 타고 사방으로 몇백마리씩 떼를 지어 날아가는것이였다.

그런데 그중 한무리가 이 마을로 곧바로 날아와 에돌고나서 사람들의 머리에 깃털을 하나씩 떨구고 남쪽으로 사라지는것이였다.

모여섰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희한하여 그 새들과 깃털을 지켜보았다.

금색을 뿌리는 새털은 사람들이 집어들자 흰종이장으로 변하였는데 종이장마다에는 참으로 희한한 글발이 적혀있었다.

《동포들이여, 백두산에 독립성이 솟았다.》

《백두산장군별결에 또하나의 광명성이 솟았

다.》

《아, 조선아, 백두성탄생을 알린다.》

참으로 가슴가슴에 새 희망과 백배천배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글발이였다.

마을사람들은 저 멀리 바라보이는 백두산을 우러러 《만세》, 《만세》 하면서 서로 부둥켜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눈앞에서 갑자기 벌어진 이 광경에 어리둥절해졌던 소장놈은 한참만에야 《뭐, 뭐야, 조용들해라.》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으나 폭풍같이 터져오르는 그 환호성을 멈출수 없었다.

더욱 당황해진 소장놈은 웬일인가싶어 떨리는 손으로 깃털 하나를 집어들었다.

순간 《앗!》 하는 비명소리를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겁에 질린 순사놈들은 눈썹이 뒤집혀서 소장놈이 쥐고있던 종이장을 던지시 보았다.

그러자 그놈들도 허가 달려들어가면서 숨구멍이 막혀 눈알만 뽀록거렸다.

그 종이장을 본 왜놈들은 하나같이 눈이 뒤집히더니 모로 나가 자빠졌다.

그런데 그물이 천코라도 빠지는놈이 있다고 놈들중 한놈만이 쓰러지지 않았는데 그놈은 다행히도 글을 모르는 문맹자였으므로 종이장에 적혀있는 글을 읽을수가 없었던것이다.

위급한 사태를 제논으로 본 이놈은 기겁하여 주재소로 달려들어가 《혜산》, 《혜산》 하고 애타게 찾았다.

하지만 그쪽에서도 모두 뒤흔는지 전화를 받는놈이 없었다.

무엇이든 도수가 넘으면 본래의 물체와 다른 성질을 나타내기마련이다.

죽음의 공포가 소장놈의 뒤덜미를 잡고 어찌나 태질을 해놓았던지 그놈은 게거품을 입에 물고 푸들거리다가 간신히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이놈은 중병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골이 쭈시는듯 아파서 머리를 들지 못했다.

그래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다가 진찰해보았으나 누구도 옳은 처방을 내리지 못하였다.

어느날 한 명의가 찾아왔는데 그는 소장놈의 맥을 짚어보더니 단번에 처방을 내리는것이였다. 처방인즉 하고싶은 말을 크게 세번 하면 병이 낫는다는것이였다.

이놈은 그길로 밖으로 나가 《<대일본제국>은 망했다!》, 《<대일본제국>은 망했다!》 하고 세번 소리쳤다.

이 말이 제일 하고싶었했으나 무서워서 못하고 있었던것이다.

그랬더니 정말 머리가 거뜨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자 또 재발하였다.

소장님은 《<대일본제국>은 망했다!》 하고 세 번 소리쳤다. 그러면 좀 나아졌다가는 다음날 다시 재발하곤 하였다.

얼빠진 소장님은 매일아침 일어나 같은 소리를

세 번 반복하여 웨치곤하였다.

《<대일본제국>은 망했다!》

《<대일본제국>은 망했다!》

《<대일본제국>은 망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난후 소장님은 영영 송장이 되고말았다. 그놈의 죽음과 함께 《대일본제국》도 정말 망하고말았다.

월비산 령길우에서

장원준

한굽이 돌면 또 한굽이

걸음걸음 따라서는 저 술한 굽이처럼

나에게 깊은 생각 불러오네

월비산 백마흔아홉굽이-

내 어려서 들던 신기한 전설에도

높은 령은 아흔아홉굽이라 했던만

우리 장군님

천리전설길에 쌓이신 로고 푸실새 없이

월비산은 백마흔아홉굽이!

아! 생각할수록 눈시울 뜨겁구나

산새도 날기 지어하는 이 높은 산정

경애하는 그이

달리는 차안에서 쪽잠에 드시며

때론 손수 운전대를 잡으시고 넘어가실 때

내 과연 무엇을 하였던가...

레사로운 행복에 묻혀

고요한 밤 푸른 창가림 젖히고

불빛이 명멸하는 수도의 거리를 내다보며

단잠 든 내 아들의 고운 미래를 그려보지

않았던가

만시름 다 잊고

철없는 아이같이

행복에 취해있을 때

병사들의 소박한 식탁에 앉으시어

우리 장군님 드시던 밥그릇을 떨어놓으신줄

내 어찌 알았으랴

정녕 방울방울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이며

좋은 날 편한 길은 다 우리에게 주시고

온 한해 병사들과 함께 계시며

사회주의조국을 지켜주신

그이 거룩한 로고의 자욱 뜨겁게 어려오는

월비산의 백마흔아홉굽이...

그렇다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단 하루 휴식도 없이 야전복을 입으시고

세월의 눈비를 한몸에 맞으시며

험한 령 천만굽이 돌고돌아 헤쳐가실 때

이 땅엔 아름다운 생활의 길

우리 혁명의 큰 길이 곧바로 열렸나니

오, 월비산아!

내 여기 푸른 바위돌에 붓을 갈아

천년벼랑우에 뜨거운 심장으로 새기노라

장군님 계시여

내 조국 언제나 든든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 승리의 곧바른 길 열려있을

위대한 사랑의 이 전설 길이 전해가라

월비산, 너 백마흔아홉굽이여!



꿈속에서의 《사색》

1973년 12월 어느날, 현지도의 길을 이어가 시던 위대한 정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느 한 숙소에서 류숙하시였다.

이른새벽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느 한 일군이 있는 방을 찾으시였다.

당황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급히 잠자리를 거두느라 헤덕비는 일군을 다정하신 눈길로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새벽단잠을 깨우는게 아닙니까.》**라고 하시였다.

일군은 잠을 깬지는 퍼그나 되는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무시는줄 알고 방해가 될것 같아서 그냥 누워있었다고 말씀드렸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좋은 생각은 새벽잠자리에서 난다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있습니까?》**라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일군은 그저 이것저것 생각하던중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문득 밤에 꿈을 꾸지 않았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꿈을 꾸었다고 대답올렸다.

《그래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잠꿈을 꾸어 푹푹히 생각나는것이 없습니다.》

《잠꿈이라...

나도 어제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일군은 호기심이 나서 무슨 꿈을 꾸셨는가고 다그쳐물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꿈속에서도 어제밤에 일군들과 새해사업을 놓고 논의하던것을 계속하였다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전날밤이였다.

위대한 정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를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 웅대한 구상과 함께 그것을 실현하자면 당사상에서부터 혁명적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방법론과 묘술을 탐구하시느라 자정이 지날 때까지 잠자리에 들지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당에서 아무리 좋은 강령을 내놓아도 당사상사업이 앞서지 못하고 형식주의 늪에 틀어박혀 벗어나지 못하면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없다고 하시며 목표와 방향은 명백한데 아직 구체적인 묘책이 잘서지 않아서 그런다고 안타까이 말씀하

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제갈량과 같은 책략가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혼자말씀처럼 외우시였다.

일군들은 자신들이 제갈량과 같은 책략가가 되지 못하여 아무런 도움도 드리지 못하는것이 죄스럽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일군들은 실무적자질이 높아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진심이다, 온 정력을 바쳐 진심으로 당을 받들고 따르겠다는 각오만 높으면 **《제갈량》**보다 낫다고 하시며 우리 함께 묘안을 더 찾아보자고 하시였던것이다.

일군이 어제밤에 있는 이런 일을 되새겨보는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꿈이야기를 계속하시였다.

어제밤 꿈에 난데없이 달력이 나타났는데 이상하게도 웃부분이 흰공백으로 되어있었다, 왜 공백을 두었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 논쟁하였다, 그러다 깨어나보니 꿈이더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꿈이야기를 재미나게 하시였지만 사실상 그것은 꿈이 아니라 어제밤 논쟁의 계속이었으며 끝없는 탐구와 사색의 편속이였다.

꿈이란 잠을 잘 때에 깨여있을 때처럼 여러가지 사물이 나타나고 생활이 이어지는것 같은 정신적 현상이다. 그렇다고 꿈이 결코 허황한것만도 아니다. 생각이 깊으면 꿈에 나타난다는것은 하나의 과학적리치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꿈에서 깨어나 벽에 걸려있는 달력을 보니 꿈에 흰공백으로 보이던곳에 **《새해를 축하합니다》**라는 글이 씌여있었다고 하시며 달력을 벗겨오시였다.

달력은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아무리 새겨보아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를 알수 없어 일군은 덤덤히 서있기만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러는 일군에게 력서의 새해인사말에서 무엇인가 생각되는것이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지금까지 그렇게 써왔는데 무슨 판생각이 있겠는가고 대답올렸다.

사실 해마다 쓰고있는 력서의 그 인사말이 잘 못되었다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하였고 그 일군도 역시 그러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지금까지 해오던것이라고 하여 다 잘된것이라고 볼수는 없다고 하시며 이 인사말은 우리 식이 아니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설날이 오면 웃어른들을 찾아가 세배를 드리곤하였다, 그 전통을 살려 지금 우리 인민들은 새해를 맞으면 먼저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고있다, 해마다 수령님을 모시고 설맞이공연을 하는것도 기본은 수령님께 세배를 드리는데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사실상 오늘 위대한 수령님께 설인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인민의 고유한 생활풍습으로, **김일성**민족의 기본품성의 하나로 되었던것이다.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나는 모든 력서에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인사말을 새겨넣게 하려고 합니다.

사무실이나 집집에 달력이나 년력이 거의다 있습니다. 그런것만큼 거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인사말을 새겨넣으면 우리 인민들은 늘 그것을 보며 수령님의 만년장수를 기원하면서 하루하루를 값있게 보낼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일군의 눈앞은 환히 트이였다. 그야말로 기발한 착상이며 깊은 뜻이 담겨진 명언이였다.

사무실과 집집마다 다 걸려있는것이 달력이나 년력이다. 한번 걸어놓으면 1년내내 어른들도 아이들도 계속 보게 되는것이 그 력서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바로 이런 력서에 새로운 새해인사말, 충성의 글발을 써넣게 하여 온 나라의 가정과 일터마다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정을 가득 채워 생활의 갈피마다에서 인민들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바라며 충성다하도록 하시려는것이였다.

자나깨나 어버이수령님을 위하시는 열화같은 충성심과 비범한 예지, 불타는 정열이 꿈속에서도 우리 인민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수령님의 제자로 키우시기 위한 신통한 묘안들을 찾아내시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당, 국가, 군대사업의

모든 공정, 모든 계기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이 넘쳐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그러자면 우리 일군들이 생각을 해도 같은 생각을 하고 꿈을 꾸어도 같은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 꿈은 수령님에 대한 꿈이어야 합니다.》

순간 일군은 흥벽을 광광 울리는것과 같은 강한 충격을 받았다.

언제나 인민의 마음속에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숭배심과 충성심만이 넘쳐 흐르도록 하시려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현지도에서 돌아오시는 길로 곧 출판부문및 책임일군을 부르시여 력서표지에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인사말을 쓸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리하여 그후부터 어버이수령님의 만년장수를 축원하는 충성의 인사말이 새겨진 우리 식의 력서가 세상에 태여났다. 이것이 바로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숭배심을 최상의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꿈속에서의 《사색》을 통하여 찾아내신 묘책이였다.

오늘은 력서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을 기원하는 불멸의 글발이 새겨졌다.

잠자는 시간은 인간의 사색에서 공백시간이라고 말할수 있다.

허나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을 더 높이 우러러모시기 위하여, **김일성**민족의 사상정신적풍모를 완성하기 위하여, 위대한 주체사상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앞당기시기 위하여 꿈속에서도 사색과 탐구를 이어가신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숭고한 충성과 효성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꿈속에서도 정력적인 사색과 탐구를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우리는 길을 걸어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과 한보폭으로 걷고 한마디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지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잠을 자고 꿈을 꾸어도 경애하는 장군님과 한꿈, 어버이수령님과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충효의 꿈을 꾸어야 한다.

그럴때라야만 경애하는 장군님의 전사라고 감히 말할수 있을것이다.

주체의 화신

아이자이아 쿼오 모리손

주체위업의 계승자

김정일원수

당신은 주체사상의

위대한 화신이지여라

가장 존귀하신

김정일원수

당신은 우리모두의

운명의 총체이지여라

혁명의 길우에서

당신은

위대한 령도자

항도자

위대한 철학가지시여라

일심단결을 이룩하신분

당신은 우리의 억센 기둥

우리 당신께 운명을 의탁하기에

결코 넘어지지 않노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지여

사회 정치적진보를 이룩하신분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 절대로 주저하지 않노라

오직 앞으로만 전진하노라

위대한 사상리론가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펼쳐주신

평화통일을 위한 10대강령과

민족의 자주성실현을 위한 비결의 열쇠

당신은 높이 드시였어라

당신의 고귀한 품모

당신의 빛나는 예지

우리의 힘과 용기되고

우리의 지친 걸음

억세계 떠밀어주시였어라

우리 배고플 때

당신은 양식을 주시고

시련의 바람 불어올 때면

당신은 방패되어 막아주시였어라

당신은 로련한 선장되시여

우리의 함선을 암초에서 구원해주시였어라

우리의 영원한 항도성

아 **김정일**원수

당신은 주체의 위대한 화신이지여라

(필자는 가나시인임)



가사문학을 지도하시며

간고한 시련의 길을 역세계 걸어가는 우리의 대오앞에서 언제나 투쟁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

겹쌓이는 난관을 뚫고 《고난의 행군》길을 걸지만 반드시 승리할 래일을 안고 사는 인민의 신심과 투지가 그대로 메아리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횡포와 도전이 악랄해질수록 더욱 힘있게 터져나오는 혁명의 노래.

주옥같은 가사와 전투적기백이 차넘치는 선물로 이루어진 시대의 명곡들이 최근에 수없이 창작되어 우리 인민의 진군길을 떠밀어주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대하며 우리 작가들은 깊은 감회에 잠기곤 한다.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것처럼 분망하신속에서도 시대의 웨침이 될 우리 가사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쉬임없이 이어오신 한해의 로고가 돌이켜져 가슴젖어드는 작가들이다.

수많은 명곡들과 명가사들로 날과 달이 장식된 해여서 우리의 추억을 즐겁게 해주는 지난해.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손길아래 얼마나 많은 시대의 찬가들이 태어나 우리 문학예술의 보물고를 채웠던가.

한편한편의 그 가사문학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창작완성되었으니 그이께서 바치신 로고의 나날을 격정없이 되새길수 없는 우리들이다.

정초의 첫날부터 인민의 행복을 지켜 최전연고지의 산밭을 누벼가시고 만년대계의 창조물들을 일일이 찾으시는 그 길에서도 우리 장군님께서 창작되는 모든 가사작품들을 빠짐없이 지도해주시면서 언제나 우리 작가들과 함께 계시었다.

때없이 울리는 작가들의 미숙한 가사작품을 놓고 사색을 기울이시며 아낌없이 시간을 바쳐가시던 경애하는 장군님.

노래로 정치를 하시고 노래로 승리의 그날을 앞당겨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오늘의 조성된 난국을 혁명의 노래높이 타개해나가실 숭고한 뜻을 지니시고 하나하나의 가사작품에 것처럼 심혈을 기울여가시었다.

지난해 4월 26일에는 조성된 정세와 당앞에 나

신 혁명임무로부터 문학예술분야에서 우리 인민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가사문학이 시대와 인민의 요구에 맞게 창작되도록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지금이야말로 작가, 예술인들이 피끓는 심장으로 인민들에게 불굴의 투쟁정신과 필승의 신념, 혁명적락관을 안겨주는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작가들이 세워야 할 창작자세며 창작기풍에 대한 문제, 창작방향에 이르기까지 뚜렷이 밝혀주시고 오늘의 시점에서 명작이란 과연 어떤것인가를 명철하게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작가들은 새로운 안목으로 창작적열정을 불태우며 많은 가사작품들을 써내었다.

그때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당의 의도를 받들고 그들이 쓴 작품들을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다 보아주곤하시었다.

어떤 가사에 대해서는 가사가 아주 잘되었다는 과분한 치하도 해주시고 어떤 작품은 몇번이나 보고 또 보아주시며 노래로 형상할 형상방도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가르쳐주곤하시었다.

잘못된 표현이 있는 대목을 보실 때는 작가들을 책망할대신 오히려 펜을 드시고 가필까지 해가시며 좋은 가사로 완성시켜주신 경애하는 그이의 로고를 다는 헤아릴수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사문학을 지도하시며 보내시던 그 귀중한 나날이 있어 수많은 명가사들이 태어나게 되었다.

《수령님 남기신 사진》과 같이 어버이수령님의 고결한 동지적의리와 품모를 감동깊게 형상한 노래들과 《우리 사단 앞으로 간다》, 《비행사의 노래》처럼 일당백군인들의 혁명적군인정신이 맥박치는 가요가 훌륭한 작품으로 창작되어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의 심장을 틀어잡았다.

가사가 아주 잘되었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최상의 평가를 받은 작품들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가사의 구절구절을 짚어 가시며 《청춘과 용감성》, 《장군님 안겨주신 기관총》 등 많은 작품들에는 몸소 은정어린 필적을 남기시어 명가사로 완성시켜주시기까지 하시였다.

작가들의 안목을 띄워주시고 형상의 대도 심어 주시어 모든 가사작품들이 명작으로서의 품격을 갖추도록 이끌어주시고도 그이께서는 작품들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들을 고스란히 작가들에게 돌려주곤하시였다.

문학예술분야에서 좋은 작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만족해하시며 창작가, 예술인들이 더 큰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창작활동을 벌려나가도록 믿음을 주기도 하시였다.

《조국이여 마음껏 설레하시라》의 가사가 나왔을때에는 한번청년발전소 1단계조업식을 계기로 자랑높이 노래로 불리우도록 해주시였고 인민군 군인들의 영웅적기상과 무비의 용감성이 심어진 가사를 지도해주시고는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 인민군비행사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시는 더없는 영광까지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각별한 관심속에서, 작품을 쓴 작가의 이름에 밑줄을 그어가시며 기울이신 그렇듯 다심한 사랑속에서 창작완성된 노래와 가사들을 어찌 다 꼽을수 있으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창작되는 모든 가사마다에 혁명적기백이 차넘치고 붉은기정신이 구현되도록 정력적인 지도를 주시어 한소절 한소절의 노래가 다 시대의 목소리, 투쟁의 힘있는 무기가 되도록 해주시였다.

하여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승리의

한길입니다》 등 많은 노래들에 우리 인민의 인생관이 비끼고 지향이 담겨 격조높이 불리우고 《장군님 여기는 최전연입니다》와 같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녕을 바라는 인민의 절절한 념원과 장군님을 따라 승리의 그날을 안아올 굳센 의지의 노래들이 려리어 울려나오게 되였다.

지난 한해동안에 백수십여편이나 되는 가사작품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손길아래 창작완성되었으니 실로 가사문학발전을 위하여 웅근한해 기울여오신 그이의 심혈을 어떻게 다 이야기할수 있단말인가.

하기에 위대한 스승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손길아래 명가사열매가 주렁진 문학예술의 풍작마당을 또 한해 마련해놓은 크나큰 자부심에 잠겨 우리 작가들은 세상에 소리높이 웨치고있다.

《지난해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인민군 구분대를 찾아 령도의 자육을 새겨가신 군건설사에 특기할 나날인 동시에 우리 작가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주시며 명가사 풍년을 마련해가신 력사에 불멸할 창조의 나날이였다》고...

격동적인 현실을 펼쳐가시며 그것을 노래에 담도록 순간의 휴식도 모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조국은 언제나 장엄하고 벽찬 시대를 맞을것이며 우리 작가들은 영원한 혁명의 노래, 승리의 노래로 인민을 불려일으켜나가는 혁명의 나팔수로 자랑떨쳐갈것이다.

본사기자

김정일화

홍문수

그 뿌리
흙에만 두고 피었다면
잎이 저리도 푸를수 있으랴
꽃이 저리도 붉을수 있으랴

김정일화

김정일화

해빛도 천만년 피우지 못한 꽃을
위인을 모신 세기의 영광이
꽃중의 꽃으로 만발하게 하였나니

따르는 일편단심
있으로 푸르른듯
우러르는 뜨거움
꽃송이로 불타는듯

장군님 품에 천하를 맡기고
장군님 예지에 미래를 의탁한
온 세계의 마음 화분으로 삼고 핀 꽃
아아 그 마음에 뿌리둔 김정일화여!

파도우에 남기신 자옥

장해명

산같은 파도
칠혹같은 어둠의 장막...
사납게 울부짖는 바다를 눌러닫고
장군님 헤쳐가신 초도의 배길

가신 길은
캄캄한 어둠속 어디
한밤중 외진 섬은
망망한 풍랑속 그 어디...

묻지 말라
병사들을 그리도 사랑하시는 우리 장군
파도넘어 그곳엔
다름아닌 병사들이 있었기에
천길파도를 헤쳐가신 그밤의 배길-

병사들이 있는곳이라면

사선의 고비도 넘어가시는
그 불같은 사랑으로
바다를 이기시였다
산악같은 그 믿음으로
파도를 누르시였다

오, 병사들을 품안고 가시는 령장의 길은
물우에도 자옥을 남기는가
그날의 배길우엔 푸른 물만 출렁이여도
뜨거움에 젖는 내 눈엔
온 바다를 짝 채우며
장군님의 거룩한 그 자옥 안겨오나니

못잊을 파도우에 남기신 그 자옥은
억만년을 두고 씻기지 않으리라
이 나라 병사들의 가슴에
이 나라 인민의 가슴에

오시는 모습

리연희

차마 떠나기 아쉬우신듯
장군님은 다시 내리시였네
사랑스런 딸들이 다시 보고싶으시여
닫으셨던 차문을 활짝 여시고

오시는 걸음인듯 다시 한품에
너성고사총수들을 모두 안아주셨네
울먹이는 가슴들 달래주시며
다시 오마 다시 오마 약속도 하셨네

노을이 곱게 비긴 새벽을 향해
오늘도 병사들 창문을 열면

저 길우에 차문은 다시 열리고
환하게 웃으시는 장군님 모습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속에
중대의 기록장을 펼치면 그 글줄우에
조용히 차문은 다시 열리고
자애로운 그 음성 다시 들리고

못잊을 추억속에 그리는 마음속에
차문은 열려있어
장군님은 언제나 오시는 모습
장군님은 언제나 오시는 모습

인민위해 바치신 생신날의 이야기

정일봉의 해돋이로 밝아오고 소백수 푸른 물로 한껏 정화되어 눈부시게 빛나는 2월의 그 아침을 생각한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칭송하는 만민의 그 마음 한결같이 우렁찬 환호소리가 하늘땅을 진감하는 경사로운 민족의 명절.

백두밀영고향집을 찾아 마음 달려가는 인민의 가슴마다에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힘모의 정이 흘러넘쳐 서리꽃 피는 계절에 축원의 꽃바다가 펼쳐진다.

창조와 위훈으로 조국을 받드는 근로인민들과 사회주의보루를 굳건히 지켜선 방선의 초병들이 그리고 인류의 마음과 마음들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며 이날을 맞는다.

세월이 갈수록 더 큰 경사에 잠기는 우리들이건만 이 하루도 경애하는 그이께서 바쳐가실 고고가 미쳐와 마음은 승엄해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주체혁명위업을 계승발전시키나가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밤낮이 따로 없이 헌신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평범한 날들에 비하여 몇곱이나 더한 사색과 심혈을 고스란히 인민을 위한 일에 기울여주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맞으시는 탄생일.

인민이 드리는 축복의 인사를 받으시기전에 인민들에게 안겨줄 사랑의 설계도를 작성하시며 인민들과 이 하루도 보내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영상이 안겨와 가슴은 뜨겁다.

다박술 우거진 어느 초소의 병사들속에서 이 아침을 맞으실가, 그 어느 공장구내길을 걸으시며 해를 보내실가고 우리의 생각은 끝없이 뻗어가며 그이께서 밟으실 자욱자욱을 더듬고있다.

그러면 흘러간 세월들에 새겨진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일마다에 있었던 감동깊은 이야기가 또다시 가슴을 적셔준다.

과연 경애하는 그이께서 맞고 보내시던 그 모든 탄생일의 어느 하루인들 걱정없이 번질수 있단말인가.

력사가 길이 추억하고 인민의 심장속에 뜨겁게

간직된 일지의 몇토막을 펼쳐보기로 하자.

생신날도 혁명과 투쟁의 하루, 위대한 사색과 인민을 위한 정력적인 활동의 하루로, 인민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정의 하루로 보내군하시는데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품도를 보여주는 1985년 2월 16일에 있었던 일.

언제 한번 편히 쉬신적이 없이 로고의 날을 이으시는 경애하는 그이께 일군들은 자그마한 경축연회라도 차려드리고 축하를 올리고싶었다.

이 사실을 아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을 책망하시며 요즘 합숙에서 생활하고있는 합숙생들의 형편이 어떤지 알아보아야겠다시며 생일상대신 합숙밥을 가져오도록 하시는것이였다.

합숙밥을 앞에 놓으시고 몸소 수저를 드신 그이께서는 밥에 벼알이 없는가, 밥이 잘되였는가를 하나하나 헤아리시면서 합숙생들은 집 떠난 사람들이므로 일군들이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타이르시기도 하시고 식찬도 많이주고 질도 높이라고 친아버이사랑으로 보살펴주시였다.

격해지는 심정으로 목메여있는 일군들에게 그이께서는 마침 겸사겸사 합숙밥을 먹어봤다고, 결국 그러고보니 올해 생일상은 합숙생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며 받은셈이라고 밝게 웃으시는것이였다.

인민에 대한 사랑이 그 얼마나 지극하시면 생신날에조차 인민을 위하시며 온 하루 마음쓰시고 그들과 한가마밥을 나누시는것으로 그토록 기뻐하시랴.

순간도 자신을 인민과 떼여놓지 않고 계시기에 전후 어려웠던 어느해의 생신날에는 인민들과 똑같이 잡곡밥을 들겠다시며 끝끝내 잡곡으로 밥을 짓도록 하셨던 장군님이시였다.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어느해의 탄생일에는 책임일군협의회에서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한 불후의 로작도 발표하시기도 또 어느해인가는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조국의 영예를 떨친 우리 아이들을 축하해주시며 그들을 품에 안고 사진도 찍으시면서 그날을 보내기도 하시였다.

어느 생신날엔가는 인민이 드리는 감사와 영광을 사양하시고 오히려 투사들의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시며 그들의 공로를 일러주시고 또 어느해 인가는 일군들을 찾으시여 조국통일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우리모두 수령님의 전사답게 일을 잘하여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꼭 성취하자고 절절히 말씀하시던 그런 날도 우리는 잊지못하고있다.

자신의 생신날에 화려한 꽃다발이나 레찬보다도 행복에 겨워 웃음짓는 인민의 모습을 보시며 만족해하시고 축하의 박수갈채보다 창조로 들끓는 조국의 숨결에서 희열을 느끼시는 우리 장군님.

그래서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생존시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일이 오면 한없는 믿음이 어린 불멸의 송시도 남겨주시었고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시여 수령과 진정한 후계자사이에 오고가는 감동깊은 의리의 화폭을 보여주셨던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 40돐을 맞는 1982년의 경사로운 날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소박한 오찬회를 마련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탄생하시여 혈전을 벌리시던 어머니의 등에 업혀 자라셨기에 유년시절 언제 한번 생신날을 모르시었고 혁명과 건설의 거창한 시대를 이끄시느라 생일축하의 인사를 받으신적 없으셨던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하여 베푸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지적사랑이 깃든 모임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자리에서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과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이의 탄생일을 축하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시는 평가의 말씀과 조국과 인민이 드리는 영웅칭호를 수여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만민의 축하속에 단 하루만이라도 편히 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일군들에게 나는 오늘 수령님께 당과 혁명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할것을 맹세하셨다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는것은 나의 필생의 사명이라고 격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철석같은 의지의 말씀을 남기신 그이께서는 일군들의 만류를 물리치시며 그길로 또다시 현지지

도의 길에 오르시였다.

누구나 명절의 경사로움에 휩싸여있을 때 우리의 장군님께서서는 4월의 명절을 맞으며 인민들에게 마련해줄 만년대계의 경기장건설을 위하여 현지로 나가시였던것이다.

찬기운이 서려있는 날씨에 흙먼지가 떠도는 건설장의 곳곳을 돌아보시며 인민들이 리용할 경기장을 더 잘 세우시려 오랜 시간 바쳐가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였다.

정녕 경애하는 그이의 생신날들은 년년이 보통날의 하루로 흘러갔다. 아니 오히려 이날은 인민에 대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시고 조국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시는 날이며 인민들의 보다 큰 행복이 마련되는 사랑의 날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런날들이 있어 온 나라 아이들이 은정어린 선물을 받아안고, 우리모두가 나날이 커지는 행복에 겨워 기쁨에 넘쳐있는것이며 인민이 축복받는 명절로 그 아침도 밝아오는것이다.

하여 동터오는 새벽노을속에 현지지도의 길을 또다시 걸으실 경애하는 그이를 생각하며 인민들은 잠시의 휴식도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잠겨 만수축원의 인사에 앞서 그리움에 불타는것이여라.

...

지금은 그 어디에 계시옵니까
북변의 공장길을 걸으십니까
두메의 농장길에 오르십니까
가시는 걸음걸음 꽃이 폼니다

생신날의 하루까지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만고의 업적을 영원한 기념비로 아로새기며 한마음 충성을 다 바쳐갈 인민의 맹세가 노래되어 울린다.

...

비바람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

본사기자 로창일

시조

말하라, 금강산아

신동식

은정속에 빛나는 이름

금강산을 찾는이
누구나 걸음 멈추고 읽으라
우리 수령님 남기신 친필을-
《금강산은 조선의 명승입니다.》

금이 아무리 많아도
명승과 바꾸지 않으신
수령님의 뜻을 새겨안고
아끼고 가꾸어야 할 금강산

원췌가 아무리 강적이라 해도
명승을 내어주지 않으신
수령님의 의지를 새겨안고
지키고 빛내어야 할 금강산

바위 하나, 못 하나
오늘도 아름다운 전설을 들려주고
절간 하나 암자 하나
옛 모습 그대로 찬연한 빛을 뿌려주어라

금강산엔 길을 하나 내어도

흙집이 가지 않게
명승의 풍치를 둔군
다심한 손길이 어데나 있어라

물이 천가지 재물을 피우고
돌이 만가지 재주를 부리는
하늘아래 제일강산에
수령님은 어떤 인민을 키우셨던가

보아라 금강의 기암괴석을
세월의 거친 비바람속에서
그 몇번을 다듬은 아름다움이나
인민은 또한 모진 고난속에서
그 몇번을 다듬은 아름다움이나

아, 내 여기서 깨닫는
가슴속 희열은 무엇인가
금강산이 산으로서 완성미를 가졌듯이
인민은 인민으로서 완성미를 가졌다는 생각이여
라

틀어진 주먹

수정봉에 올라
저 멀리 운무속을 바라보니
눈앞에 가까이 다가서네
351고지!

우리 장군님
눈바람속에 오르셨던
영웅의 고지는
틀어진 주먹같이 솟아있어라

장군님은 감회깊이 추억하시였어라
전화의 날
금강산을 지켜

목숨도 아끼지 않은 영웅들을

몸으로 적의 철조망을 덮고
습격조의 통로를 열어놓은 그 병사
새 나라의 첫 휴양생으로
금강산에 왔던 청년은 아니었던가

공격을 개시한지 30분만에
고지에 공화국기를 휘날린 그 병사
승리하는 날
고향의 부모들을 데려다
금강산을 구경시키려던 청년은 아니었던가

런 사일 적의 반돌격을 물리치고
고지우에 틀고앉았던 그 병사
전우들에게 룡담 아닌 진담으로
금강산처녀에게 장가들리라던 청년은 아니었던가

아,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원썬들의 발굽에 금강산을 더럽히지 않으려
두주먹에 틀어쥐였던가
철조망을, 기발대를, 수류탄을!

그 기상을 길이 빛내이시려고
우리 장군님께서
최전연 영웅의 고지에 오르시여
적진을 한손에 거머쥐시었나니

말하라, 금강산아
세상에 이름높은 351고지는
언제나 영웅의 고지로
영광을 펼치리라

만물상도 웃음집이 흔들렸네

내 방금
안변청년발전소를 보고온때문인가
참말로 만물상에
무엇이든 다 있구나

방불하여라
물길굴의 끝없는 주름주름이
언제의 귀맞춘 천층만층이
취수구의 물기둥이

깨바위, 결바위
분출암의 천만 생김새가
보는 사람의 마음이여서
만물상은 누구나 탄복케 하누나

하지만 땅속의 《지하강》만은
만물상도 그려놓지 못했구나
이제는 만물상 스스로가
군인건설자들의 힘에 탄복하누나

그래도 금강산의 이름으로
부러운것 있을세라
이 세상 모든것
다듬어세운 만물상이여서

자연의 창조물에 비길수 없는
인간의 거창한 창조물이
제 이름으로 불리우는 기쁨에
만물상도 웃음집이 흔들렸구나

비로봉

만폭동 지나니 금사다리 은사다리
내 귀밑머리 희였건만
지평이도 아니 쥐고
금강의 주봉 비로봉에 오르노라

각시꽃이 웃어주고
매발톱나무가 손잡아주고
앵무새가 위로해주니
마냥 기분이 뜨는구나

인삼록용 씻어내린다는
금강의 물이 조화를 부렸나
만산엔 단풍이고
절벽엔 함성이네

내 뽕어서는
비로봉까지 오르지 못했건만
오늘은 반백의 머리로

펼 펼 힘을 날리며 오르노라

사람에게 뉘이 있어
산천에 뉘이 깃든다 했거니
내 한생 버린 뉘을
비로봉에 얹으려다

실패한 인생은 중턱에서 돌아내리라 하라
나는 정점에 올라서고야말리
저녁별이 하늘에 보일 때까지
비로봉에 올라 1만2천봉을 굽어보리

아, 정녕 비로봉은
안개바다속에 솟아오른
꿀꿀한 아들딸들을 거느리고
드높이 솟아 백두산을 바라보누나

조종의 산이 백두산이라면

명승의 산은 금강산이려니
부드러움과 고결함, 강직함을
어데나 아기자기 펼쳐놓았구나

무엇인가
내 눈에 넘치는 이 감격의 눈물은
아마도 그것은 천만사람에게

성공한 일생을 준 어머니당의 손길을 보았음이라

비로봉, 비로봉아
내 활기에 넘쳐 살리라
명승의 산을 달려내리는 시내물같이
어머니당의 손길을 꼭 잡고 살리라

조정지 언제우에서

송명근

천험의 산밭을 굽어 보며
조정지 언제우에 섰노라

땅속으로 흘러 대인공 지하강을 흘러흘러
방출갱이 쏟아내는 물줄기
소용돌며 늪실대는 푸른 물이
천만년세월 서해로 흐르던
북한강 물결이란 말인가

온순히 길들여진 대자연이여
강바닥이 그대로 내려앉던 대붕락과
예고도 없이 터지던 석수
갈기를 세우고 사납게 덤비던
자연의 횡포는 어데 갔느냐

아름다워라 산중의 호수
해빛을 안고 늪실대는 물결은
병사의 진한 피와 땀이 층층이 고여
하많은 노래의 저수지로 되었구나

90년대의 기적- 안변청년발전소
인간의 상상이 못미치는 고난우에 솟아난
세기의 창조는
또 하나
위대한 군인정신을 낳았나니

암반과 신념의 대결장
고난과 의지의 한계의 시험장에서

시대의 행진곡으로 내려쳐오른 군인정신이여
맨주먹으로 산악을 들부신 결사의 정신이여

온 세상에 소리높이 웨치노라
한번 결심하시면
불가능을 모르시는 우리 장군님
그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그대로 났지 않았다면
병사들이 어떻게 고난의 굽이굽이를 넘었으며
장군님의 위대한 심장이 안겨준
사랑으로 달쿠어지지 않았다면
병사들에 이토록 아름다워졌을것인가

쏟아져라 물줄기
기쁨의 폭포가 되어
내 이 땅의 시인으로 붓을 들지 않았다면
어데 가서
이토록 아름다운 장군님의 병사들
이토록 신성한 군인정신을 노래에 담아보라

산중에 새로 생긴 대인공호수
온순히 길들여진 대자연이여
너 이제는
퍼내고퍼내여도 마를줄 모르는
노래의 물줄기, 시대의 격류로
넘치여라 길이길이 흘러 흐르라

겹쳐오는 천만시련도 눈아래 굽어보며
조정지 언제우에 섰노라

력사의 새벽길에서 울려퍼진 《지원》의 노래

-조선국민회결성 80돐에 즈음하여-

최연경

오늘 우리는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고난의 행군》을 힘차게 벌려온 준엄한 시련의 해인 1996년을 보람찬 투쟁과 승리로 총화하고 신심도 높이 락관에 넘쳐 새로운 부흥의 해, 희망찬 승리의 해 1997년을 맞은 벽찬 환경속에서 조선국민회결성 80돐을 뜻깊게 기념하고있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1917년 3월 23일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였다.

조선국민회는 전체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참다운 문명국가를 세울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로서 3.1인민봉기를 전후한 시기 반제자주적인 립장이 가장 투철하고 그 조직규모가 제일 크고 치밀한 반일지하혁명조직이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 조직을 국내까지는 물론 국외의 여러 지역에까지 넓혀나가시였으며 이 조직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여 광범한 인민대중을 반일투쟁으로 적극 불러일으키시였다.

전생애를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바쳐 싸우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였으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을뿐아니라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으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시였던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업적은 조선국민회와 함께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되어있으며 조국청사와 더불어 빛나고있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에서 문예활동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조선국민회결성 기념일을 맞은 우리는 선생님의 빛나는 문예활동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조선시가사에서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는 선생님의 주옥같은 시편들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본다.

눈서리와 찬바람속에서도 곱힘과 변색을 모르는 푸르청청 거연히 서있는 소나무와 같이 혁명의 굳센 뜻과 불굴하는 조선의 기상이 자자구구마다 흘러넘치는 불멸의 명시 《남산의 푸른 소나무》, 민족대단합의 대의와 혁명의 폭풍우에 대한 불같은 갈망으로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는 열정의 가사 《전진가》 그리고 선생님의 혁명적리념이 그대로 아로새겨진 시 《짓밟힌 동포야 일어나거라》,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 민족》 등 한편한편의 시가들은 그 원숙한 시적형상과 함께 거기에 담겨진 선생님의 투철한 반제자주정신과 불굴의 혁명정신, 불같은 애국충정과 락관주의로 하

여 오늘도 《고난의 행군》을 벌리고있는 우리 인민들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사상에술성이 높고 혁명성이 강한 참문학은 그 생명이 자기 시대에 끝나지 않으며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력사의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면서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불멸하는것이다.

그리고 당대의 그날처럼 인민을 투쟁으로, 혁명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것이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시가문학을 세월의 언덕을 넘어 불멸하는 투쟁의 노래로 되게 한 근본원동력은 거기에 일관하게 차넘치는 위대한 《지원》의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원토록 길이 불멸할 국보중의 국보인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내가 철이 들자 아버지는 나에게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는것을 가르치면서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려면 큰뜻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지원>이란 문자 그대로 뜻을 원대하게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뜻을 원대하게 가지라고 가르친다고 해서 별로 특이할것은 없다. 무슨 일을 하든지 높은 리상과 포부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성공할수 없다.

그러나 <지원>의 사상은 개인의 영달이나 립신양명을 넘두에 둔 세속적인 인생교훈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참된 보람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인생관이며 대를 이어가며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광복을 이룩해야 한다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다.》

선생님께서 마음만 굳게 먹으면 힘을 기를수 있고 힘만 기르면 능히 강적을 물리칠수 있다고 확신하고계시였다.

문제는 나라를 찾겠다는 한마음한뜻으로 온 나라 인민을 불러일으켜 원쑤를 쳐물리칠만큼 힘을 키우는것인데 이 일은 하루이틀에 성취할수 없는것이니 뜻을 멀리 가져야 한다는것이다.

이 원대한 뜻을 한가슴에 안으셨기에 선생님께서 집형편이 그처럼 어렵고 민족비운이 강산에 드리운 그 암담한 시기에 강심을 품고 결연히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고 32년의 짧은 한생을 그토록 값높이 사실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후날 삼사년이면 끝장을 볼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항일무장투쟁이 장기전으로 넘어갈 때 어린 시절 자신의 손목을 잡고 만경봉을 오르내리시면서 아버님께서 심어주신

이 위대한 뜻의 위대함을 다시금 폐부에 새기시었고 해방후 북과 남으로 갈라져 상반되는 길을 걷고있는 민족분열의 장구한 비극을 체험하시면서 그 말씀에 담겨있는 깊은 뜻에 새삼스럽게 숙연한 생각을 금치 못하시었다.

《지원》의 위대한 사상은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충성으로 받들고 미증유의 세파를 헤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충진군을 벌리고있는 우리 인민을 오늘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참으로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사상은 사람이 한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바쳐 참답게 살것을 가르쳐주는 숭고한 혁명적인생관이며 대를 이어가며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해방을 이룩해야 한다는 백철불굴의 혁명정신이다.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하여 행복한것이 아니며 오래산다고 하여 영생하는것도 아니다. 비록 짧게 살아도 빛나게 산 삶,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바쳐진 삶은 조국과 더불어 인민과 더불어 영생하는것이다.

혁명의 길은 우리가 가야 할 영광에 찬 길이며 그것은 멀고 험난한 시련의 길이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만이 이 멀고도 준엄한 혁명의 길에서 승리자가 될수 있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시가문학은 망망대해를 향하여 굽이쳐가는 대하의 흐름과도 같이 이 위대한 《지원》의 사상이 줄기차게 맥박치고있는것으로 하여 오늘도 우리 인민을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으로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거기에는 설레이는 파도와 같은 세찬 혁명의 격정도 있고 노도와 같은 분노와 의분도 있으며 그끝을 헤아릴수 없는 깊은 바다와도 같이 웅심이 깊은 애국애족의 숭고한 세계도 있고 그 아득한 수평선 한끝에 찬란히 솟아오른 아침해와도 같은 희망찬 랑만도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지원》의 위대한 사상은 김형직선생님의 시가문학에 영생불멸을 주는 사상적원천으로 되고있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시가문학을 세월의 언덕을 넘어 오늘도 인민이 심장으로 부르는 혁명의 노래로 되게 한것은 시편들마다에서 불사신과 같이 퍼덕이는 불굴의 혁명정신이다.

죽어도 꺾이지 않는 이 혁명정신으로 하여 선생님의 노래는 근 백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도 우리 인민과 함께 있다.

난관을 참고 견디기만 하는것이 아니라 전진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며 방어가 아니라 대담한 공격으로 새로운 승리를 마련해나가는 최후돌격전

에 들어 선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우리 당의 붉은기사상, 백철불굴하는 혁명정신이다.

붉은기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사업자체가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념과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일대사상전이며 패배주의, 비판주의, 개인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를 불사르고 온 나라에 혁명적열정과 불굴의 기상이 차넘치게 하기 위한 혁명적공세이다.

불멸의 명시 《남산의 푸른 소나무》가 보여주듯이 김형직선생님의 시가문학은 바로 오늘의 이러한 시대적요구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주고있다.

남산의 저 푸른 소나무가
눈서리에 파묻혀서
천신만고 괴롭받다가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할줄을
동무야 알겠느냐

나라의 독립을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리
몸이 찢겨 가루되여도
광복의 한길에서 굴함없을줄
동포야 믿어다오

이 한몸 싸우다 쓰러지면
대를 이어 싸워서도
금수강산 삼천리에
양춘을 찾아올제 독립만세를
조선아 불러다오

선생님께서서는 1918년 감옥에서 나오시여 몸이 미처 추서기도전에 파괴된 혁명조직을 복구할 결심으로 분연히 고향을 떠나시였다. 떠나시기에 앞서 남기신 시가 바로 이 《남산의 푸른 소나무》이다.

이때 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를 독립시키지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내몸이 찢겨여 가루가 될지언정 일본놈들과 싸워이겨야 하겠습니다. 내가 싸우다 쓰러지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싸우다 못하면 손자가 싸워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나라의 독립을 성취하여야 합니다.》

시에는 그날에 남기신 선생님의 맹세가 그대로 력력히 담겨져있다.

몸이 찢겨 가루가 되여도 조국광복의 한길에 굴함이 없을 불굴의 혁명정신, 우리는 이보다 더 강한 혁명정신을 알지 못한다.

바로 이 죽어도 꺾이지 않는 혁명정신속에 다리에 치명상을 입고서도 맡겨진 임무를 끝까지

수행한 안변청년발전소 건설에서 발휘된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려는 우리 인민을 고무하는 영생의 힘이 있다.

눈서리에 파묻혀서 천신만고 괴로움을 받으면서도 반드시 돌아갈 양춘을 굳게 믿어 변색을 모르고 푸르청청 거연히 서있는 푸른 소나무의 숭엄한 모습, 그것은 그대로 죽음도 두려워함이 없이 시련과 난관을 끝까지 뚫고나가 기어이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려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빛나게 상징하고있다.

참으로 시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몸이 찢겨가루가 되어도 굴함없을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하여 억천만번 죽더라도 우리 식 사회주의와 운명을 끝까지 같이 하겠다는 결사의 각오와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싸우는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고난의 행군》을 다그쳐온 우리 인민을 크게 고무하였으며 오늘도 우리 인민을 최후돌격전으로 더욱 힘차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시에 반영된바와 같이 대를 이어 싸워서도 끝까지 조국광복의 성업을 성취하시려는 선생님의 비장한 혁명의 맹세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심장에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충성으로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인민의 확고한 신념과 혁명적의지를 더욱 굳게 해주고있다.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은 김형직선생님의 모든 시가문학에 일관하는 시정신이다.

선생님께서서는 시 《전진가》에서 가는 앞길이 태산과 같이 험해도 고생함을 락심말고 용감력을 더욱 분발해 용진용진 나아갈것을 청년들에게 호소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의 시가문학에 구현된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은 반제자주정신으로 일관되어있으며 양춘을 만나 소나무가 소생하듯 독립만세 높이 부를 광복의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리라는 락관주의와 통일되고있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시가문학은 오늘도 불멸하는 혁명의 노래로 되게 한 귀중한 시정신은 또한 투철한 반제자주정신이다.

조선국민회는 반제자주적립장이 가장 투철한 혁명조직이었으며 그것은 김형직선생님의 반제자주사상에 의하여 고무되고 지도되였다.

그 취지서에 명백히 밝혀져있는바와 같이 조선국민회는 외세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과는 달리 조선독립은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자주적립장이 투철하였다.

이렇듯 투철한 반제자주정신은 선생님의 시가문학에 그대로 반영되어있다.

김형직선생님의 시가문학에 구현된 반제자주정신은 민족대단합의 위대한 사상과 결합됨으로써 더욱더 투철해지고있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일찌기 단결의 힘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나라를 수호하는 큰 일을 하자면 굳게 뭉쳐야 합니다.

샘물도 흘러서 한곳으로 합치면 큰 강이 되고 그 강은 마침내 뚝을 밀고 망망대해로 모여듭니다.

바다의 힘은 얼마나 강합니까.

샘물에는 매생이도 띄울수 없지만 바다에는 큰 군함도 띄울수 있지 않습니까. 보잘것 없는 힘도 이렇게 합치면 우리 나라에 기여든 왜놈들을 쳐부실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이 간곡한 민족대단합의 대의는 그대로 시 《전진가》의 사상적기초로, 그에 일관한 기본사상으로 되였다.

태평양과 대서양의 무한한 물은
산곡간의 적은 물이 회합함ियो
우리들의 적은 지식 발달하기는
천신만고 지난후에 능히 하리라

오고가는 바람형세 맹렬한것은
무형무색 공기들이 회합함ियो
우리들의 적은 사업 성취하기를
뇌심초사 힘써함이 이것아닌가

...

시가에서는 태평양, 대서양과 같은 큰 대양도 산곡간의 적은 물이 회합하여 이루어지는것처럼 청년들도 지식을 쌓아 힘을 키워 조국광복대업에 바쳐가자는 호소가 강렬하게 울리고있으며 힘을 모으고 단결하면 조국광복을 반드시 성취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강하게 울리고있다.

시가에 반영된 민족대단합의 위대한 경륜은 그 어느때보다도 민족대단결을 이룩해나가야 할 우리혁명의 절박한 오늘의 요구에 그대로 훌륭한 대답을 주고있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시문학이 시대의 언덕을 멀리 넘어 오늘도 우리 인민을 투쟁으로 고무하는 혁명의 노래로 되는것은 또한 거기에 세차게 맥박치는 애국애족의 충정때문이다.

민족을 떠나 참사람의 존재가치를 생각할수 없다면 애국애족을 떠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란 생각할수 없다.

민족의 운명속에 너와 나 모두의 운명이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당은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 인민이 어버이수령님의 참된 제자, 참된 전사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한 애국위업에 피와 땀을 바칠것을 요구하고있다.

전당, 전국, 전민이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애국성업에 한결같이 떨쳐나 자주적 인간의 삶을 계속 누리느냐, 아니면 주저앉아 다

시 남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결사전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김형직선생님의 시가문학이 사람들을 애국애족으로 부르는 투쟁의 노래로 되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시 《깃뺏힌 동포야 일어나거라》는 1918년 11월 력사적인 청수동회의에서 밝히신 김형직선생님의 무산혁명과 무장투쟁에 관한 혁명적방침이 그대로 구현된 혁명적시이다.

시는 달밝은 완월루에 높이 올라서 외적을 쳐 물리치는 조국방위에 몸바쳐싸워간 선조들의 지난날을 감회깊이 회고하면서 애놈들에게 깃뺏힌 오늘의 비통한 현실을 체험하는 서정적주인공의 비분강개한 서정적형상을 통하여 1910년대 일제의 가혹한 《무단통치》 밑에서 조선민민이 나아갈 길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심각하고도 절박한 사회정치적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은 오직 무장으로써 적과 싸워 독립을 이룩하며 무산민중의 새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는 심오한 사상을 밝히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 《깃뺏힌 동포야 일어나거라》는 김형직선생님의 지도밑에 1910년대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으로 방향전환을 하던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의 력사적현실에 대한 진실하고도 빛나는 확인으로 되었다.

시에서 선생님의 눈에 비친 조국의 모습은 참으로 처량하고 구슬픈 수난자의 모습이었고 뼈가 저리도록 못견디게 귀중하고 사랑스러운것이였다.

달밝은 완월루에 높이 올라서 동주성을 바라보는 서정적주인공은 예로부터 아름다와서 길손의 시흥을 불러주던 이 정다운곳이 왜놈의 학정아래 북변강 배사공의 구슬픈 노래만이 구봉산기슭에 메아리쳐가고 달빛도 산천도 빛을 잃었다는 비분강개한 마음을 금할수 없어한다.

이것은 반일애국의 사상감정이 드높아가고있었던 1910년대 시대의 선구자, 참다운 애국자의 빛나는 형상으로 된다. 이 시적형상은 그옥한 민족적향취로 하여 더욱더 절절한 애국적감정을 자아낸다.

이 절절한 시적형상이 안변청년발전소 건설에서 발휘된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빛내이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위업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는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시문학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 오늘도 불멸하는 혁명의 노래로 되고있는것은 또한 시편들마다에 차넘치는 풍만한 량만, 열렬한 락관주의때문이다.

전당, 전군, 전민이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최후돌격전에 나선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것은 필승의 신심이며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다.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라는것이 우리의 붉은기에 새겨진 철리이다.

오늘의 현실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이 《사회주의의 승리가 보인다!》는 구호를 심장으로 부르며 필승의 신심과 혁명적락관에 넘쳐 싸워나갈것을 사활적요구로 제기하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총진군대오에는 풀죽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사회주의를 고수하겠다는 철석같은 신념,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투철한 인생관이 차넘치고있어야 한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시문학은 우리 인민에게 바로 이러한 혁명적 신심과 락관을 안겨준다.

시 《깃뺏힌 동포야 일어나거라》에서 보는바와 같이 서정적주인공은 잃어진 조국을 두고 슬퍼하기만 하지 않으며 굶주리고 깃뺏힌 민중이 무장을 들고 판가리싸움에 일어날것을 호소하고있으며 무도한 외적을 쳐물리치고 동주성 완월루에 다시 올라 목청껏 독립만세를 부르며 무산민중의 새 사회를 건설할것을 확신에 넘쳐 노래하고있다.

절절한 애국의 감정이 전투적기백과 밀착된 이러한 혁명적량만은 선생님의 모든 시편들을 관통하는 중요한 형상적특성으로 되고있다.

시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서 양춘을 찾아올제 독립만세를 불러달라는 시적형상은 모두가 다 강한 량만성에 의한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특징적이다.

시의 마지막 결속부분에 이러한 량만성을 부여함으로써 조국광복의 신심을 확신성있게 노래한것은 선생님의 모든 시편들에 일관한 특징이라 할수있다.

이러한 특징은 지어 잃어진 조국에 대한 비감이 가장 짙게 풍기는 시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 민족》에서조차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선생님께서서는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 민족 하해의 티끌같다 슬퍼하시면서도 《잃었다고 울지 말라 우리 민족, 우리 나라 회복할 날 멀지 않으리》라고 신심에 넘쳐 노래하시면서 우리 인민을 조국광복성전으로 불러일으키시였다.

바로 혁명승리에 대한 이러한 굳은 신심, 반드시 밝아올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여기에 선생님의 시문학이 오늘도 어제와 같이 변함없이 그리고 래일도 영원히 우리 인민을 투쟁으로 힘있게 부르는 혁명의 노래로 되는 근거가 있는것이다.

참으로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시문학은 그 높은 시적형상과 함께 위대한 《지원》의 사상에 의하여 고무되는 심오한 혁명정신으로 하여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인민을 투쟁과 혁명으로 불러일으킬것이다.

애국의 넋이 깃든 땅

최성진

대성산에서 떠난 뺨스는 고구려의 옛궁성이 자리잡고있던 안학동을 지나 기세좋게 달리였다. 넓은 도로는 동쪽으로 휘연히 트이였다. 눈 녹은 3월의 대지가 시야에 안겨들었다. 거름을 듬뿍 실은 트랙트르들이 준평원의 동실한 구릉지대를 달리고 방풍나래를 둘러친 포전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였다. 그런가 하면 파수원을 끼고 있는 양지바른 산기슭에 새 주택지구가 일어서고 있다. 어디가나 살고싶은 내 나라, 보다 부강한 미래를 위하여 온갖 고난과 시련도 웃으며 헤쳐가는 땅이였다. 새 세기를 향해가는 시대의 역센 숨결을 느끼며 나는 지금 조국력사의 새로운 려명기에 찍혀진 거룩한 자취를 찾아가고있다.

뺨스는 로산과 성문을 지나 삼석땅이 끝나는 도덕리근방에 이르렀다. 동화세계에서나 볼수 있는 화려한 동굴을 지나니 멀리 동쪽가장자리를 이루며 뻗어간 산줄기가 보이였다. 대동강전너에 있는 그 땅이 강동이다. 평양의 중심부를 흐르는 대동강을 축으로 하여 남쪽은 강남이요 서쪽은 강서요 동쪽은 강동이라는 지명이 붙어있다. 눈앞에 보이는 거뒸한 산줄기가 수도의 동쪽경계선을 이루는 산줄기인데 그 험한 산밭에서 뻗어나와 우뚝 솟아있는 푸른 봉우리가 바로 봉화산이다. 거기에 봉화혁명사적지가 있다. 뺨스는 인차 갑문다리를 지나왔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나지막한 고개를 넘어서니 사적지로 들어가는 갈림길이 나졌다.

야산마다 과일나무가 숲을 이루고 씨리카트로 지은 아담한 살림집들이 끝안마다 준비하게 일떠서서 지나가는 행인들조차 부러워할만한 마을이였다. 하지만 해방전에는 마을의 구장이나 몇 안되는 유지들이 사는 집을 제외하고는 숨막힐듯 처마낮은 오막살이들만이 떠엄떠엄 널려있던 가난한 마을이였다고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조선국민회는 전체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참다운 문명국가를 세울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로서 3.1인민봉기를 전후한 시기 조선의 애국자들이 무은 국내외의 조직들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큰 반일지하혁명조직의 하나였다.》

불요불굴의 반일투사이시며 열렬한 애국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온 나라에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시기 바로 이곳에 와계시면서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반일애국의 씨앗을 심어주시였으며

반일지하혁명조직인 조선국민회의 결성과 그 확대발전을 위한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조직을 결성하신지 80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사적지를 찾아왔다고 생각하니 마음은 더욱 뜨거워왔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만경대 순화학교에서 교편을 잡고계시다가 이곳으로 투쟁무대를 옮기신것은 1916년 봄부터 1917년 가을까지의 기간이였다. 당시로 말하면 로씨야에서 10월혁명이 일어나고 한편으로는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재분할을 위해 벌려놓은 세계대전의 불길속에 온 유럽이 말려들어가던 시기였다. 강도 일제는 복잡다단한 세계정세의 흐름속에서 아시아와 나아가서 세계의 군주가 되여보려는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고있었다. 이 땅에는 어둠만이 짙어갔다. 려명은 언제 터올려는가?

이러한 때에 김형직선생님께서 투쟁의 새 전성기를 안아오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봉화리로 오신것이였다. 이고장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때 여기를 강동군 고읍면 내동부락이라고 하였다. 내동부락을 하배미라고 했고 그와 이웃한 마을들을 중배미, 상배미라고 했다는것을 보면 세 마을이 있다고 하여 동삼리라고 부른것 같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이곳을 한동안 투쟁무대로 정하시교 강동일대는 물론이고 평양장안과 황해도, 평안도 일대를 비롯한 전국각지를 쉬임없이 오가시며 장차 내오게 될 조선국민회의 핵심성원들도 키우시고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어 계몽활동도 활발히 벌리시였다. 력사의 땅 봉화혁명사적지는 오늘도 김형직선생님께서 그날에 남기신 자욱을 전하고있는것이였다.

나는 총 여섯개 호실로 되어있는 봉화혁명사적관에 들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자료에 대한 강의를 들은 다음 야외에 있는 참관대상들을 찾았다. 나는 명신학교에 들리기전에 그앞에 정중히 모신 선생님의 동상을 찾았다. 동상은 한손으로 교락을 짚으시고 교단에 서시어 학생들에게 애국의 넋을 심어주시는 젊으신 선생님의 모습을 형상하였다. 열렬한 혁명투사이시면서 열렬한 교육자이시기도 하신 김형직선생님이시였다.

선생님께서서는 생애의 전기간 후대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선생님께서는 교육사업은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봉화리에 와계시는 기간 지하혁명조직을 결성하기 위한 준비사업으로 바쁘신 나날을

보내실 때에도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일대의 여러 학교에 나가시어 후대교육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여주시었다.

김형직선생님의 후대교육에 바치신 로고는 봉화리의 명신학교에도 뜨겁게 깃들여있다. 봉화산 줄기에서 뻗어내린 나지막한 산기슭에 명신학교가 자리잡고있었다. 당시치고는 작지 않았을 7자형의 통방으로 되어있는 집이었다. 선생님께서 붓을 달리시어 손수 쓰신 명신학교(明新學校)라는 간판이 제일먼저 눈길을 끌었다.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그리시며 선생님께서 뜻이 깊은 한자한자를 힘있게 내리쓰시었을것이다.

방금 김형직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이끄시고 운동장으로 나가신듯 문을 활짝 열어놓은 방안에는 정숙이 깃들었다. 《지원》이라고 쓰신 족자가 벽에 걸려있고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던 교탁이며 흑판 그리고 종이 그대로 보관되어있었다.

원래 선생님께서 오시기전에 이 집은 서당으로 쓰던 건물이었었는데 훈장이란 사람이 다른데로 가버리는 바람에 주인없는 건물로 볼품없이 남아가고있었다. 그러던것을 김형직선생님께서 봉화리에 오시어 손수 일손을 잡으시고 기울어진 기둥도 바로잡으시고 흠이 떨어져나간 바람벽도 깨곳이 손질해놓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명신학교라는 새 간판도 걸어놓으시었다. 개교식날은 마을의 명절이었다. 땡땡! 하배미마을이며 린근 마을의 아이들을 학교로 부르는 개교식의 종소리가 멀리로 울려갔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어느날 력사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우리가 왜 일본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겼는가.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약했기때문이다.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자면 2천만겨레가 한데 뭉쳐 일본놈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

학생들은 장래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는 성전에서도 기둥이 되어야 한다...》

선생님께서는 외래침략자들과의 싸움에서 용감했던 우리 나라의 애국명장들에 대한 이야기며 이등박문을 쓰아놓힌 안중근렬사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시면서 학생들이 장차 왜놈들을 미워하고 나라찾는 싸움에 나서도록 이끄시었다.

그때 김형직선생님께서 명신학교뒤에 붙어있는 안채에 류숙하고계시었다. 그이께서 그 집에서 매일같이 찾아오는 동지들을 만나주시였으며 자주 비밀회합도 가지시었다. 그무렵에 강반석녀사께서 사랑하는 아드님과 함께 봉화리로 오시었다. 그리고 후에는 만경대의 조부모님들을 비롯한 일가분들이 그 집을 다녀가셨다고 한다.

그러니 봉화리의 이 수수한 집은 혁명일가의 뜨거운 체취가 모두 어려있는 집이었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아드님과 함께 오신후 한동안 이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김형직선생님의 혁명

활동을 뒤받침해주시였고 가난한 이웃들과 따뜻이 지내시었다. 지금도 허청간에는 녀사께서 그 시기에 사용하신 베틀이며 물레, 절구 등 산림도구들이 보관되어있어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로동의 손때에 다스려진 산림도구들을 보느라만 만경대혁명일가의 근면한 가풍을 그대로 이어받으시고 굵은 일 마른 일 가리지 않으신 강반석녀사의 수고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는것이였다. 맑은 물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터에도 혁명가정을 위하시고 이웃들을 위하신 강반석녀사의 정성이 그대로 어려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두번째로 계시던 집은 명신학교에서 가까운 맞은편 산기슭에 있다. 해방전 이 나라 농촌 어디에서나 볼수 있었을 자그마하고 수수한 농가였다. 선생님께서는 1917년 2월 조선국민회결성을 위한 예비회의를 이집에서 여시었다.

선생님께서는 이 집에 제실 때에도 때없이 동지들을 찾아 떠나셨다가 때없이 돌아오시곤했다고한다. 선생님의 정력적인 노력에 의하여 1917년 3월 23일 평양 학당골에서는 조선국민회결성을 위한 회의가 극비밀리에 진행되였다. 선생님께서는 반일지하조직의 탄생을 선포하시고 돌아오시어 조직을 전국각지로 확대해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걸으시는 한편 《학교계》며 《비석계》, 《향토계》와 같은 합법적인 계조직들을 도처에 무으시는 방법으로 국민회조직들을 철저히 위장하시였다. 회원들은 계조직에 망라되어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반일투사로 자라났다. 선생님께서 그때 《비석계》를 무으시면서 쓰셨다는 비문이 생각났다.

불망비문

...여름날에 땀을 흘리면서 호미와 낫을 벗으로 삼고 전원에서 잡초와 씨름하는 농민들과 망망대해에서 풍파가 한번 일어나면 고기의 배속에 장사지낼줄 알면서도 한척의 쪽배에 의지하여 고기떼를 탐색하는 어민들과 총알절벽에서 한발울 비뚫하면 승냥이의 밥이 될줄을 뻔히 알면서도 약초캐기와 벌목에 종사하는 그네들도 수고와 위험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생명의 위험을 조금도 주저치 않으니 그들의 요구가 과연 무엇인가. 나라를 위해서 영원불후하는 생명을 요구함이라도.

1917년 5월

김형직 씀

가슴이 뜨거워진다. 몸소 남기신 하나의 글에도 수난당하는 조국과 인민의 불행을 헤아리시고 나라 찾는 싸움에 한목숨 바치시려는 선생님의 애국충정이, 굴할줄 모르는 기개가 어려있는것이 아닌가.

나는 송림속으로 난 길을 따라 봉화산으로 올라갔다. 봉화산에 오르면 주변 어디에나 볼수 있

다.

현대적통신수단이 없었던 옛날에는 곳곳의 높은 산봉우리마다에 봉화를 올려 나라에 외적이 쳐들어왔음을 알리었는데 이 봉화산이란 이름도 그래서 생겨난것이었다.

무성하게 자라오른 송림속으로 한참 올라가면 김형직선생님께서 동지들과 함께 비밀회합을 가지시던 바위터가 있다. 선생님께서는 이 바위터에서 1917년 6월 조선국민회조직 책임자들의 비밀모임을 가지시고 갓 결성된 조직을 전국각지로 넓혀나가기 위한 방도를 밝혀주시었다.

나는 뜨거운 생각에 잠겨 산아래로 펼쳐진 대지를 둘러보았다. 산기슭을 따라 들어앉은 아담한 주택지구들, 마을앞으로 뻗어간 넓은 도로로 달리는 자동차들, 그너머 수정천쪽으로 오가는 트랙터들... 가난에 쪼들리던 옛날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세월은 얼마나 멀리 흘러왔는가. 모든것이 현대적으로 변모되었다. 오늘은 붉은기정신,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전진하는 조국의 역센 기상이 봄과 함께 약동하고 있다.

하지만 김형직선생님께서 지니셨던 애국의 넋은 이고장 사람들의 가슴가슴을 오늘도 뜨겁게 불태워주고있다. 나는 언젠가 단군릉을 취재갔다가 그 주변에 사는 한 로인을 만났던 일이 생각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에 배달민족의 원시조묘를 개건하도록 해주시여 대박산마루에 단군릉이 웅장하게 솟아나고 반만년 민족사를 온 세상에 자랑하게 되었는데 이고장 역사의 오랜 체현자인 로인은 김형직선생님께서 단군묘를 찾아주셨던 이야기를 하는것이였다. 그것은 이고장 사람들속에 대를 두고 전해내려오는 이야기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봉화리에 계시는 기간 단군묘분향식장을 찾으시고 동지들에게 단군은 조선을 처음으로 세운 시조왕이고 이 묘는 우리나라 반만년력사의 증견자, 귀중한 역사유산이라고 하시면서 단군릉에서 향불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잊

지 않도록 하며 침략자 일제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때로 말하면 일제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말살하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던 시기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1917년

봄에 다시금 단군묘를 찾으시고 일제의 마수로부터 단군묘를 지켜내기 위해 단군수호회를 못도록 해주시었다. 선생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조직된 단군수호회는 일본의 역사보다 1700년이나 앞선 단군조선의 역사를 말살하려는 왜놈들의 책동에 맞서 싸우면서 해방전의 그날까지 단군묘를 수호했다고 한다. 김형직선생님의 애국의 넋이 어려있는 단군릉도 여기 봉화산에서는 지척에 보인다.

봉화리에서 반일민족해방의 새 전기를 마련해 가시던 김형직선생님께서 1917년 가을 일제의 특무인 이 마을 구장놈의 밀고에 의하여 수업도중 일제경찰에 체포되시었다.

나는 맥전나루터를 찾았다.

유유히 흘러흐르는 이 나라의 어머니강 대동강, 그 기슭의 안침진곳에 맥전나루터가 있다. 지금은 그우로 맥전다리가 지나가고 거기서 또 200메터가량 올라가면 현대적인 봉화갑문이 일떠서 운치를 한껏 돋구고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동지들을 찾아 전국각처로 떠나가실 때 건느시였던 나루터, 강반석어머님께 서 어리신 아드님과 함께 봉화리로 오실 때 처음으로 내리시였던 잊지 못할 맥전나루터! 김형직선생님께서 일제경찰놈들에게 체포되어가시면서 바로 이 나루터에서 슬픔에 목매여 따라선 봉화리의 정든 사람들과 마지막으로 헤어지시었다. 나루터에는 그날에 선생님께서 오르셨던 자그마한 매생이가 그대로 보존되어있어 사람들의 눈굽을 뜨겁게 적셔주고있다.

나는 대동강의 용용한 흐름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생각에 잠기였다. 이 땅 어디에나 스며있는 선렬들의 거룩한 애국의 넋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당의 령도따라 온갖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 헤치며 힘차게 전진하는 내 나라의 오늘과 보다 룡성번영할 래일에 대하여.

내 마음의 푸른 소나무

리영철

오늘의 이 시련앞에서
뚫고 헤쳐야 할 만난앞에서
나는 한그루
푸른 소나무를 안고서 산다

래일을 위해 살라는
당의 뜨거운 그 부름앞에서
나는 언제나
푸른 소나무를 안고서 산다

겨우내 흰눈을 무겁게 이고도
푸른 빛 진함없는 아지들
폭풍이 몰아칠 때면
내 마음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억세게 서있는 푸른 소나무...

억세인 그 가지
언제나 내 가슴에 푸르려
내 삶은 푸르다
혁명의 첫 새벽길에 남기신
김형직선생님 그 넋
《지원》의 그 뜻이 오늘도 푸르려

이 몸이 얼어터지고
생눈을 삼키며 가는 행군길에 서도
내 신념 얼지 않게
내 마음 흔들리지 않게
세대를 넘어 내 마음에 뿌리내린
남산의 푸른 소나무

푸르려 설레여 마음속에 설레여
푸른 잎, 아픔을 다시금 그러안으면
산갈은 무게로 실리어오는
두자루의 권총!
선생님 유산으로 남기신 3대각오!

아, 김형직선생님처럼
조국 위해 한몸 바칠 결사의 각오가 없이는
미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혁명의 먼길을 갈수 없다고
그 길에서 품은 뜻 버리지 말고
곧바로 가라고 곳곳이 가라고
푸르려 설레는 내 마음의 소나무

그 소나무 설레임소리를 들으며
나는 간다
내 오늘 《고난의 행군》길에서
쓰러지지 않고 억세게 걸음은
마음속에 네가 설레임이 아니냐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그 인생관도
너처럼 푸르게 변함없이 살고싶은 그것이 아니냐

영원히 푸르려
나의 넋, 나의 신념이여
그 어떤 폭풍도 너를 꺾지 못하리
그 어떤 시련도 너를 얼कु지 못하리
마음속에 너를 안고 가는 길에서
나는 맞이하리라
아, 불타는 노을! 승리의 그 아침을...

려명의 종소리

김석천

비운이 드리운 나라에
해방의 불을 켜자고
열혈청년투사들이 모여들었다
평양 학당골 크지 않은 집에

암제의 발밑에 짓눌려 신음하는

삼천리 우리 강토우에
일떠설 힘을 깨우쳐
조선국민회 결성을 엄숙히 선언하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

혼자서는 나라의 기둥을 세우지 못한다

오직 뭉친 힘만이
민족의 일치단결만이
빼앗긴 나라도 찾을수 있음을
겨레의 가슴속에 새겨준 선언이여

크지 않은 그 집에서
길지 않은 말쑥으로
선생님은 깨우쳐주셨나니
하나의 중심에 뭉쳐 일떠선
겨레의 힘이 얼마나 무궁한가를
그 힘이 어떤 세계를 창조하는가를

오, 1917년 3월 23일

그날에 모인 국민회 회원들은
몇사람만이 아니었다
그날 조선국민회 회의장앞에는
려명의 종소리에 잠을 깬
온 겨레가 독립만세를 부르며 일떠섰나니

태평양과 대서양의 무한한 물이
산곡간의 적은 물이 회합함이듯이
그날의 선생님 념원
선생님의 숭고한 뜻이 그대로 꽃피난
오늘의 일치단결의 대하우에서
려명의 그 종소리는 더 크게 울리고있어라

유산

박창화

찬이슬에 젖신감발 얼마나 젖었던가
숫눈길에 젖신감발 얼마나 얼었던가
김형직선생님 한평생 헤쳐가신
준엄한 력사의 그 새벽길에

걸음마다 위험의 고비를 넘겨야 했고
자욱마다 사선의 언덕을 넘어야 했고
했어도 금싸라기를 찾아내듯
동지들을 찾아내며 걸으신 그 길!

혈서로 맹세한 조선국민회
그 뿌리 눈서리에 묻힐세라 안아키우시며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노를 역세게 저으시였어라

3천리와 이역땅을 다 걸으신 선생님
선생님의 가슴속엔 끓고있었노라
얼어죽고 맞아죽고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이 길을 끝까지 걸으실 3대각오가!

그 결사의 각오로 심장 불타셨기에
선생님의 《지원》의 사상
총칼도 없앨수 없었고
철쇄도 묶을수 없었나니

바로 그 3대각오를
선생님은 유산으로 남겨 놓으셨어라
바로 그 3대각오를
수령님은 유산으로 넘겨받으셨어라

진정 철창과 단두대에서도
웃음으로 혁명가의 지조를 지키게 한 그 각오
그것 없이 우리 어떻게
오늘의 《고난의 행군》길 걸을수 있으랴

선생님 남기신 그 각오가 있어
열백번 《고난의 행군》을 한대도
사회주의에 대한 우리 신념 드림없노라
배심 든든하고 걸음 더욱 역세여라

아, 선생님 안겨주신 3대각오를
혁명투쟁의 좌우명으로 삼은
우리 인민을 당할자 세상에 없고
우리 병사와 맞설자 세상에 없거늘

혁명가의 3대각오는
대를 이어 물려줄 조선의 영원한 유산이여라
그것이 천만톤의 쌀보다 더 귀중하고
그것이 천만자루의 총보다 더 위력하여!

추억과 소묘

박윤

추억은 제 나름의 색조와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밝고 따뜻한 것, 애뜻하고 서글픈 것, 어둡고 우울한 것, 사색적인 것, 고통스러운 것...

나는 문득 멈춰서서 지나온 인생행로를 뒤돌아볼 때 매 구간마다에서 그것들을 발견한다. 영예와 위훈, 고뇌도 있고 피로움과 아픔도 있다.

그 추억들에는 언제나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의 초상이 함께 있군한다.

추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며 어디에서 끝나는 것일까?

나는 그것을 알 수 없다. 우리 생활에서는 전혀 뜻하지 않은 순간에 추억의 문을 여는 때도 있기 때문이다...

전승기념일을 맞으며 우리 군부대에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기념관을 참관하기로 계획하였다.

밤늦게까지 군부대청사에서 일정계획을 토론한 후 나는 다음날 새벽 행사조직을 위해 전승기념탑에 먼저 갔다.

내가 우리 부서의 젊은 소좌와 함께 전승기념탑에 도착한 것은 아직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새벽이었다. 멀리 푸릿한 려명이 비친 개성문 상공에는 차츰 불그레한 노을이 물들어오고 있었다.

전승탑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우고 군상들앞에 다가간 나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탑 주변은 누군가의 알뜰한 손길이 방금 미친 듯 물흘려간 자리처럼 깨끗하였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보위색작업복 옷주머니에 색깔은 계산책을 쏜 한 녀인이 바깥쪽과 물걸레를 들고 《승리상》모서리를 돌아서다가 나를 보고 주춤거리는 것이었다.

그 녀자를 보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 낮이 익어 보였다. 녀인은 내가 찬찬히 눈여겨보는 게 점직한지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 딛고섰던 계단을 내려섰다.

(어디서 보았을가? 어디서?... 저 걸음걸이, 눈빛...)

관리반으로 먼저 갔던 소좌가 나에게로 다가왔다. 관꼴이 두드러진 젊은 소좌는 나의 눈길을 따라 계단쪽을 바라보더니 얼굴에 웃음을 띄웠다.

《관리반에서 그러는데 저 녀인은 이 주변에 사는 김송이라는 건축가랍니다. 매일 새벽이면 이 전승기념탑에 나오군한다더군요.》

《김송이?... 훌륭한 녀성이구만... 그런데 어딘

지 낮이 익은 것 같소...》

나는 다시 계단쪽을 돌아보며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참, 대좌동지네가 룡라다리를 세울 때 만났겠지요. 저 녀인도 그때 설계에 참가했다더군요...》

《아, 생각나오, 생각나...》

나의 의문은 비로소 풀린 듯싶었다. 저 녀인을 본 것은 다리건설이 시작될 때와 준공식 전날밤이었다. 첫인상은 별로 기억에 남는 것이 없었다.

많은 건설지휘일군들속에서 유독 젊은 녀성이 끼여있었다는 것으로 하여 첫날 참모회의에서 이채를 띠었을 뿐이었다. 건설기간엔 그 녀자를 눈여겨보지 못했었다.

그 다음은... 준공식 전날밤, 나는 분망한 행사준비에 뒤이어 인적이 뜸해지자 우리 부대가 축성한 교각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려고 립시사무실을 나섰었다. 강기슭으로 내려서자 나는 소연한 물소리를 들었다. 나는 강기슭에 서서 탑처럼 높이 솟은 미끈한 교각을 올려다보았다. 가슴이 뭉클했다. 마치 안해가 첫아들을 가슴에 안겨주었을 때처럼 심장이 흥벽을 두드렸다. 우리는 교각에 성실한 땀만이 아니라 량심을 물었던 것이었다. ...

어디선가 인기척이 났다. 나는 주위를 살폈다. 그러다가 나는 교각밑을 부둥켜안고 서있는 한사람을 보았다. 나는 가슴이 섬찝했다. 성급히 그쪽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그사람이 돌아서는 것이었다. 녀성이었다. 나를 보고 당황해하는 그 얼굴에는 눈물자리가 있었다. 서늘한 바람이 그 녀자의 눈물을 날려갔던 것이다.

《...?》

나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 주춤거리다가 그를 마주보았다.

녀인은 황급히 팔소매로 눈물자리를 닦았다.

녀인은 얼굴에 인차 어설픈 웃음을 담으며 교각에서 물러섰다. 바로 그 녀자였다. 건축일군들속의 유일한 녀성이었던 그 녀자였다. 나는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이 교각을 동무가 설계했소?》

《네.》

녀인은 목소리를 낮추며 점직한 듯 억지로 미소를 지어보였다. 보조개가 약간 패일 듯말 듯한 얼굴모습이 어쩐지 별안간 낮익어보였다. 녀인은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더니 강기슭을 따라 총총히 사라져버렸다. ...

(그때 교각밑에서 우연히 만났기 때문에 낮익은

것일까?... 아니, 그날도 어쩐지 저 너인의 인상은 나에게 무엇인가 범상치 않은 추억의 문어구를 가리키지 않았던가?... 내 기억력이 이렇게 나빠졌는가?...)

나는 생각에 잠겨 전승기념탑의 화강암바닥을 서둘러 질러가는 너인의 뒤모습을 이윽도록 살펴 보았다.

탑입구를 지나 꽃뭉음을 한아름 안은 처녀애가 뛰어오고있었다. 문득 처녀애가 너인앞에 멈춰 섰다. 처녀애와 너인은 몇마디 말을 주고받았다.

그러자 그애가 열쇠를 너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너성의 딸인것 같았다.

처녀애는 계단을 짚고 올라왔다. 그애의 얼굴은 안고있는 들국화꽃송이처럼 싱싱하고 귀여웠다.

처녀애가 내앞을 지나는 순간 나는 무심히 그 얼굴을 여겨보았다.

해맑은 가름한 얼굴분곽, 상큼한 목, 발그레한 뺨의 보조개, 총총한 눈... 나는 문득 가슴이 쿵 뛰는것을 느꼈다. ... 그것은 40여년전에 내가 본 한 소녀의 잊을수 없는 초상을 안아왔던것이다.

...철길쪽, ...들꽃, ...야전병원... 그리고 송이라고 부르는 처녀애...

나의 눈앞에는 건축가녀인의 초상과 처녀애의 인상이 한데 어울려 그것들이 하나의 생생한 화폭으로 펼쳐진다.

그러자 추억은 기억도 없이 내 심장의 문을 소리없이 열어준다.

(그때... 나는 려형진습격조장과 함께 사단의 포위작전이 진행될 적구에 들어갔었지. 놈들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철교를 폭파할데 대한 전투임무를 맡고서... 려형진, 그는 말이 없고 신중한 사람이였다.

사단의 공격전투와 함께 늘 선발대로 적군용렬차습격과 교량폭파에 참가한 공병분대장이였었다.)

밤, 어둠, 보슬비가 내리고있었다. 전선구역에는 음산한 하늘을 찌는 탐조등불빛과 산발적인 포성이 지나가면 숨막힐듯한 정적이 깃들곤했다.

우리는 적들이 방어축성물을 형성하면서 급히 매설한 지뢰원과 공병차단물을 극복한후 미체침략군 1제대의 참호구역을 에돌았다. 제2참호구역을 벗어나 지정된 통로인 미기갑부대 보급창옆을 지날때 나는 부주의로 그만 철조망에 설치된 인발선을 발로 걷어찼다. 순간적인 폭음과 함께 가까이 있던 미체침략군 병영에서 소요가 일어났다. 우리는 놈들의 검질긴 추격을 받게 되었다. 려형진은 불리한 정황속에서도 침착하게 행동하였다. 그는 나를 이끌고 골짜기를 따라 한참 달리다가 산릉선쪽으로 솟은 벼랑을 극복할것을 명령했다. 만약 벼랑중턱에서 부득이한 일로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추격에서 쉽게

벗어날수 있었을것이였다.

나는 지체없이 벼랑턱에 기여올라 기관단총으로 뒤따라 올라오는 려형진을 엄호하였다. 놈들은 골짜기 가까이의 관목숲까지 접근하여 자동총사격을 퍼부었다. 려형진은 폭약배낭을 등에 지고 벼랑에 붙었다. 가파로운 벼랑을 얼마쯤 톱았을 때 려형진은 주춤 돌부리를 잡은 손길을 멈추고 밑을 내려다보는것이였다. 그의 군복설에서 무엇인지 땅에 떨어진 모양이였다.

나는 관목숲을 빠져나와 벼랑을 포위하려는 놈들을 향해 기관단총을 휘둘렀다. 창황중에 려형진을 살펴보니 그는 다시 땅바닥에 내려가있었다.

(제길, 뭐가 떨어졌길래?...)

나는 엄호하면서 그에게 가는 바줄을 내려보냈다. 그는 어쩐지 몹시 힘겨워하며 올라오는것이였다. 추격은 계속되였다. 나는 폭파지점 가까이 와서야 그가 부상당했다는것을 알았다. 나는 서둘러 그에게 다가갔다. 옆구리에서 선지피가 흘러 군복자락이 젖어있는것이 비구름사이로 흘러드는 달빛에 드러났다.

《왜 부상당할걸 숨겼습니까?》

나는 응급처치를 하며 그를 불만에 차서 내려다보았다.

《벼랑을 다시 톱을 때... 자, 일없소, 시간이 없어. 날이 밝기전에 가야 하오.》

《그런데 아까는 왜 다시 내려갔습니까? 내가 얼마나 속을 조였는지 압니까?...》

나는 그의 어깨를 부축하고 일어섰다. 총성은 점점 가까이에서 들려왔다.

《...》

려형진은 대답이 없이 숨을 헉헉 몰아쉬며 나의 팔에 의지한채 발을 옮겼다. 우리는 추격을 피하여 산릉선을 내려왔다.

발밑에서 진창이 질벽거렸다.

앞에는 마을이 있었다. 오른쪽으로는 검푸른 강물이 소리없이 흘렀다. 비가 몇자 메마른 바람이 마을앞의 들판을 휘저었다.

우리는 바삐 어둑질은 마을길에 들어섰다. 군화에 달라붙는 진흙이 온몸을 천근으로 잡아당겼다.

앞을 바라보니 작은 초가이영들이 무너질듯이 한열으로 누운 궁색한 벽촌이라는것이 밤눈에도 알려졌다.

우리는 적의 총성을 등뒤로 들으며 좁은 고갈길을 에돌아가 토담이 무너져내린 초가집 근처의 야산쪽으로 향했다. 걸으면서 나는 박녕쿨이 초가이영을 덮은 집주변을 훑어보았다. 토담과 터귀사이를 따라 서있는 추리나무와 감나무 몇그루가 소슬바람에 잎을 떨고있었다.

소란스러운 종소리에 놀란 한 녀인이 문을 비스듬히 열고 밖을 살피는것이였다.

나는 광술불빛의 후광으로 그 너인의 약간 부은듯싶은, 고달파보이는 누렇게 뜬 얼굴을 보았다.

그 너인의 치마자락에 매달린 색날은 몽당치마를 입은 조그마한 소녀애가 눈이 울롱해서 어둡속을 바라보고있었다. 소녀의 눈이 먼저 언덕을 올라오는 우리를 발견한듯싶었다.

상큼한 목, 가름한 얼굴, 뺨의 보조개, 까만 눈… 다음순간 낮선 군복차림을 한 우리를 알아보는 그애 어머니의 눈이 화등잔처럼 커졌다. 나는 너인의 눈에 공포에 질린, 극도의 당황함이 실리는것을 느꼈다. 그 너인은 놀란 소리를 지르며 애를 부여안더니 탕 소리나게 문을 닫아버렸다. 그러자 집안의 불빛이 꺼지고 캄캄한 어둠이 주위를 휩쌌다.

나는 그자리에 우뚝 굳어졌다. 한순간 쓰라린 실망의 감정이 나의 가슴속에 옥 치밀어올랐다. 집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이름할수 없는 울분이 치밀어오름을 느꼈다.

인민군대를 알아보지 못하다니…

그 순간 내 어깨에 의자하고있던 려형진이 손을 뻗쳐 나의 팔을 잡는것이였다.

《춘구동무, 어서 산으로 빠지기로요… 마을사람들이 피해를 볼수 있소.》

《그렇지만… 상처가…》

나는 팔을 뿌리치며 그를 돌아보았다.

려형진의 눈이 어둡속에서 번쩍였다.

《자, 어서!…》

사나운 바람이 추리나무가지들을 스치며 불이 났다. 놈들의 충성이 점점 가까와섰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려형진을 부축한채 초가집 뒤의 언덕으로 불었다.

언덕우는 황폐화된 파수원이였다. 나는 옛 파원에서 반나마 무너져내린 움을 발견하였다. 가카스로 움안에 들어서자 썩은 곰팡내와 물크러진 사과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디선가 둔중한 폭음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뒤따라 자지러진 총소리와 수류탄이 물방으로 터지는 소음이 커져갔다.

(웬 총성일가?)

이윽하여 미제침략군놈들의 어지러운 군화소리가 멀어져갔다.

《어떻게 된 일일가요?》

려형진은 뜨겁게 달아오른 손으로 나의 어깨를 짚었다.

《정거장쪽에 땅크집결처가 있소… 3대대 공병동무들이… 조기고있군, 춘구동무… 사단의 공격시간이 가까와왔소… 날이 밝기전에 철교에… 폭약을 설치해야 하오.》

어둡속에서 려형진의 눈길에 불안스레 번쩍거렸다

《그 몸으로 일없겠습니까?…》

나는 안간힘을 쓰며 일어서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가야 하오…》

무너진 사과움에서 폭파해야 할 철교까지의 거리는 그닥 먼곳이 아니였다. 놈들의 소요가 증증해지자 나는 부상당한 려형진을 이끌고 철교근처에 도착하였다.

밤이여 그런지 놈들의 경계가 삼엄했다.

강 건너편에 설치된 탐조등 불줄기는 철교와 그 주변을 철새없이 훑었고 다리 입구에는 자동총을 든 보초가 서있었다.

나는 려형진을 숲이 무성한 은폐지점에 눕힌후 폭약을 안고 강물에 들어섰다. 놈들의 눈을 피하려면 강물을 따라 교각에 접근해야 했던것이였다.

차거운 강물이 나의 군복과 온몸을 삼시에 적셨다. 나는 물속에 돌을 지질러 선을 늘이며 조심스레 두번째 교각가까이에 이르렀다.

숨가쁜 기다림속에서 탐조등불빛이 대안쪽으로 멀어지자 나는 늘 하던대로 강철갈구리가 달린 바줄을 우로 던졌다. 갈구리는 교각의 턱에 걸렸다.

얼마후 폭약을 지고 미끄러운 교각우에 기여오른 나는 달빛에 번쩍이는 검푸른 강물을 내려다보며 조심스레 폭약위치를 선택했다. 나는 려형진이 일러주던대로 교각이음짚을 따라 선을 뽑은 다음 밑에서 바줄을 풀수 있도록 다리에 붙은 철고리에 바줄을 두줄로 드리우고나서 다시 내려섰다. …

그런데 일은 그다음에 또 있었다.

물속으로 배밀이를 하며 겨우 잠복위치로 돌아왔을 때 려형진은 부상당한 사람같이 앉게 몸을 일으키고 한참동안 달빛에 드러나는 주변지형을 살피더니 머리를 설레설레 흔드는것이였다.

《폭약위치를 바로 정한것 같지 못하오. 너무 덩비다나니 저 철꼭덕에 있는 마을을 보지 못했구만… 몇집 안되지만 폭파때 강둑이 무너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수 있소.》

헉떡곤을 늦추고 축축한 잔디우에 엎디어있던 나는 엉거주춤 몸을 일으켰다.

《조장동지두 참… 이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인차 날이 밝습니다…》

《…》

나는 이 순간 사단의 새로운 작전에서 이 철교 폭파가 가지는 중요성을 생각했다.

우리가 미기갑부대의 포탄상자들을 만제한 군용렬차를 바로 이 철교에서 폭파하는것은 미제침략군을 섬멸하는 사단의 포위작전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있었다.

우리 습격조의 임무는 아군의 공격이 시작되는 경우 놈들의 중요한 퇴각로로 될수 있는 이 철

교를 끊어버리는 것이었다.

전선은 남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시간을 다루고 있었다. 사단과 런대, 대대지휘부들은 달리는 군용차우에서 작전토의를 했고 명령서들을 작성하고 있었다. …

려형진은 말없이 어둠에 묻힌 교각쪽을 주시하더니 움쭉 몸을 일으켰다.

《동무는 지쳤으니… 날 엄호해주오.》

《아니 그뎡으로?…》

나는 성급히 그의 팔을 잡았다. 려형진은 흰이를 드러내며 빙그레 웃는 것이었다.

《일없소. 응급처치를 하고나니 거뜨하구만… 그래도 내가 가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소!》

려형진은 내가 더 어쩔새없이 바줄을 손에 들고 강기슭으로 내려섰다. 이 순간 탐조등이 우리 쪽으로 비쳐왔다. 나는 땅에 엎드려 어둠속으로 사라지는 려형진을 바라보았다. …려형진은 하늘이 푸름푸름 밝아올 무렵에야 잠복위치로 돌아왔다. 상처입은 몸으로 물속을 헤쳐서인지 그의 얼굴은 저르기 창백해보였다.

나는 비칠거리는 그를 불안으며 속으로 아픈 것을 삼켰다. …

적군용렬차가 철교를 통과할 시간은 점점 가까와오고 있었다.

강변에 솟은 높지 않은 절벽우의 수림속에 매복하여 철교쪽을 살피던 나는 려형진 습격조장의 가벼운 신음소리에 얼굴을 돌렸다. 피기가 없이 창백해진 그의 얼굴에는 이따금 심한 경련이 지나가곤 하였다. 그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두손으로 머리맡의 풀을 움켜쥐었다. 풀뿌리가 뽑히며 흙덩이가 땅에 젖은 그의 얼굴에 튀어올랐다. 지난밤 폭파위치를 옮기려고 철교에 갔다온 후 그의 상처는 더 심해졌다. 나의 후회는 때늦은 것이었다.

나는 조심스레 흙부스레기와 함께 땀방울을 군복팔소매로 훔쳐주었다.

《조장동지, 건넌만합니까?》

려형진은 까맣게 타든 입술을 겨우 움직이는 것 같았으나 뜻밖에도 목소리는 저르기 맑고 부드럽게 나왔다.

《일없소. 그런데 폭파선이… 발견되지 않았소?》

《방금 또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우리가 매복한 아래켄에 솟아있는 철교쪽을 다시 살펴보았다.

금강의 한 지류여서 강폭은 그리 넓지 않았으나 촘촘히 늘어선 교각들은 꽤 높았다. 태양은 아직 솟지 않아 푸릿한 미명의 하늘 밑으로 철교의 형체가 거뭇하게 드러나 보이는데 대안의 다리목에 서있는 미제침략군 보초병들의 움츠린 모습이 어슴푸레하게 눈에 안겨온다.

철교너머 우중충한 숲이 무성한 산비탈쪽 하늘은 점차 불그레한 노을에 물들기 시작했다. 노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색조가 진하여 나는 마치도 그것이 전선의 밤마다 하늘을 태우던 붉은 화광처럼 느껴졌다.

(노을두 참, 온통 불길 같은걸!…)

나는 이순간 불노을 타번지던 내 고향 공업지구의 아침을 생각했다.

《시간이 어떻게 됐소?》

문득 려형진이 평온한 어조로 물었다.

《아직 군용렬차가 통과하려면 27분이 남아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숨가쁠 정도로 더디고 지루한 것이었다. 나는 숲기슭으로 기여가 다시 폭파선이 물위에 뜨지 않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상이 없었다.

나는 려형진의 곁으로 다가가 총부력을 틀어잡은 채 철교쪽을 바라보았다.

처음 적구로 들어와서인지 속이 바질바질 타는 게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다.

《새소리가 좋구만…》

문득 려형진은 안절부절 못하는 나의 긴장한 마음을 풀어주려는 듯 여유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7월이라고는 하지만 아침이어서 가벼운 랭기가 돌았다. 배말이 축축하였다.

《참… 우리 고향도시에도 새가 많았소.》 하고 갑자기 려형진은 열에 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우리 동네 아이들이 나무마다 새둥지를 만들어 걸었대요… 언젠가는 나두 그애들을 도와 나무에 기여올라갔다가 가지가 부러지는 통에 떨어진 일이 있소. 허허, 그때 관리원 아바이한테 톡톡히 욕을 먹었지만…》

때에 맞지 않는 려형진의 이야기에 어쩐지 나의 마음은 누긋해졌다. 나는 그의 얼굴을 유심히 뜯어보았다. 하관이 약간 빠른 기쁜 얼굴. 넓은 이마 밑에 부드럽게 반짝이는 그리 크지 않은 눈…

평범한 얼굴이었다. 그 얼굴에 따뜻한 추억과 야릇한 공상의 색조가 비껴 한결 밝아보였다. 새벽이 되면서 상처에 열이 올랐으나 그는 아픔도 잊은 듯했다…

(그때, 적군용렬차를 기다리는 긴장한 순간에 행복했던 시절을 추억하는 려형진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무엇을 생각했는가.

그는 부상당한 몸이었다. 피로워하고있었고 고통스러워하고있었다. 그는 승리해서 고향도시로, 자기의 《꼬마》친구들에게로 돌아가고 싶어했었다.

나는 그것을 그의 눈빛에서, 목소리에서, 움직임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있었다. …

그는 평소에 말이 적은 사람이었다. 내가 그를

처음 본것은 통신중대에 있다가 사단 공병중대로
조동되어오던 첫날이었지. 나는 사단우편차앞에
말뚝처럼 서있는 그를 발견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고 모든 표정이 굳어진듯싶었다. 나는 그
에게 중대부를 물으려고 다가갔었다.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깊고 종잡을수 없는
일종의 격분과 후회와 증오가 티번지는 불같은
눈이었다. 나는 그 눈길에 위압되어 그자리에 서
버렸다. 그가 문득 뭐라고 말했으나 나는 듣지
못했다. 기통차의 발동소리때문이었다. 먼지구름
이 피어올랐다가 우리의 군복에, 군화우에 내려
앉았다.

나는 멀어져가는 기통차를 바라보았다.

《뭘 물었소? 전사동무...》

그의 목소리는 생각외로 퍽 조용하고 침착하였
다.

나는 어쩐지 면구스러워졌다

《난... 공병중대를 찾으려고... 아니, 제 혼자
하겠습니다.》

《가지요.》

그는 편지를 구겨 주머니에 넣더니 씨잉씨잉
앞으로 걸었다.

나는 그의 땀에 얼룩져 허열게 소금버캐가 볼
리운 군복잔등을 바라보며 따라걸었다.

한주일후 나는 소대장에게서 얼마전 그의 애인
이 폭격에 희생됐다는것을 알았다. 녀교원이었던
애인의 죽음과 함께 그의 첫 설계로 지은 인민학
교건물이 무너져버렸다는것을...

그는 말이 적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때, 장
변에 부상당하여 었디어있을 때 그는 말을 많이
했다.

《그런데 그 모든 숲과 흰새들의 무리가 사라져
버렸소. 미국놈들은 새둥지가 달린 공원의 나무
숲을 불태워버렸거든... 그리고 생활도... 소중한
모든것을 짓밟아버렸소... 난 지금 출발의 역두가
생각나오. 그날 상치입은 새를 품에 안은 거리
의 아이들이... 나를 배려주려 나왔댔지. 그들을
데리고 한... 녀선생이 왔었지. 난 그애들에게 약
속했소.

새들이 우짖는 거리와 새 학교를 돌려줄것을
말이요... 친구, 난 그 약속을 지키고야 말겠소.
아이들, 미래와의 약속은 신성한것이니까...》

그의 말은 생각깊게 들렸다. 그다음 우리는 침
묵했다. 군용렬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이제는 그
렇게 숨가쁘지 않았다.

그는 군복섶을 부스럭거리며 뒤지더니 비에 젖
고 흙이 게발린 자그마한 수첩을 꺼내들었다. 그
리고는 연필꽂다리로 무엇인가를 그려넣기 시작
했다.

바로 그것이었다. 지난밤 전선을 돌파할 때 그
가 떨구었던 바로 그 수첩이었던것이다.

나는 머리를 약간 들고 그의 어깨너머로 수첩
장을 들여다보았다. 다리모형들과 수자들 그리고
이름모를 부호들, 선과 점들...

늘 교량폭파조들 책임지고 다니는 공병분대장,
건축가였던 그는 교량폭파를 위해서도 저렇게
늘 무엇인가를 연구하곤했는가?

《그건 뭘니까? 폭약위치가 또 잘못됐습니까?》

나는 웃으며 그에게 물었다.

그는 수첩을 접어 품에 찔러넣었다.

《왜, 또 기여가잘가봐 겁이 나오? 이건... 그저
그려보는거요. 앞날을 위해서...》

《앞날이요?!...》

《다리 모형도들이요. 구상이 사라지기전에 그
려넣어야지.》

려형진의 얼굴에는 얼핏 미소가 비껴 지나갔
다.

나는 땅우에 배를 붙였다. 한참만에 다시 그를
돌아보았다.

《참, 조장동진 어떻게 건축가가 되였는가요?》

려형진은 나를 흘끔 바라보더니 아무 대답도
안했다. 짧은 순간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오랜
시간 같았으나 오랜 시간은 아니었다.

《춘구동무, 저길 좀 보라구!...》

한참만에 려형진의 목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그는 눈짓으로 철교밑을 가리켰다.

《교각사이가 저렇게 좁으니 장마때면 모래와
흙사태가 몽켜 철교가 건디겠소... 큰물이 나면
쉽게 저 강둑을 터뜨릴거요. 내 이제 전쟁이 끝
나면 여기에다 세울 타원형교각우에 떠있는 립체
다리를 설계하겠소. 춘구동문 건설자였다니 함께
본때있게 일해볼수 있을것 같애!...》

여유작작한 려형진의 목소리를 듣는 나의 가슴
은 몽클했다.

《다리를 폭파해야 할 긴장한 시각에 그것을 건
설할 생각을 하다니요.》

《춘구! 이건 파괴가 아니요.》 하고 려형진은
다소 갈린 목소리로 내뱉듯 말했다.

《원수를 치기 위해서 비록 오늘 이 다리를 폭
파하지만 우리는 이곳을 기억해두기요.

승리한 조국땅에 건설의 노래가 울리는 그때
우리 여기다가 더 큰 다리를 건설하지요.》

어쩐지 나에게에는 그의 말이 다소 허황하게 들
렸다. 나는 시계를 들여다보며 또다시 초조해지
는 심정을 달래기 시작했다. 금시 폭파선이 놈들
에게 발견될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생각해보오. 마스기는 쉬워도 다시 건설하기
는 몇배나 더 힘든 법이요. 하지만 우리는 승리
한 래일을 위해서 모든것을 다 바쳐서 놈들을 천
백배로 죽치고 사무친 원한을 복수해야 하오. 승
리한 래일 우리는 놈들이 보란듯이 몇배나 더 웅
장하고 몇배나 더 훌륭하게 건설하여 우리 인민
의 영웅적기개를 다시한번 온 세상에 펼쳐야 하

지 않겠소.

우리 이 다리도 꼭 기억해두지요.》

려형진은 불쑥 내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의 눈에서는 야릇한 불꽃이 튀겨나오는것 같았다.

《동문 아까… 날더러 왜 건축가가 되였는가구 물었지? 집을 짓고… 다리를 세우는건 내가 꿈꾸던 희망이었소. 해방전에 난 반년가량 학교에 다닌 일이 있지… 어머니 겨우 한학기 <월사금>을 장만했소. 하지만 학교에서 내게 차례진 자리는 헌 양철지붕짚으로 비가 주룩주룩 새는 교실밖 복도구석이었소. 그래 난 공책주에 떨어지는 비방울을 손바닥으로 가리우고 벽에 가리워 흑판도 못본채 선생의 설명을 들었소. 배움의 열망은 그리도 컸던지요… 몇달후 학교당국은 교사가 좁다고 <월사금>지불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내쫓았지. 나도 그속에 끼운 한 아이였소. 장마비가 퍼붓는 날이었소. 나는 비속을 뚫고 집으로 달렸소. 허나 더큰 불행이 나를 기다리고있었소. 폭우에 집이 떠내려가고 샅바느질을 해주고 돌아오던 어머니는 다 삭은 외나무다리를 건느다 그만… 이렇게 난 배움의 꿈도, 집도, 어머니도 한순간에 잃었소…》

려형진은 어두운 얼굴로 괴롭게 말끝을 맺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의 심정이 이해되었다.

강물은 해빛에 강철빛으로 번쩍이며 흘러갔다.

우리가 매복해있는 숲과 철교를 사이에 두고 벼랑옆을 따라 오솔길이 나있었다.

길옆으로 나지막한 언덕이 시작되었는데 그 기슭에는 풀송구리가 뒤엉키고 들꽃이 만발하였다.

한창 익기 시작한 산딸기숲을 배경으로 야들이 들한 이슬진 꽃잎들을 하늘거리는 보라빛 산 분꽃이며 달맞이꽃, 하얀 들국화들이 떨기떨기 피어나 향기를 풍기고있었다.

처녀애 하나가 마을쪽 오솔길에서 나타났다.

처녀애는 이따금씩 멈춰서서 하얀 들꽃을 한송이씩 꺾어 가슴에 모아쥐곤하였다. 자세히 보니 우리앞에서 문을 닫아버렸던 집의 바로 그 애 같았다. 그 어떤 운명의 희롱으로 나는 하루사이에 이 처녀애를 두번째 보게 된것이다.

려형진이 움쭉 몸을 일으켰다.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려형진의 눈에는 잔잔한 미소가 어리었다.

그때 처녀애가 문득 마을켄 오솔길쪽으로 돌아섰다. 헌 삼태기와 호미를 들고 치마허리에 중등매끼를 두른 마을녀인들이 지친 얼굴을 하고 강둑으로 내려오고있었다. 강둑옆의 꿩기밭에서 뚝 감자라도 캐려고 나선것이 분명하였다.

나는 그들속에서 수심에 잠긴 고달픈 눈매를 내려간 처녀애의 어머니를 알아보았다. 머리수건을 뚝 내려쓴 중년녀인은 어쩐지 얼굴이 펴 수척해진것 같았다.

처녀애가 뛰어가 어머니웃자락에 매달렸다.

《엄마! 저 산딸기 따줘!》

녀인은 삼태기우에 덧놓았던 호미를 옮겨 손에 들며 처녀애를 데리고 산딸기숲으로 걸어왔다. 풀송구리가 뒤엉켜 우리의 매복장소가 발견되지 않은것이 다행이었다.

《송이야, 자 받거라. 그리구 이 어방에서 어디 가지 말거라.》

녀인의 목소리는 바로 곁에서 들리는것 같았다. 색날은 무명치마자락과 별에 탄 처녀애의 앙상한 종아리가 눈앞에 있었다.

《엄마, 저 철뚝너머에도 산딸기 있어. 따달라!》

《어머닌 바빠! 어서 감자밭이라두 뜯쳐서 저녁 끼니를 얻어야지? 송이야, 배고파두 좀 참어!…

이제 엄마가 인차 와서 올감자 구어줄게. 응? -》

《싫어, 싫어!》

처녀애는 투정을 부렸다. 그들이 자리를 옮기면서 다시 수풀사이로 처녀애의 얼굴이 드러났다.

《애두 참, 엄마 말 듣지?…》

그러자 처녀애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머리를 까닥까닥 했다. 나는 곁에 었던려형진의 눈길에 처녀애를 사랑스럽게 지켜보고있는것을 느꼈다.

너inne들이 벼랑을 에돌아 강둑쪽으로 사라지자 처녀애도 꽃을 꺾으며 반대켄의 마을둔덕너머로 멀어져갔다.

한동안 또다시 숨가쁜 고요가 깃들었다… 나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렬차가 가까와오는것 같소!》

비스듬히 누워있던 려형진이 갑자기 얼굴을 들며 말했다.

나는 벌떡 몸을 일으키고 철교쪽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기적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점점 커졌다. 나는 폭파스위치에 손을 가져갔다.

포탄과 탄약상자들을 만재한 군용렬차가 거칠게 연기를 내뿜으며 산굽인돌이를 돌아섰다.

심장을 조이며 긴장한 몇초가 지나갔다.

불쑥 려형진이 몸을 일으키며 나직이 부르짖는 것이었다.

《춘구동무! 저 애가!…》

뒤미처 나도 처녀애를 보았다. 언덕뒤로 넘어갔던 소녀가 철교옆에 나타났던것이다.

소녀는 꽃뭉음을 가슴에 안고 철교뚝우에 오도카니 서서 다가오는 군용렬차를 바라보고있었다.

나는 가슴이 바위에라도 짓눌린듯 조여드는것을 느꼈다.

그 순간, 자리에서 벌떡 몸을 일으킨 려형진이 내쪽으로 머리를 돌리는것이였다.

《춘구! 철교를… 부탁하오!》

《아니, 조장동지!》

려형진은 책 돌아서더니 숲을 헤치며 그 애가 서있는 철교쪽으로 달려갔다. 어디서 힘이 솟았는지 그는 전혀 부상입은 사람같지 않게 쏜살같이 달렸다.

려형진은 처녀애에게로, 군용렬차는 폭파지점으로 거의 같은 속도로 당도하고있었다. 나는 속이 바질바질 타는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빨리!…

그때 철교건너편 보초막쪽에서 총소리가 울렸다.

숲에서 벗어난 려형진을 놈들이 발견한것이였다.

불사신처럼 달려가던 려형진은 소녀를 몇걸음 앞에 두고 비칠거러기 시작했다.

나는 몸을 벌떡 일으켰다. 그 순간 검은 연기를 뿜으며 군용렬차가 철교에 들어서는데 보이였다.

레루와 교각이 울리는 강철음이 련속적으로 나의 귀를 때렸다.

비칠거러던 려형진이 초인간적인 마지막 힘을 모아 소녀를 덮쳐안고 철꼭밀 도랑창으로 굴러떨어진것은 그 다음 일이었다.

나는 눈앞이 아찔해났다. 다음 순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폭파단추를 눌렀다. 거대한 폭음이 천지를 진감하였다. … 파편들이 려형진과 처녀애가 있는 철길꼭밀으로 날아갔다. 철교가 끊어지는것과 함께 놈들의 보초막도 하늘로 날아났다.

…폭연이 서린 철꼭!

《아저씨, 아저씨! 인민군대아저씨!…》

소녀가 려형진의 몸을 불안고 막 몸부림을 치고있었다.

나는 피가 벌겋게 내배인 려형진의 옷설을 헤집고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간신히 뛰고있었다.

《조장동지, 정신을 차리십시오!》

나는 그의 군복자락을 부여잡고 흔들었다. 이윽하여 려형진이 가까스로 눈을 떴다. 그는 고요한 눈길로 나를 올려다보더니 까맣게 타든 입술을 간신히 움직였다.

《춘구… 철교는… 어떻게?…》

《조장동지, 힘을 내십시오. 우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사단의 공격도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는?…》

《무사합니다.》

려형진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천천히 눈길을 돌려 옆에 앉아있는 소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자기의 가슴우에 흠어져있는 들꽃을 보다가 군복설에서 수첩을 꺼냈다.

《애야… 네게 줄것이… 이것밖에 없구나…》

그의 손길이 흘러내렸다. 려형진의 얼굴에는 고요한 미소가 굳어져 있었다.

나는 군모를 벗어쥐었다. 끊어진 철교에서는 아직도 짙은 연기와 안개가 하늘을 꺼렇게 태우며 피여올라 주위의 모든것을 덮어버리고있었다.

사단의 지원포가 내쏘는 불줄기가 멀리 산너머로 보였다.

강쪽쪽에서 그리고 마을쪽에서 사람들이 달려오고있었다. 폭파소리와 인민군대의 포소리에 떨쳐나선 마을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들속에서 처녀애의 어머니를 보았다.

녀인은 우리를 알아보더니 별안간 떨리는 목소리로 목메이게 부르짖는것이였다.

《군대어른! 인민군대어른들!…》

그것은 가슴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자책과 감사의 웨침이었다. 녀인은 허겁지겁 달려오다가 나무등걸에 걸려 넘어졌다.

나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조장동지, 형진동지! 저 녀인의 통절한 웨침소리를 들습니까!…)

그렇다. 강물은 깊을수록 소리를 내는 법이며 깊은 물은 비록 맑아도 그 밑바닥을 쉽게 채여볼 수 없는것이다.

폭연이 날리는 땅우로 아름다운 들꽃향기가 풍기여왔다.

(그후… 나는 해방된 마을 가까이에 주둔한 사단 야전병원에서 처녀애와 그의 어머니를 보았었다. 그것은 내가 본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였다.

야전병원은 출발을 앞두고있었기때문이였다.

나는 그후의 전투에서 팔에 부상을 입었었다.

떠나기전 송이는 무명보자기에 울망줄만한 울감자들을 삶아가지고 왔었다. 나는 그 감자알들을 삼킬수 없었다. 나의 옆에는 비에 젖고 흙이 게발린, 이제는 붉은 피까지 진하게 배여있는 그 수첩을 손에 든 녀인의 딸 송이가 서있었다.

나는 부상당하지 않은 왼손으로 그 유고를 쓸어보며 녀인에게 려형진과 그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 다리모형들과 건축소묘를 그 녀인이 리해할수 있을듯이…

출발신호가 울렸다. 나의 앞에는 발동을 건 위생차가 서있었다. 남진하는 대오와 함께 사단도, 야전병원도 전진해야 했다.

나는 려형진이 말하던 그 《미래》, 그 《삶》-송이를 바라보았다. 그애의 눈에는 맑은것이 맺혀 파들과들 떨렸다…

위생차는 비물에 패인 달구지길을 따라 남으로 달려갔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손에 들꽃묶음을 안은 조그마한 소녀, 송이가 철꼭에 올라서서 손을 흔들고있었다.

바람에 처녀애의 몽당치마가 나뭇겼다. 몸매

가냘픈 소녀는 한손으로는 러형진의 수첩을 가슴에 꼭 품고 한손에는 들꽃뭉음을 들고 애처로이 흔들다.)

나는 추억에서 깨어나 상념에 잠긴채 전승기념탑 주변을 천천히 거닐었다.

전화의 나날 위훈을 세운 무명전사들이 흘린 선혈처럼 붉은 꽃송이들이 군상들앞에 피어있었다.

나는 《승리상》의 반석밑에 놓여있는 한아름의 들꽃뭉음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 소녀, 어제날의 송이의 딸이 가져다놓은 향기그윽한 꽃다발이었다.

(송이는 결국 자라서 러형진의 뜻을 이어 건축가가 되었구나... 그러니... 그의 죽음은 새 삶을 탄생시키지 않았는가! 그렇다. 그의 꿈은, 리상은 헛되지 않았다!...)

소좌와 함께 나이지숙한 관리원아바이가 나에게로 다가왔다.

나의 물음에 관리원은 눈을 찡프리며 진중한

얼굴빛을 띠었다.

《흔치 않은 녀성이지요. 우리 구역의 많은 건축물들에는 송이건축가의 노력이 깃들어있지요.》

아니, 그 녀자의 노력과 함께 러형진의 꿈이 깃들어있는것이다!

나는 속으로 웨치듯 그 말을 이었다.

그리고 다시금 불타는 아침노을속에 우렁이 솟아있는 무명전사들의 조각상- 《승리상》을 올려다보았다.

청동빛모습들은 햇빛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청동조각상은 나의 기억속에 새겨진 한 보통병사의 생생한 소묘처럼 눈앞에 확대된다.

잊을수 없는 평범한 인상... 기름한 얼굴, 넓은 이마, 그리 크지 않은 눈, 그 눈이 지금 창공높이에 땅에 솟아오른 건축물들을 바라본다.

자기의 꿈과 리상이 꽃피고있는 조국을 바라보고있다!

그는 추억속의 모습만이 아니었다.

그는 오늘도 함께 있는 전우였다.

빨간 저고리

김정

공군중위 김산해의 고향은 그가 소속된 군부대 비행장으로부터 삼백리쯤 떨어진곳에 있는 개암골이라는 산골동네였다. 출격명령을 받고 전장에 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중위는 고도를 낮추어 개암골상공을 미속으로 한바퀴씩 선회하곤하였다. 급류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천산만야의 풍경속에서 그는 사랑하는 고향집을 인차 알아보곤하였다. 그것은 김씨가문사람들이 5대를 두고 살아오는 집이었다.

민비의 시해로 세상이 떠들썩했던 망녕스런 을미년봄에 새색시를 데리고 살길을 찾아 복행길에 올랐던 고조할아버지가 개암골에다 보짐을 풀고 오두막 한채를 지었다. 그 오두막이 바로 개암골사람들이 파주집이라고 부르는 김산해네 집의 조상이었다.

그후 증조할아버지가 두칸짜리 집을 지어 문명개화의 세계로 통하는 쪽대문을 열어놓았다. 대들보를 올린 아담한 남향집이 오두막자리에 새로 태어났을 때 증조할아버지는 이웃들을 청해다가 차조밥에 콩나물국을 대접하였다.

아버지대에는 방을 하나 덧달아 초가삼간을 만들었다. 지금은 그 집에서 어머니와 누이동생 인해가 살고있다.

초가삼간이라지만 중위의 고향집은 추억기의 기창앞에서 하나의 미미한 점, 등껍데기가 셋노란 딱정벌레만큼밖에 보이지 않는다. 고공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지상에 존재하는 온갖 세부들이 모두 무시된다.

그러나 김산해는 그 《딱정벌레》의 등껍데기 밑에 가리워져있는 이러저러한 세부들을 죄다 보고 있었다. 육안으로가 아니라 감각으로 가위다리를 편상시키는 발방아의 모양새와 토방돌의 색조로부터 시작해서 뒤옹박의 주름살과 만물상을 편상시키는 체비둥지의 굴곡은 물론 그 무슨 유산처럼 대들보밑에 대대로 매달려온 첩약봉지의 개수까지도 고스란히 기억속에 떠올리며 가슴을 울렁거리곤하였다.

토담으로 둘러싸인 자그마한 정원에는 박꽃도 있고 넉출당콩도 있고 무궁화나무도 있었다. 먹을것을 가지고 실렁이질을 곧잘 하는 새끼고양이와 복술강아지, 엄지닭의 날개밑에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아장아장 《세계일주》를 하는 병아리때도 있었다.

장마도 가물도 타지 않고 싱싱하게 자라 매번 견실한 열매를 선사해주곤하던 토담가의 피마주는 산해네 집 트랙의 풍경을 또 얼마나 멋드러지

게 부각시켜주었던가. 읍거리에 고급중학교교사가 건설된 그해부터 김산해는 트랙에 피마주를 심었다.

가을이면 열매를 따서 그 속살로 교실 널마루와 책상을 알른알른 윤기나게 닦았다. 중학생인 인해도 그랬다. 피마주포기수는 해마다 늘어났다.

김산해는 2학년말기부터 군대에 나갈 꿈을 꾸었다.

어떤 바람개비같은 친구가 하루는 모모한 군관을 통해 입수한 정통한 소식이라면서 철봉현수를 10번이상 하는 대상이라야 입대자격을 준다는 정보를 퍼뜨려놓았다. 김산해는 그후 인차 마당 한쪽구석에 철봉대와 평행봉대를 세웠다. 그는 현수를 30번이상 하는 기계체조의 대가가 되어 군대에 입대하였다.

입대심사를 할 때 현수동작을 검열한다고 한 소식통의 정보는 물론 아무런 타당성도 없는 데포였다. 하지만 김산해는 그 유쾌한 허풍쟁이친구를 조금도 나무라지 않았다. 철봉과 평행봉의 덕으로 그는 사단에서 첫손가락에 꼽히는 힘장사가 되었다.

김산해의 추억속에는 고향집 사립문밖의 풍경도 그림처럼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앞내가의 웅달샘과 달맞이꽃, 하얀 면사포밑에서 봄마다 수태를 머금고 한들거리던 민들레와 소똥굴레, 100만군사의 대장정을 편상시키는 질서정연한 장사진까지도 고스란히 살아움직이고 있었다.

중위는 고향하늘을 한바퀴씩 선회할 때마다 매번 코노래로 《나리 나리 개나리》 하는 동요곡을 건드려지게 부르곤하였다. 언제인가 개암골의 교홀리개들이 파주집의 처마밑에 와서 고드름을 깨먹으며 부르던 노래였다. 봄은 아직 만리밖에 있는데 아이들은 개나리와 병아리를 노래하고있었다.

그때 그는 저녁식들이 하필이면 왜 이런 날 고드름을 깨물면서 《개나리》노래를 부를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런데 그 동요가 어느때부터인지 김산해의 생활에 뛰어들었다. 추억기조종사의 입에서 《개나리》라니 얼마나 피이하고 파격적인 정서인가.

그러나 김산해는 《개나리》를 연줄로 하여 지상과 끊임없는 대화를 하였으며 또 그 선물의 도움으로 고향의 모든것을 심장속에 용해시키고있었다.

어느날 출격을 앞두고 그의 사설고문이나 다름

이 없는 막역지우 서영도가 이런 훈계를 하였다.

《여보게 친구, 오늘은 고향시찰을 그만두는게 어때? 공과 사를 뒤섞어서야 안되지.》

《알겠네. 그렇거지.》

김산해는 서영도가 제때에 씨가 박힌 조언을 준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때 편대장 박상조가 서영도를 편찬하였다.

《영도동무, 고향을 사랑하는건 조종사의 임무 중에서도 가장 신성하고 숭고한 임무야. 산해동무가 요전날 어떻게 되어 단방에 적기를 쏘떨렸는지 아는가? 그의 날개밑에 고향이 있기 때문이야. 고향이 그에게 힘을 주거든. 그걸 알아야지.》

《편대장동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도 산해와 함께 개암골을 시찰합시다.》

잔걱정이 많기는 하지만 서영도역시 대범한 《하늘사람》이었다.

그날은 편대전체가 김산해를 앞세우고 개암골을 시찰하였다. 그때부터 개암골은 김산해만이 아니라 모든 조종사들의 마음속에 꼭같이 자리잡은 공동의 고향으로 되었다. 편대의 조종사들중에서 출격기지와 전장사이에 고향을 둔 사람은 김산해밖에 없었다.

중위가 고향을 돌아보고 북쪽으로 기수를 돌릴 때마다 이마가 3천평쯤 되는 청진항출신의 마음씨 좋은 편대장은 마이크로 그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곤 하였다.

《3번, 고향은 어떤가? 다 제대로 돼있는가?》

《네, 정상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갈가마귀떼》들이 개암골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의미의 말이었다.

일곱세대에 안되는 개암골의 농가들은 전쟁 이전의 목가적인 풍경을 그대로 보존하고있었다. 아직은 폐허도 없었고 불탄 산도 없었고 폭격에 무너진 집들과 허청칸도 없었다.

첫 출격의 날로부터 아홉달이 흘렀다.

어느날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돌아가던 김산해는 허공에서 개암골을 선회하다가 빨간 《장미》한송이를 발견하였다. 그 《장미》는 그가 무더운 여름밤 미역을 곧잘 감군하던 앞내가 빨래터에서 허공을 향해 열정적으로 손을 흔들어주고있었다.

빨간 《장미》, 빨간 저고리, 오래간만에 보게 되는 빨간옷의 고향녀자!

누구일까? 누가 저렇게 손을 흔들면서 나를 반겨줄까? 혹시 우리 집 말팔량이 인해가 아닐까?

어느해인가 김산해는 땀나무를 해다 판 돈으로 옥양목 다섯자를 끊어온 일이 있다. 그때 어머니는 그 옥양목에 빨간 물감을 들여 인해에게 저고리를 지어주었다. 김산해가 보안간부학교로 떠나던 날 인해는 그 저고리를 입고 역에서 오빠를

바래주었다. 그때부터 빨간 저고리는 중위의 뇌리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는 누이동생의 상징으로 되었다.

그러나 빨간 저고리는 인해한테만 있는 독점물이 아니었다. 그가 빨간 저고리를 입고 다니게 되자 송벽이 강한 옥이와 밤나무집의 삼녀도 빨간저고리를 지어입고 다니었다. 동갑나이를 자랑하는 세송이의 빨간 《장미》가 학교로, 산으로 장거리로 밀려다닐 때는 누가 누구인지 분간할수 없었다.

김산해가 빨래터의 《장미》와 인해를 결부시키면서도 그 주인공을 인해라고 딱 찍어서 단정해버리지 못하는것은 바로 그것, 개암골의 빨간 저고리가 세벌이라는 사정때문이었다.

중위는 지상에서 빨간 저고리를 발견하는 순간 형언할수 없는 감동을 받아안았으나 인차 불안스러운 생각에 잠겼었다. 저 애들이 공중전을 자랑할 때 저렇게 야단스레 손을 흔들면 어찌나 하는 불안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빨래터에서 손을 저어주고있는 저 빨간 저고리의 행동은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어처구니없는것인가.

김산해는 기지에 돌아오자 그날로 인해에게 편지를 썼다.

《...인해야, 사랑하는 내 동생아!

다시 한번 물어보자. 그날 빨래터에서 내 제비를 보고 손을 흔들어준게 누구냐? 너냐? 옥이냐? 삼녀냐?

손을 흔들어주게 되면 물론 기분이야 좋지. 그렇지만 그건 위험한 노릇이야. 만일 그날 너희들이 손을 저어보인 그 비행기가 <B-29>나 <그라밍>이였다라면 어쩔뻔했니. 아마 기관총알이 한삼태기나 떨어졌을게다.

미국놈들은 빨간색을 좋아 안해. 그것들이 우리모두를 빨갱이라고 부른다는거야 너도 알겠지.

하늘에서 제일 잘 보이는 색깔이 바로 하얀 색깔과 빨간 색깔이라는것쯤은 너도 알리라고 본다. 지금이 어느때라고 빨간 저고리를 걸치고 로천에 나와서 더뵈려던단말이나.

미국놈쉬파리들이 아무때든지 날아올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그저 비행기소리만 나면 덮어놓고 움속에 들어가 움쭉 말고있어라. 앞마당 감자움말이다. 그리구 밖으로 나다닐 때는 빨간 저고리대신 검정세라복을 입는게 좋겠다. 그러되 위장은 꼭 하구 다녀야 한다. 지금이 어디뻐를 따고 돌아칠 때냐. 전쟁인데 게사니처럼 목을 빼들고 우쭐렁거릴 필요는 없다.

삼녀하구 옥이한테두 빨간 저고리를 입고 다니면 위험하다고 해라. 빨간 저고리, 빨간 저고리! ... 그게 참 문제거든.》

한주일후 인해는 오빠에게 살뜰한 답장을 보냈다.

그 편지가 얼마나 친근하고 따뜻한 말마디들로
여어졌는지 김산해는 시종 미소를 금치 못하였
다. 그러나 마지막단락에 들어가서는 신경을 곤
두세우고 같은 문장들을 세번, 네번씩이나 곱씹
어 읽었다. 인해가 오빠의 경중에 로골적으로 도
전해나섰기때문이었다.

《오빠

그런데 오빠 언제부터 그런 겁쟁이가 되었
나.

빨간 저고리를 입고 다니는게 뭐가 위험해서
그렇게 벌벌 떠는가말이야.

우리 고향의 보잡이군들은 폭격속에서도 가대
기를 끌고 청천강에다 가교를 놓는데. 이 동생이
뭐 제비와 적기도 가려볼줄 모르는 밥통인줄 알
았어? 이 인해를 뭘루 알아.

까짓것, 기관총알을 한삼태기가 아니라 열삼태
기라두 쏘라고 해. 미국놈의 <B-29>나 썩썩기같
은건 톱파리만큼도 무섭지 않아. 그것들이 못되
게굴면 굴수록 난 보란듯이 빨간 저고리를 더 자
주입고 다닐테야. 그게 조선사람이지 뭐야. 예
협!!

남자번지개같은게 여전하다니까.

인해는 온 마을이 공인하는 말팔량이였다.

그가 남자번지개로 불리우기 시작한것은 김산
해가 열아홉번째 생일을 맞던 날부터였다. 그날
아침 그는 구룡집 앞마당에 있는 대추나무 꼭대
기에 올라가 마을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구룡집이란 왜정말기에 개암골을 등지고 남만주
로 떠나간 집이다. 주인없는 초가는 폐가가 된지
오래지만 대추나무만은 길길이 자라서 해마다
풍작을 뽑내었다.

날짐승들이나 겨우 깃을 붙일수 있는 휘친휘친
한 나무가지를 번디디고 서서 인해는 상수리에
열린 대추알들을 열심히 세고있었다.

《인해야, 너 거기서 뭘하니?》

조반전에 남산에서 강대를 한지게 찍어가지고
돌아오던 김산해는 대추나무밑에서 발길을 떼지
못하고 역중스레 물었다.

《나? 대추 <현물세>를 거두러 왔어. 내가 키운
나무이니 <현물세>는 내가 먹어야지.》

그 말은 옳았다. 그 대추나무의 주인은 인해였
다. 인해는 해마다 대추나무에 거름을 주었다.
그해 초봄에는 진도집 개가 물고다니던 까마귀의
송장까지 물어주었다. 가을이면 작대기로 두드
려서 수확한 대추를 되박으로 되어 일곱집에 골
고루 나누어주었다.

《<현물세>구 뭐구 당장 내려오지 못해! 그러다
가 떨어지면 어찌자구 그래.》

《...》

인해는 오빠를 뺀히 내려다보다가 자기네 학교
력사선생의 코맹맹이소리를 입내내여 《김산해학
생, 김옥균의 갑신정변이 3일천하로 끝난 원인이

무엇인지 대답해보시오.》 하고 말했다. 그리고
는 휘파람을 켜지게 불었다.

그러자 대추나무밑에 모여들었던 처녀총각들은
폭소를 터뜨리었다.

《망종같은것!》

김산해는 말본전도 못찾고 처녀총각들의 곁을
떠났다.

그날아침 밥상앞에 마주앉은 그는 밥그릇에 꽃
혀있는 대추나무아지를 보고 다시한번 경악을 금
치 못하였다.

《이건 뭐가?》

그는 밥상옆에 아님보살을 하고 앉아있는 인해
를 돌아보며 통명스레 물었다.

그러자 인해는 눈을 가볍게 흘기었다.

《뭇진 뭐야. 생일선물이지. 오늘이 오빠 배꼽
떨어진 날이라는것두 몰랐나?》

《!!》

대추나무가지에는 김산해의 나이를 상징하는
열아홉개의 대추알이 다랑다랑 달려있었다. 그날
김산해는 그 열아홉알의 대추알에서 얼마나 감
격하였던가.

풍파사나운 이 전쟁도 참대같은 인해의 성미만
은 허물어내리지 못하였다. 그 전쟁으로 하여 참
대는 오히려 몇곱절 더 푸르싱싱해진것 같았다.

봄물이 올라 살이 포동포동 진 내가의 버들개
지처럼 살들하고 복성스럽기만 하던 누이동생의
말마디들이 언제부터 저렇게 막대기처럼 쫓쫓해
졌던가. 그것은 읍거리의 고급중학교와 녀자중학
교 교사가 폭격에 불타버린 그날 그밤으로 오빠
에게 써보냈다는 성토문같은 그 편지에서부터였
다.

그때부터 인해의 편지는 인간백정들을 고발하
고 저주하는 연단으로 되었다.

김산해는 누이동생의 배짱이 빈 양철통같은 허
세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심지어 불만 달리면
확-하고 폭발하고마는 인해의 화약같은 성미를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다.

그래, 미국비행기가 무서워서 빨간 저고리도
못입고 다니면 그건 인해가 아니고 조선녀자가
아니지. 내 로파심이 지나쳤던것 같애.

김산해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누이
동생을 애써 변호하였다. 그러나 인해에게 보내
는 답장에서는 《그래도 빨간 저고리는 밖에 입고
나오지 말것.》 하고 엄숙한 포고를 하였다. 그
날의 답장은 그제 전부였다. 그대신 그 명령문의
아래에는 웅근 한페지에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
는 특대형주먹을 그리었다. 《오빠가 하라는대로
안했다간 알지?》 하는 위협이었다.

열닷새가 지난후 김산해는 누이동생한테서 한
장의 만화를 받았다. 입술사이로 혀를 삐쭉 내밀
고 눈이 울롱해서 그 무엇인가를 쳐다보는 인해
의 자화상이 그려진 답장이었다. 아무런 주해도

달리지않은 그 자화상에 설명이라는것이 있다면
삐죽 내밀린 혀끝에서부터 줄을 길게 굵고 그우
에 흔들거리는 필체로 아무렇게 써갈진 《흥!》자
뿐이었다.

그쯤되면 그 공방전은 인해가 승리한 공방전으
로 된다.

중위는 백지에 더 큰 주먹을 그려서 보내려다
가 그만두었다. 보냈대야 소용이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었으니까.

김산해는 어째서 자기가 매번 선수를 쓰면서도
종당에 가서는 누이동생한테 양보를 하게 되는
지 그 까닭을 알수 없었다.

며칠후 중위는 출격의 길에서 또다시 빨간 저
고리를 보았다. 그날의 빨간 저고리는 빨래터근
처의 보리밭 한가운데서 중위의 제비가 선회하는
방향을 따라 원무라도 하듯이 잦은 걸음으로 또
아리를 틀어가며 열광적으로 손을 흔들었다. 손
을 좌우로 흔들 때마다 한줄기의 예리한 섬광이
번쩍하고 대공을 찌르곤하였다. 낮날에서 쏟아져
나오는 반사광이었다. 지상에서는 보리가율이 바
야흐로 시작되고있었다.

깃누런 황금의 주단우에서 낫을 들고 원을 그
리며 빙글빙글 돌아가는 인해의 모습은 무대에서
보리가율을 형상하고있는 한떨기의 무희를 연상
시키였다. 태양은 그 무희를 위해 걸려있는 고팡
도 조명등이라고 명명해도 무방하리라.

김산해는 다 익은 보리향기가 금시 기창으로
흘려드는것만 같아서 연방 코를 벌름거리였다.
중위는 그 냄새가 못견디게 그리웠다. 수염이 한
자나 되는 보리이삭을 뺨에 살살 문대며 이삭에
서 풍기는 구수한 난알향기에 취해서 종다리의
노래를 점도록 탐상하던 여름날의 정경들이 구름
처럼 눈앞에 피여올라 화려한 화폭을 펼쳐놓았다.
머리에 뿔국동이를 이고 밭머리로 나오곤하던
어머니의 모습도 눈에 삼삼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화면들에서 그늘음냄새
가 났다. 생활은 비록 불에 타고 포연에 그슬렸
지만 그 생활이 엮어온 지난날의 복많은 로정에
대한 중위의 향수는 너무나도 강렬하고 애잡짤한
것이였다.

김산해의 눈에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원무를 하
며 돌아가는 누이동생이 마치 빨간 날개를 가진
한마리의 불사조처럼 보이였다. 조국이라는 하
나의 거대한 생명체가 빨간 의상을 걸친 불사조로
응축되어 날마다 손을 흔들어 편대의 전공을 축
하해주는것 같았다. 중위는 부지중 자기가 그 날
개에 실려 하늘을 날고있는것 같은 환각에 사로
잡혔었다. 그러자 온몸에서 힘이 융솟음쳤다.

인해야, 장하다! 올해는 너 혼자서 보리가율을
시작했구나. 그래 어땜니? 잘 영글었니? 잘 영
글었으면 이 오빠에게 한이삭 올리든지처럼!

김산해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지상을 향해 빙쉴

웃어보이기까지 했다. 그러는 사이에 개암골은
뒤로 아스라하게 사라져버리였다. 그러나 중위는
멀리서도 누이동생의 말없는 대답을 듣고있었
다.

오빠, 잘 영글었어. 차돌처럼 뽕뽕하게 말이
야.

자, 받아! 보리가율은 넘려마. 올해도 현물세
는 맨 선참으로 바칠테야!

출격의 길에서 빨간 저고리를 보는것은 어느덧
김산해에게 있어서 단 하루도 없어서는 안될 생
활의 한부분으로 되였다. 중위는 인해를 통해 조
국과의 교감을 하였다. 누이동생이 지상에서 손
을 흔들어줄 때면 그 변화무쌍한 손동작을 타고
거대한 심장을 가진 대지의 맥박이 《제비》의 동
체안에까지 흘러들어와 자기의 심장을 기운차게
톡톡 건드려주는것만 같았다.

인해가 보이지 않는 날이면 이상야릇한 적막감
이 중위의 심신을 엄습했다. 그런 날이면 그는
기지에 돌아가서도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젠장, 오늘은 그 말팔랑이같은게 왜 나타나지
않았담!》 하면서 누이동생을 나무라곤하였다. 편
대의 동료들도 《그 남자번지개가 웬일일가?》 하
면서 자못 허전해하였다.

《빨간 저고리, 빨간 저고리, 그게 참 문제거
든!》 하던 김산해의 걱정은 고조할아버지시대의
망건이나 나막신처럼 쓸모없는것으로 되어버리였
다. 빨간 저고리의 존재는 이 전쟁에서 어머니나
누이동생의 세대는 자기네 세대의 보호를 받아
야한다고만 생각해온 김산해의 전쟁에 대한 견해
를 진처럼 뒤흔들어 놓았다.

땅과 하늘이 일심으로 결합된 전쟁, 전선과 후
방이 하나의 교향곡을 연주하는 전쟁,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구별이 따로 없고 전투원과 비전투원
의 한계가 청실홍실의 차이처럼 뚜렷하지 않은
전쟁- 이것이 빨간 저고리로 하여 중위가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 이 전쟁의 참다운 얼굴이였다.

그러나 중위의 안도감은 오래 갈수 없었다. 적
의 폭격기들이 개암골을 만신창으로 만들어놓았
기때문이였다.

그날, 계절조들이 떼를 지어 남행길을 재촉하
던, 그 을씨년스러운 마가울 아침 공군기지에서
는 적의 그라망편대가 개암골상공에 나타나 파도
식폭격을 시작했다는 통보를 받고 김산해네 폭격
기편대를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그러나 편대가
목적지에 당도했을 때 적의 폭격기들은 멀리 서
해바다가쪽으로 황황히 꼬리를 감추고있었다.

박상조편대장은 추격기조종사들에게 저공비행
으로 지상의 피해상황을 료해하라는 명령을 내리
였다.

치명상을 당한 개암골, 태풍직후의 어촌을 방
불케 하는 김산해의 고향, 처참하다는 말만으로
는 도저히 그 피해의 심도를 그려낼수 없는 산촌

의 모습.

청천강에 부설된 가교는 어디로 날아났는가. 강기슭의 계선장들도 풍지박산이 되었다. 죽탕이 된 안주-개천사이의 철길로반, 화산의 분화구를 려상시키는 폭탄구덩이들로 하여 로반은 곰보딱지가 되었다. 은행나무고목밑에 외파로 떨어져있던 선로감시원의 집은 형체조차 찾아볼수 없다. 개암골 막바지의 물방아간도 벌집처럼 되었다.

제일 가슴섬찍한 피해는 개암골의 《딱정벌레》들이 대부분 지상에서 자취를 감춘것이였다. 김산해네 집도 폐허가 되었다. 그리고, 그리고... 하늘이 아끼고 사랑하는 빨간 저고리도 보이지 않았다.

편대장은 기지에 돌아가자 김산해를 위로하였다.

그러나 김산해는 동료들이 자기를 위로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하고 뒤숭숭해하였다. 그는 어머니와 인해의 안부를 알아보려고 편지 세통을 써서 한꺼번에 개암골로 보냈다. 한통은 진도집으로, 한통은 밤나무집으로, 한통은 물방아간집으로. 하지만 그 어느 집에서도 답장은 없었다.

그렇다면 개암골은 무인촌으로 돼버렸단말인가.

혹시 우편차가 박살난게라도 아닌가. 그후부터 중위는 빨간 저고리를 한번도 보지 못하였다. 청천강의 가교도 소생하고 계선장도 다시 일어서고 철도로반의 폭탄구덩이들도 모조리 메꿔졌으나 고향의 빨간새만은 종시 그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김산해는 빨간 저고리의 원무가 없는 고향산촌을 지날 때마다 입술을 깨물면서 천백배의 복수를 다짐하였다.

그런데 한달후 천만뜻밖에도 기적이 일어났다. 군사대호를 가진 인해의 편지가 공군기지에 불쑥 날아들었던것이다.

《오빠, 놀라지 말어.

방금전에 난 군인선서를 했어. 군대가 됐단말이야.

옥이하구 같이 전선을 탄원했는데 한사단이야. 나는 전방봉대소 간호원, 옥이는 사단군의소 간호병, 어때, 멋있지?

우리가 인민군대에 입대한건 삼너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야. 오빠도 봤겠지. 놈들이 개암골을 어떤 물골로 만들어놓았는지, 일곱집밖에 안되는 함치박만한 마을에 폭탄을 열두개나 떨어뜨리고 달아났으니 알만하지 않아. 삼너는 그 폭격에 잘못됐어. 옥이네 식구들도 모두... 글썽 하루동안에 아홉명의 마을사람들이... 생각만해도 끔찍해. 나하구 엄마하구 옥이가 무사한건 그날 현물세달구지를 끌고 면으로 간 덕이야.

오빠, 그 날강도같은것들이 뭘 보고 우리 마을에 달려들었을까. 우리 개암골에 도대체 뭐가 있

나말이야. 병실이 있나 포진지가 있나 군수공장이 있나. 아무것도 없지 않아. 혹시 이 빨간 저고리가 미워서 막 짓몽개놓은게 아닐까. 좋아. 어쨌든 너죽고 나죽고 결판을 내자는거야.

삼너를 잃은게 정말 분해. 얼마나 좋은 애였나.

오빠도 그앨 끔찍이 고와했지. 이붓어머니 슬하에서 자라는 애라구. 생각나나? 우리 셋에게 산에서 따가지고온 개암을 나누어주다가 두알이 남아돌아가게 되자 그걸 몽땅 삼너에게 주던 일이. 그땐 나도 옥이도 삼너를 시샘했어. 철이 없었으니까.

오빠, 이 원수를 갚기전에는 오빠에게도 엄마한테두 편지를 쓰지 않을래. 기다리지 마》

삼너, 삼너가 죽다니... 동실한 얼굴에 불우물을 파며 방글거리던 삼너의 모습이 기창가에 방불하게 어려온다. 심장의 피가 끊어올랐다.

김산해는 편지를 세번이나 곱씹어읽었다. 해지지도 않고 퇴색하지도 않고 망가지지도 않는 빨간저고리, 적들이 죽음을 강요하면 할수록 더 세차게 깃을 치며 대공에 날아올라 천하를 굽어보는 내 고향, 내 집의 귀여운 빨간새, 글줄을 타고 울려오는 삶의 고동소리, 생명의 웨침소리를 듣는 김산해의 행복감은 무아경에 가까웠다.

인해의 편지를 받은 다음부터 중위는 개암골에 대한 저공비행을 중지하였다. 그대신 고공에서 이따금씩 소생하여 가는 향촌의 모습을 부감하였다.

중위는 빨간 저고리의 원무를 보지 못하는 비행에 습관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조국은 전쟁의 마지막해를 맞이하였다.

김산해는 그 몸을 맹랑하게도 야전병원에서 보냈다. 그것은 그가 전혀 바라지도 않던 생활이였다. 조국이 중위의 능란한 비행술과 용감성을 그 어느때보다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을 때 그는 침상에 매인 몸으로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보내고있었다. 적탄에 갈비뼈 하나를 잃은 비행사, 그가 하는 소일거리란 간호원이 하루 두번씩 랑독해주는 최고사령부의 보도를 듣는것뿐이였다.

김산해는 급한 고비를 넘기자 한주일에 한번씩 인해에게 편지를 써보냈다. 어떤 날은 즉흥시까지 지어보냈다. 중위는 누이동생과의 대화를 몹시 고대하였다. 답장도 받지 못하는 편지가 꼬리를 물고 전선으로, 전선으로 날아갔다.

어느날 김산해는 병문안을 온 서영도에게 이런 부탁을 하였다.

《여보게 동갑, 우리 인해한테서 편지가 오거들랑 지급으로 보내주게.》

《암, 그야 물론 그래야지. 그런데 이것보게. 개암골에 빨간 저고리가 다시 나타났네.》

중위는 빨간 저고리라는 말을 듣자 서영도의

손을 덥석 틀어잡았다.

《뭐? 빨간 저고리?! 그게 정말인가?》

《정말이야.》

《언제부터 나타났게?》

《한주일전부터야. 처음엔 편대장이 발견했구 그다음은 내가 발견했어. 우릴 보고 빨간 수건까지 막 흔들어주지 않겠나.》

《그게 누굴가?》

《글쎄, 그게 수수께끼란말이야. 우리도 그것때문에 론쟁을 좀 했네. 자네의 말을 들어보면 세 빨간 저고리중 하나는 죽고 둘은 전선으로 나갔다는데 전방에 간 처녀애들이 수백리밖에 날아와 손을 흔들어줄수야 없지 않아.》

《그게 정말 수수께끼는 수수께끼로구만.》

김산해는 서영도가 돌아간 다음에도 계속 그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고심하였다. 최전선의 인하나 옥이가 고향에 나타난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다. 삼녀는 저세상사람이니 섬에 넣을것도 없었다.

그렇다면 인해도 옥이도 삼녀도 아닌 제4의 빨간 저고리가 개암골에 나타났단말인가. 하기는 내가 고향을 떠난지도 삼년석달이나 되니 그동안 우리 개암골에 무슨 변화인들 없겠는가.

전승의 날을 한달 앞두고 김산해는 야전병원에서 퇴원하였다. 그는 부대에 돌아가자바람으로 공중전에 참가하였다. 그것은 그가 《제4의 빨간 저고리》를 보는 행운의 날이었다.

바로 그날 급강하하는 적기의 공무니에 불벼락을 안기면서 저공으로 내리꽂지던 김산해는 고향마을의 박우물가에서 수수께끼의 그 빨간 저고리와 그 저고리의 머리우에서 기발처럼 나뭇기는 빨간 수건을 보았다.

인해를 대신해서 나타난 빨간 저고리, 어쩌면 인해의 분신같이도 생각되는 빨간 저고리, 인해는 전선으로 갔지만 개암골은 하늘의 매들을 위해 다른 빨간 저고리를 또 내세워주었다. 하늘은 저 빨간 저고리를 통하여 대지의 즙액을 빨아들이고있다. 이것이야말로 조국이 하늘의 매들을 위해 마련한 빨간 저고리의 제주가 아니고 무엇인가.

김산해는 이런 상념을 번개같이 이어가면서 적기를 집요하게 추격하여 바다속에 수장시키었다.

싸움을 끝내고 기지로 돌아갈 때 그는 동료들과 함께 다시한번 개암골을 돌아보았다. 공중전이 끝난지도 이속하건만 미지의 그 빨간 저고리는 수건을 흔들면서 그냥 박우물가를 맴돌고있었다.

고맙다. 빨간 저고리야. 유감스럽게도 나는 아직 너의 이름을 모른다. 그러나 오늘 나는 너의 모습을 보고 큰 힘을 얻었다.

김산해는 기체를 상하로 까딱거리 빨간 저고리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냈다.

이 땅에서 전쟁의 불비가 멎은것은 그때로부터 한달이 지난후였다.

말복을 며칠 앞둔 어느날 김산해는 휴가명령을 받고 고향으로 떠났다. 거리도 광장도 갯구도 향만도 렬차도 나루터도 온통 전승의 열기로 끓어번지는 8월이었다. 고향읍에서 기차를 내린 중위는 우편국에 들러 초소의 인해에게 《조선인민군군사우편함 제00000호 김인해 앞. 승리한 누이동생에게 전승을 축하함. 승리한 오빠로부터.》라는 전보를 친다음 청천강가교로 해서 개암골로 들어갔다. 어떻게 되었을가. 나의 민들레, 나의 웅달샘, 나의 개미, 나의 소똥굴레는...

그러나 중위를 맞이한것은 폐허로 된 개암골이었다.

태풍에 뿌리채 뒤집힌것 같은 고향마을의 서름서름한 정경은 중위의 가슴을 사뭇 아프게 하였다. 평화는 봄아씨처럼 따듯한 미소를 고향산천에 아낌없이 뿌리고있었지만 개암골은 아직도 지난날의 안정과 균형을 되찾지 못하고있었다. 개암골의 옥토를 파먹은 홍물스러운 폭탄구덩이들은 전쟁방화자들이 조국에 강요한 불행과 재난의 깊이를 다시한번 통감하게 하였다.

파주집의 집터자리에서 초가삼간대신 낯설은 오두막이 생기었다. 올미년봄에 고조할아버지가 지었다는 오두막도 저런 집이었으리라.

김산해는 트랙에서 빨간 저고리가 언뜻거리는 것을 보자 걸음을 다그쳤다. 그러니까 그날 박우물결에서 우리를 보고 수건을 흔들어주던 빨간저고리는 인해였다단말인가. 그래, 인해가 틀림없어. 인해가 아니라면 누가 저렇게 우리 집 트랙에서 부루를 숨고있겠는가. 저 말팔랑이같은게 그새 혹시 제대라도 됐나. 집에 왔으면 왔다고 편지라도 해야지. 망할년같이니라우.

빨간 저고리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리를 살룩살룩 절군하였다.

저런, 저애가 부상을 당했군. 그래도 치명상은 아니였던 모양이야. 전방부대소에 배치받았다고했지. 싸움을 많이 한게로군. 장해.

《인해야!》

중위는 사립문밖에서부터 큰소리로 누이동생을 찾았다.

그 소리를 듣고 빨간 저고리가 뒤로 꺾 돌아섰다.

중위는 그만 사립문가에서 화석처럼 굳어졌다.

그의 눈앞에는 인해가 아니라 옥이가 서있었던 것이다. 옥이도 말끄러미 김산해를 바라보기만 하였다. 인해의 곁에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던 소년시절의 새침한 인상과 고집스러운 표정이 일곱 한쪽구석에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오빠!》

처녀의 입에서 가늘게 새어나오는 탄성, 김산

해를 친오빠처럼 허물없이 따르던 처녀의 탄성치고는 너무도 소심하고 연약했다. 그 탄성과 함께 입가에 피어난 미소는 또 얼마나 쓸쓸하고 가냘픈가. 그 어슬픈 미소는 중위를 몹시 어리둥절하게 하였다.

《옥이야, 이게 몇해만이나!》

김산해는 두뼘두뼘 다가가서 옥이를 덥석 그리안았다.

옥이는 갑자기 오두막앞에 풀썩 주저앉아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아이들처럼 엉엉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했다.

중위는 그가 폭력에 희생된 아버지, 어머니와 오빠, 언니 생각이 나서 통곡한다고 생각하였다.

《옥이야, 그놈들이 끝째 너를 혈혈단신으로 만들었구나.》

《아니예요, 아니예요. 그래서 그러는게 아니예요.》

옥이는 꺾꺾 막히는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다가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나 오두막안으로 들어갔다. 잠시후 처녀는 빨간 저고리 한벌을 들고 김산해의 앞으로 주춤주춤 다가왔다.

김산해는 그 저고리를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것 같은 불안을 느끼었다. 비통한 오열 뒤에 옥이가 들고나온 인해의 빨간 저고리,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중위는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다.

《오빠, 인해는... 인해는... 전사했어요!》

휘파람소리같은 흐느낌소리가 옥이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김산해는 두손으로 인해의 빨간 저고리를 와락 부둥켜안고 한참동안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토방돌우에 맥없이 주저앉아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었다. 중위는 한참만에야 마음을 다잡고 옥이에게 물었다.

《언제... 언제 그렇게 됐니?》

《금년 초야요. 하루는 사단군의소에 온몸에 봉대를 감은 인해가 실려오지 않았겠나요. 고지에서 부상병들을 구출하다가 그렇게 됐다지요 뭐. 열일곱명째 부상병을 업어나르다가 포탄파편을 맞고 쓰러졌다는거예요. 인해 사흘만에 잘못됐어요. 그 저고리를 나한테 맡기면서 <난 오빠네 비행기가 지나갈 때마다 이 저고리를 입고 손을 흔들어주곤했어. 오빠네 편대 비행사들은 모두 빨간 저고리만 보면 좋아했다누나.>하질 않겠나요. 그리고는 눈을 감았어요.》

옥이는 초점이 없는 눈으로 먼 남쪽하늘가를 바라보았다.

《그럼 여태 인해가 전사했다는걸 나한테 알리지 않았니?》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자기가 전사했다는걸 오빠한테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니도 오빠한테는 당분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집생각을 하면 대사를 망칠수 있다면서... 어머니도 오늘아침 군다수확농민열성자회의에 참가하려고 읍에 나가셨어요.》

《인해의 유언은 그것밖에 없었니?》

《있었어요. 나더러 전쟁이 끝난 다음 고향에 돌아가면 자기를 대신해서 파주집딸이 돼달라더군요. 난 인해가 전사한 다음 전방봉대소에 탄원해나가 싸우다가 중상을 당했어요.》

김산해는 누이동생의 체취가 그대로 살아있는 빨간 저고리에 얼굴을 파묻고 인해가 일생을 두고 아름답게 엮어온 백화같은 사연들과 일화들을 눈앞에 그려보면서 한참동안 덤덤히 앉아있었다.

인해, 저 들판의 종다리처럼 설새없이 웃고 떠들고 노래부르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던 개암골의 말팔랑이, 하늘의 매들이 지나갈 때마다 손을 흔들어 대지의 인사를 보내던 파주집의 빨간새.

김산해는 인해가 없는 개암골을 한번도 상상해본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중위의 눈앞에는 인해라는 빨간 저고리대신 옥이라는 빨간 저고리가 서있다. 그 옥이가 인해를 대신해서 빨간 수건도 흔들어주었다.

얼마후 중위는 옥이와 함께 어머니마중을 떠났다. 그는 생전에 인해가 빨간 저고리의 원무를 펼치던 벌 한가운데 서서 이마에 손채양을 붙이고 고향의 하늘을 명상에 잠겨 보라보았다. 포연을 말끔히 가시고 옛 모습을 다시 찾은 8월의 청청하늘, 그 하늘의 한조각은 인해의 몫이다. 압, 인해의 몫이라구말구. 인해야, 내 앞으로도 저 하늘을 잘 지키마. 그는 입속말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옥이를 앞세우고 계선장쪽으로 걸어갔다.

5년후 김산해와 옥이는 부부가 되었다.

공군중장 김산해의 집에는 지금도 인해의 빨간 저고리와 옥이의 빨간 저고리가 나란히 걸려있다.

우리 집

-나의 《작가수첩》에서-

최봉무

10년전 이맘때 나는 《우리 집》이라는 제목의 수기를 잡지 《조선문학》에 낸적이 있다.

생활은 그때보다 훨씬 발전했고 수기의 주인공들인 아이들도 몰라보게 성장하였다. 서로 다른 취미와 희망을 가진 4형제가 사람들을 놀래우며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고마운 당과 조국에 영광을 바친 이야기도 하루의 생활이 시작되고 하루의 생활이 간직되는 우리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교육제도는 집단의 위력을 적극 발양시킬뿐아니라 사람들의 소질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며 그러한 싹을 적극 조장시키고 발전시켜나갑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재능과 희망은 어디서나 펼쳐 꽃피는것은 아니다.

다만 은혜로운 태양의 빛발아래서만이 재능의 자그마한 싹도 토양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아지를 치며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것이리라.

내자식 4형제의 재능과 희망도 그 품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만딸의 이야기

보통키에 탐탐한 몸매, 무엇을 노리는듯한 정열적인 눈, 간편하게 단장하여 짧게 드리운 머리는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보통처녀의 모습이다.

벌써 22살, 동그스름한 량면탁구채를 들고 보통강체육구락부를 드나들던 만딸이 벌써 립업부문의 로동계급으로 자라났다. 부당비서동지도 경비원아바이도 만날 때마다 딸이 일을 잘한다고 칭찬한다. 좀 먼구스렵기는 하지만 부모의 심정이며선지 속으로는 은근히 기쁘다.

작년까지만도 나는 직장에 나가서는 육체로동을 하고 집에 와서는 건강이 좋지 못한 어머니를 대신해서 세간살이를 도맡아하며 동생들의 뒤바라지까지 하느라고 《고생》하는 만딸을 보며 가끔 이런 생각을 했다.

(우리 경옥이가 대학을 나왔더라면 나라와 사회앞에 더 의의있는 일을 할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두 동생은 다 대학생이다. 그애들은 집에 들어오면 늘 책만 볼테고 앉아있다. 안해가 만딸에게 부담이 너무 많이 가는것을 보고 작은 애들을

꾸짖을 때면 《어머니, 공부하게 봐두어요. 내가 있잖아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궂은일, 마른일 가리지 않고 일손을 잡았다. 그 모습을 보느라면 어쩐지 마음이 좋지 않았다. 부모에게 끔고미운 자식없으려면 그래도 나는 그애게 정이 더 갔다.

한번은 퇴근길에 안해를 만나 함께 집에 들어서서니 팔손이 넘은 어머니가 눈물이 글썽해서 앉아있었다. 나는 웬일인가싶어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고 물었다.

글쎄 경옥이가 퇴근하자바람으로 일곱이나 되는 식솔의 배급을 타서 딸따리에 싣고 오다가 바퀴가 찌그러지는 통에 발가락을 찍혀 새까맣게 멍이 들었고 그것을 무겁게 지고와서는 옷방에 올라가 자기는 공부를 못하다나니 이런 일만 해야 한다고 토설하며 얼굴을 묻고 울었다는것이다.

그말을 들으니 눈곱이 확 더워올랐다. 꼬장꼬장한 성격인 안해도 눈시울이 불깃해서 말을 못했다.

만딸은 어렸을 때부터 성실하였다. 공부도 잘 하였고 성격도 할머니를 닮아서 팔팔하였다. 고등중학교시절에는 청년동맹위원으로 사업과 생활에서 모범이었고 탁구선수로 이름도 날렸다. 어느해인가 집단체조배경대 중심부의 위대한 수령님 영상위치에서 갑자기 닥치는 아픔을 이겨내며 행사를 보장하고 병원에 실려가 수술을 받은적도 있다. 그 소행이 그때 학생들속에서 얼마나 널리 소개되었던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는 날 나는 깜짝 놀랐다.

로병인 할머니와 짜고든 만딸은 벌써 붉은청년근위대에 탄원했던것이다. 아버지로서는 손에 총을 잡고 조국의 하늘을 지키려는 소중한 그 마음이 더없이 기특했다.

나는 그가 고지에서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지켜 복무의 나날을 보내는 초소에 몇번이나 찾아가보았다. 아침에 흔들여 깨워야 일어나던 《철부지》가, 식사후 설겅이 한번 하지 않던 《응석받이》가 제법이였다. 나는 기뻐다. 거리에서 대학생복을 입고다니는 만딸의 동창생들을 만날 때도 나는 땃땃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국방위원회위원장으로서, 원수로 추대할 때도 딸은 초소에 서있었다. 추대소식을 듣고 내가 제일먼저 찾아가는 곳이었으니 딸의 초소였다.

《아버지, 나는 정말 행운아예요. 조국보위초소

에서 장군님을 추대했으니까요!》

그때 딸이 격동되어 하던 말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나는 그날밤 흥분과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시 《초소의 딸에게》를 썼다. 시는 신문 《로동청년》에 실려 초소에 가닿았고 붉은청년근위대원들을 고무해주었다.

만딸이 붉은청년근위대생활을 마치고 어렵고 힘든곳인 립업부문에 노동자로 배치되어 돌아왔을때 나는 기쁨과 함께 어딘가 모르게 서운한 생각도 없지 않았다. 더 공부를 시키지 못하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마음을 꿰뚫어본 만딸은 오히려 나를 위로했다.

《아버지,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 대학공부를 하겠어요. 나는 그대신 조국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배웠고 또 무엇을 위하여 청춘을 바쳐야 하는가를 알았어요.》

나는 코마루가 쩡하였다. 길지 않는 나날 딸이 이렇게 성장한줄은 미처 몰랐었다.

재작년 가을부터 나는 만딸이 직장에서 돌아오면 밤늦도록 무엇인가 열성적으로 쓰는것을 목격했다. 하루는 책상에 엮드려 굳잠이 든 사이에 그것을 몰래 훑쳐보니 붉은청년근위대시절에 째째이 써놓은 장문의 수기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원고는 자그만치 700매나 되었다.

다음날 알아보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붉은청년근위대원들의 보람찬 생활에 대하여 글로 써서 소개하라고 하셨다는 것이다. 그는 그것을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자기에게 주는 전투임무로 받아안았고 중학시절 집단체조배경대에서 행사를 보장하고 병원으로 실려가던 그때처럼, 붉은청년근위대시절 물동을 지고 폭우가 쏟아지는 고지로 뚝아오르던 그때처럼, 입술을 옥물고 글을 엮어나갔다.

수기의 마지막에 자기의 진심을 이렇게 썼다.

《나의 후배들이여, 조국의 귀중함을 알려거든 여기 방선으로 오라. 청춘시절을 값높게 살려거든 손에 총을 잡고 조국보위초소에 서라. 깊은 밤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지켜 초소에서 눈비를 맞으라. 그러면 조국이란 무엇이며 청춘의 참된 삶이란 무엇인가를 알게 되리라.》

동시 한편 써보지 못한 《탁구선수》가 장편을 쓰자니 오죽했겠는가! 장편실화 《붉은청년근위대원의 수기》가 탈고된 날 나는 밤깊도록 원고를 읽으며 속으로 울었다. 기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해서...

수기는 높이 평가되었고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붉은청년근위대에 대한 첫 글이며 첫 단행본이다. 이것은 나의 만딸이 조국앞에 세운 첫 공로이다. 그날 나는 비로소 대학공부를 못시켜 언제나 알곤하던 마음을 깨끗이 털어버렸다.

대학공부도 구경은 사회와 인민앞에 의의있는

근일을 해놓자는데 목적이 있지 않는가. 사람은 가슴속에 품은 마음의 키가 천금인것이다.

평범한 우리 집에서 벌어진 생활에서 얻은 이 진리는 참으로 귀중한 것이었다.

소설의 주인공소녀

독자들은 혹시 창덕학교작품집에 실린 실화소설 《칠골의 새벽》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을 기억할수도 있을것이다. 주인공의 이름이 신통히도 우리막내이름과 꼭같다. 나이도 생김새도 같으며 새벽마다 하는 일도 같다.

집에서 휴식하면서 우연히 아이들의 책상위에 놓인 작품집에서 그 소설을 읽은 나는 너무 방불해서 학습반 하러 모여온 그애 동무들한테 얘기하였더니 《경순이 아버지, 그게 경순이가 맞아요.》라고 대답했다.

애들의 말에 의하면 그 소설을 쓴 오빠도 매일 아침 칠골사적지에 나와 저희들과 같이 강반석어머님동상앞에서 정성작업을 하는 창덕학교 6학년 학생이라는 것이었다.

내가 보기에는 소설을 아주 생동하게 잘 쓴것 같았다. 필자가 어린 동생들과 함께 좋은 일을 하면서 체험한것을 그대로 옮겼기때문일것이다. 생활의 진실은 언제나 감동을 주기마련이다.

(우리 막내가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니?!)

나의 머리에는 매일아침 새날이 밝을무렵이면 바깥과 비자루를 들고 사적지로 나가는 막내의 소행보다도 그애 오빠에 대한 생각이 먼저 맑혀왔다.

인민학교 1학년때만 하여도 막내는 자기의 말과 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철부지였다. 하루는 오빠가 책가방을 들고 집에 들어서자바람으로 심각한 낯색으로 나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버지, 오늘 경순이가 선생님한테서 욕먹었어요.》

《뭇때문에?!...》 나는 웬일인가 해서 중학생인 아들녀석을 바라보았다.

글쎄 선생이 글짓기시간에 《헐벗고 굶주리다》라는 단어를 넣어 짧은 문장을 지으라고 했는데 막내는 《우리 오빠는 헐벗고 굶주립니다.》라고 지었다는 것이다. 나는 너무 우스워 한참이나 배를 그러쥐고 웃었다.

《이제 크느라면 글의 뜻도 어련히 알게 된단다.》

자식이 어릴 때에는 한만동 장하기만 한 부모의 마음이랄가, 눈먼 사랑이랄가 나는 그저 그 일을 웃음으로 넘겨버렸다. 그날밤, 아드애는 작은 방에서 내가 어디 헐벗고 굶주리는가, 너같은 애가 《반동》이 아니고 뭔가고 제동생을 다불러 세우는 것이었다. 손우의 누나들이 막내를 옥박지른다고 나무람했다. 학급반장인 오빠는 항상 동

생에게 엄격했다.

얼마후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배려로 웅장 화려한 광복거리에 일떠선 원통식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 그날 이사집을 다 올리고나니 별로 집안이 행뎡그렇해 보였다. 온 방안이 짝 차게 행복을 쏟아놓던 오누이가 없어졌던 것이다. 낯선 곳에 와서 어디 나갈데도 없겠는데 이상한 일이었다.

나는 시간도 있고 해서 안해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아근에 있는 칠골혁명사적지로 스펙스적 걸음을 옮겼다. 저녁노을이 비낀 사적지는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어디에 가서 마련해왔는지 벌써 두 오누이가 강반석어머님동상앞에 나란히 서서 꽃다발을 드리고있지 않는가. 그리고 오빠는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

《경순아, 이제부터 우리는 사적지마을에서 살게 된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다. 만수대동상마을아이들처럼 우리도 사적지에서 하루의 새벽을 맞자.》

우리는 가슴이 몽클했다. 아들이 어른스러웠다. 가슴에 맨 붉은넥타이는 락조가 어려 더욱 붉게 보였다. 아이들한테서 교양을 받는다더니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것 같다.

다음날부터 막내는 어김없이 새벽 5시가 되면 사적지로 나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과는 변함이 없었다. 오빠가 농촌지원갔을 때도, 백두산답사를 갔을 때도 일과는 철칙이었다. 이따금 나도 애들을 따라 사적지로 나갔다. 사적지에는 온 광복거리 아이들이 다 모이는듯싶었다. 아이들은 동상앞 교양마당을 쓸기도 하고 꽃밭에 물을 주기도 했다.

언제인가 하루는 새벽부터 비가 내렸다. 그런데도 막내는 바깥을 들고나갔다.

《비가 오는데 무슨 바깥을 가지고 나가나?》

나는 비가 오므로 꽃밭에 물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막내는 쌍까풀진 큰눈을 곱게 흘기면서 《아버진 몰라. 사적지꽃들은 우리가 주는 물이 더 달대요. 아버진 사상이 틀렸어...》라고 빈정대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1학년때 생각없이 《우리 오빠는 험벗고 굶주립니다.》라는 짧은 문장을 지어 꾸지람을 받던 일이 떠올라 허허 웃었다. 그러고보면 소설의 주인공이 될만도 했다. 그러던 막내도 이제는 고등중학교 4학년생이고 오빠는 연극영화대학 1학년생이다.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을 막내는 매일 사적지에서 새벽을 맞는다.

(사적지의 새벽은 아이들의 키도 마음도 얼마나 어엿하게 키웠는가!)

정말 깊이 생각해볼 일화이다.

오누이의 재미나는 생활은 귀여운 자식들이 어른히 저절로 크고 저절로 철이 들고 저절로 훌륭

한 사람이 되려니한 《무딘한 아버지》의 생각에 경종을 울려주었다.

금메달은 빛난다

생활은 말팔과 막내에게만 있는것이 아니다. 부모의 애무를 그닥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란 둘째와 셋째에게도 제 나름의 생활이 있다. 둘째는 《붉은청년근위대원의 수기》 저자의 동생이고 셋째는 《소설의 주인공 소녀》의 오빠이다.

오누이의 생활에 대한 간단간단한 스케취에 앞서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조국의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친 둘째딸을 집약해서 소개하는것도 필요할듯하다.

△ 최경미 (1977년 9월 2일생)

● 특별상(상장, 증서)

크레파스화 《날 살려주세요》 (세계적십자 및 적반월의 날 기념 국제어린이 미술경연, 노르웨이, 오슬로. 1992)

● 1등상(금메달, 상장)

수채화 《사막의 나그네》 (애급문화성, 애급민족어린이센터주최 《세계어린이들의 눈으로 본 애급》 국제아동미술전람회 애급, 까히라. 1993)

● 2등상(은메달, 상장)

수채화 《잊지 못할 평양축전의 밤》 《제2차 국제어린이미술초청경연, 중국, 사천성. 1994)

● 수상(메달, 표창장)

크레용화 《반칙》 (제11차 아시아올림픽기념 국제아동미술전람회, 중국, 베이징. 1990)

신문과 방송, 화보에 수많은 소개된 둘째딸의 이름을 부르던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 동료들은 이따금 나에게 《개개 최동무의 딸이 옳긴 옳소.》 하고 던지시 룡을 던지기도 한다. 그럴 때면 나는 흐뭇해서 웃는다. 아버지로서의 만족한 미소이다. 그다음 나는 한수 더 뜬다. 진짜 그애를 키운 아버지는 내가 아니라고, 그애를 훌륭히 키운 아버지는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라고...

고마운 장군님께서 부어주신 하늘같은 사랑과 배려에 대한 이야기는 마감제목에 양보하는것이 합리적인것 같다. 경미가 국제어린이미술상 수상자가 되기까지는 고심도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했다.

(세상에 손쉽게 얻어지는 열매가 어디에 있겠는가.)

매일 오후 2시경이면 팔골행 대타령빠스정류소에는 화판을 든 철색의 동그스름한 얼굴에 보통키의 소녀가 서있었다. 그가 11살의 소녀 경미였다. 그때는 아직 광복거리가 완성되지 못했고 다만 아이들의 행복을 안고 먼저 일떠선 만경대학생소년궁전만이 운영되고있었다. 광복역부터 궁

전까지는 옹근 10리가 잘된다. 가고오는 시간을 제하면 재능을 키우는 시간은 한껏 두시간이다. 그 두시간을 위하여 매일 20리를 걸어다녔다. 무더운 여름, 추운 겨울 가림이 없었다. 할머니는 늘 걱정했다. 한번은 저녁늦게 집에 돌아온 딸이 출입문가에 우두커니 서있었다. 얼굴에 말라붙은 눈물자욱이 그대로 보였다. 아침에 신고갔던 살색 긴양말의 랑무릎노리에 주먹만한 구멍이 뽕 뚫렸었다. 나는 첫눈에 짐작되었다.

《큰일날뻔했구나.》

봄비는 광복역앞 정류소에서 뺨스에 오르려다가 넘어져 얼마간 미끌면서 그렇게 된것이다. 그만한것이 천만다행이었다. 그런데도 딸애는 무릎의 아픔보다 어머니가 사준 새 긴양말을 배린 걱정이 앞섰던것이다.

나는 속이 좋지 않았다. 제일 가슴아파하는이가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상처난곳이 달랑달랑 쏠거라고 온밤 손녀의 무릎을 그러안고 주무시지 못하였다. 아침에는 미술이고 기술이고 당장 그만두라고 열을 올렸다. 어머니도 교통이 풀린 다음에 다니라고 타일렸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다음날부터는 긴양말을 벗어던지고 다녔다. 나는 어이없어 웃고말았다.

둘째딸이 아버지의 가슴에 없어주는 걱정거리는 번질날이 없었다.

하루는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궁전에 간 애가 돌아오지 않았다. 날씨는 초겨울이여서 쌀쌀하고 눈까지 내렸다. 근심에 싸여 복도로 드나들며 안절부절을 못하던 안해와 나는 뺨스정류소에 나가 기다리기도 하고 궁전소조에 다니는 애들 집에 찾아가보기도 했다. 모두 보지 못했다는것이였다. 궁전경비실에 전화를 걸어도 다 퇴근했다는 대답뿐이였다. 우리 내외는 서로 아이에게 관심이 없다고 공연히 얼굴을 붉히며 다투기까지 했다.

하느수없이 나는 혹시 삼촌네집에 가지 않았을가 해서 밤중에 걸어서 장대재를 넘고 옥류교를 건너 동대원으로 갔다. 대타령에서 동대원까지는 10리가 잘된다. 한밤중에 찾아온 나를 보고 동생과 제수는 깜짝 놀라는것이였다. 거기에도 딸애는 없었다.

나는 분명 이 애가 뜻하지 않는 사고로 어느 병원에 실려가다가 무슨 일이 났다고 생각했다. 서슴거릴새없이 온몸이 땀투성이, 눈투성이가 되어 집에 돌아오니 안해는 쿨쿨 잠을 자고있었다.

할머니만이 쉬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계셨다. 방금 분주소에서 직일안전원이 왔다갔다하는것이였다.

일인즉 이렇게 되였다.

새벽 4시경에 궁전경비원이 순찰하다가 미술소 조실안에서 딸각딸각하는 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이였다. 문은 채워져있는데 분명 안에서 인기척

소리가 났던것이다. 소리쳐 문을 열게 하고 들어가보니 큰방에 딸애가 혼자 있었다. 노르웨이에서 진행되는 국제어린이미술경연에 출품할 그림을 그리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소조원들이 다 간 다음 안으로 문을 걸어 저녁도 번지면서 창작에 몰두하고있었던것이다.

경비원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인만큼 부모들이 걱정할것을 생각해서 분주소에 전화련락을 해주면서 꼭 집에 알려주라고 당부했었다. 직일안전원도 조국의 명예를 건 어린애의 소행이 너무 기특하여 그길로 어지간히 떨어진 집에까지 찾아와 알려주었던것이다. 나는 밤새 속을 태우며 고생한것이 우습기도 하고 땡랑하기도 했으나 딸애의 그 열정과 피타는 노력이 뜨거웠다.

그 그림이 세계의 150개나라 어린이들이 참가한 노르웨이 국제어린이미술경연에서 특별상을 받을줄을 누가 알았으랴.

《그림이 안돼서 몇번이나 붓대를 집어던지던 네가, 너무 속상하면 눈물을 방울방울 떨구던 네가 글썽 주체조선의 영예를 온 세상에 떨쳤구나!》

그날 우리 온 집안식구들은 《승리자》를 포옹했다. 꿈만같았다. 어디서나 볼수 있는 수수한 우리 집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줄은 정말 몰랐다.

노력의 보람은 컸다. 그 다음해 애급의 까히라에서 진행된 세계아동미술전람회에서도 또다시 단연 1등의 영예를 지니고 금메달을 받았고 또 그 이듬해에 중국에서 진행된 제2차 국제어린이미술 초청경연에서 은메달을 받았으며 그밖에 크고작은 여러전람회에서 금메달과 상장을 수여받았다.

우수한 문학작품도 창작하여 두차례나 문학상과 메달을 쟁취했으며 특히 작년 10월호 《청년문학》에 실린 서정시 《웃음과 눈물》외2편은 독자들을 놀래웠다.

사람들은 경미를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애라고 말한다. 함께 생활하는 아버지, 어머니나 형제들의 경우는 그렇게 쉽게 말할수 없다. 그런 뛰어난 《수재》로 국제무대에서 네번이나 내 조국의 영예를 떨쳤다면 오죽이나 마음이 편하겠는가. 그 하나하나의 금은메달에 바쳐진 남모르는 고심과 노력을 알고있는 나로서는 딸애를 《재능있는 소녀》라고 말하지 못한다.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이다. 열매는 편안히 앉아서 기대할수없는 법이다.

지금 경미는 미술대학 2학년 학생이다. 그의 고민은 계속되며 미술수업과 창작의 초학도로서의 하루하루는 예전이나 다름없이 《고충》속에서 흘러가고있다. 그것은 작년가을 풍경채색실습기간에 자기의 도화지가넉에 써놓은 한편의 단시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수 있다.

모대기라 끊임없이 모대기라
피로움에 눈물 흘리며 몸부림치라
허나 그것은 아름다운것
그속엔 불타는 빛이 있으리
그 불길 타고르는 날에는
몇만배나 단 열매 너는 거둘수 있으리라

나는 여기에 더 주석을 달지 않겠다. 이것이 내가 말하려던 소제목 《금메달은 빛난다》의 핵심이 때문이다.

바뀌어진 희망

나는 예술영화 《청춘이여》를 보고 혼자 웃었다. 신통히도 우리 집 같았다.

영화에 나오는 집처럼 우리 집에도 딸들이 세차고 아들은 온순하다. 아들애는 어려서부터 처녀애들속에서 자라서 그런지 각시놀음만 놀았다. 그러면서도 커서 추격기비행사가 되겠다고 우쭐렁거렸다.

나는 아들의 랑만적인 《희망》을 지지해주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영원한 희망으로 되겠는가 하는것은 알수 없었다. 어린 시절의 《희망》이란 크면서 몇번이나 바뀔수도 있을뿐아니라 사람이란 타고난 자기고유의 기질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찾아낸다는것은 조련치 않다. 거기에는 세심한 관찰과 체험을 동반해야 하는 담임선생이나 부모의 높은 책임성이 요구된다. 후대를 책임진 선대의 후대들에 대한 방관시한 태도는 그런 눈을 줄수 없다.

아이들은 대체로 그시그시의 주위환경에 많이 현혹되며 자기의 기질과 판이한 여기저기에 정신을 쏟는 경우가 많다. 이딸리아의 작가 데 아미찌스가 소설 《꾸오레》에서 주인공 엔리코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우표수집에 열중하고있는 그의 동무 가로피에 대해 한가지 일에 열중하는 점은 배울만한 일이라고 쓴것은 풍부한 생활체험에서 발견한 아주 귀중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아들애의 성장과정에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직접 체험했고 《우연》한 성공에 놀라기까지 했다.

《추격기비행사!》 나는 속으로 이렇게 긍지높이 뇌이기도 하고 미래의 《영웅비행사의 아버지》를 꿈꾸기도 하면서 《비행사》로서의 아들의 부족점을 메꿔주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약한 몸과 의지를 역세게 키워주기 위하여 소년시절의 친구인 구역체육구락부 레스링지도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기상수문지식이 필요하리라는 것을 고려하여 학생소년궁전 천문학소조지도교원을 찾아가기도 하면서 적지 않은 시간을 소비했다. 고등학교 3학년생이 되도록 아들애는 국제어린이 미술상수상자인 제 누나의 성과를 들고 다니면서 자랑할뿐 자기를 찾지 못하고있었다. 아들애를 꾸짖을 일이 생기면 《등신》이라고 서

슴없이 말했고 수매소에 보낼 일이 생겨도 그를 보냈다. 하지만 마음은 좋지 않았고 외아들의 장래때문에 늘 걱정이 많았다.

그무렵 어느날이었다. 몇해전에 앓은 뇌혈전증의 후파로 나는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다. 신간잡지와 소설책도 잘 볼수 없게 되었다. 4형제중 그래도 아버지의 실명을 걱정하는것은 아들애였다.

아들애는 저녁이면 《로동신문》과 잡지 《조선문학》을 비롯하여 소설책들을 꼭꼭 두시간씩 읽어주었다. 이 일은 어김없는 일과로 되었다. 말이 적고 생각이 깊은 성미이면서도 소설을 읽는데는 취미가 없던 그가 이 과정에 점차 소설에 취미를 붙이고 인생에 대해 남다른 눈으로 관찰하는것이였다. 그 눈은 독특했다. 이따금 보통사람으로서 볼수없는 그런 류다른 예술적감각과 안목으로 생활을 감수하고 분석하는것이였다. 나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 경훈이에게 이런 류다른 감각이 있었던 말인가?!)

고등학교 4학년때부터 청년동맹초급일군으로서 동맹원들의 생활과 심리를 연구하면서 그 기질은 보다 심화되는것이였다. 그래서인지 이무렵에 와서는 밤을 새워가며 세계명작이라는 명작을 모조리 탐독하는것이였다. 어린 시절부터 방랑생활을 하면서 자라온 아버지의 치명적인 병을 걱정하는지, 소설에 나오는 각이한 등장인물들의 극절많은 운명을 동정하는지 늘 고개를 수그리고 다녔다. 무엇이든지 한곳에 주의를 돌리면 무섭게 사색했다.

나는 조용한 기회에 오랜 편집원의 경험으로 문학작품을 한번 써보라고 권려했었다. 창작가의 고충을 잘 아는 안해는 아버지처럼 글을 쓰려면 애당초 그만두라고 손을 내저었다. 아무런 대답없이 듣고있던 아들애는 그해 가을걷이전투에 갔다가 소설을 한편 써가지고 와서 내놓는것이였다. 나는 무릎을 탁 쳤다. 사회적문제성에 대한 예리한 포착과 생동한 성격묘사, 감각적인 문장력은 기질적이랄가... 그 작품이 아들애의 처녀작 벽소설 《새벽불빛》이였다.

《고등학교 5학년이지만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본격적으로 문학수업을 해봐라.》

아들애는 전과목에 걸쳐 최우등을 하면서도 그때부터 1년사이에 5편의 소설과 수필을 써서 《문학신문》과 단행본, 여러 신문들에 발표했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 추격기비행사 준비를 위한 레스링소조원이, 천문학소조원이 이렇게 《둔갑》할줄은 나도 몰랐다. 어느 소조에서도 이처럼 특기를 발휘하지는 못했던것이다.

1995년 먼곳에 출장갔다 돌아오니 아들애는 대학예비입학통지서를 내놓았다. 그후 또 근 3개월간의 장기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걸음으로 직장에 들어서니 한 아파트에서 사는 안동무가 우수한 점수로 아들애가 평양연극대학 영화문학창과에 입학했다고 희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들은

아버지인 나보다도 더 기뻐하였다.

《영웅비행사의 아버지》가 못된다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나의 생각은 깊어졌다.

(조국의 장래와 그것을 떠메고나갈 후대 한사람의 임무가 얼마나 무거우며 후대육성에서 얼마나 심사숙고해야 하는가.)

아직은 앞날을 담보할수 없지만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라 말할수 있겠는지. 자식들에 대한 자랑이라기보다 지난날 자신을 모르고 덤벙덤벙하면서 정력을 분산시켜 그 어느 하나도 사회와 인민을 위해 모가 나게 성공하지 못한 아버지로서의 뼈저린 교훈이라고 생각해주면 고맙겠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한마디 덧붙이고싶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취미와 소질, 재능과 희망은 나라의 재부이다. 그것을 귀중히 여기고 훌륭히 키워주라. 조국의 융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사업에서 백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한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지 않는가!

여덟송이의 꽃

우리 집의 작은 방에는 세계 여러 나라 아이들이 보내온 편지와 기념품들이 있다. 로씨야의 쭈민스크주 샬레하르드시에 사는 율야, 중국의 동북지방에 사는 추란이. 그뿐이 아니다. 독일의 익살쟁이 필리프, 인도의 귀여운 넬리암... 그들 모두는 둘째딸의 동무이면서도 4형제의 벗들이기도 하다.

그들을 사귀게 된 경위는 각이하며 흥미있다.

필리프와 넬리암은 둘째딸과 직접 생활을 같이 했고 율야와 추란이는 편지로 얼굴을 익히고 친해졌다

부모를 따라 조선에 와 살던 필리프와 넬리암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배려로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조선화소조에서 함께 미술공부를 했다.

처음 그애들의 부모들은 《한달 배우는데 교육비를 얼마나 바쳐야 합니까?》라고 물었다. 지도교원들이 우리 나라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배려로 궁전에서도 학교에서와 같이 무료로 배우고 있다고 대답하자 믿질 않았다. 자기들은 외국손님들이므로 국가에서 특혜를 베푸는줄로 리해하는것 같았다. 하루는 둘째딸이 국제어린이미술상 수상자라는것을 안 그들은 자기 아이들을 잘 배워달라고 부탁하면서 귀속말로 궁전소조원들이 교육비를 얼마씩 내는가고 살그머니 물어보았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장군님의 배려로 오히려 미술 도구와 기재들을 나라에서 보장받으며 재능을 배운답니다.》

딸애역시 그들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소곤소곤 일러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 다음날부터 필리프와 넬리암은 약속이나 한듯이 궁전에 나타나면 먼저 아버지수령님과 아버지장군님의 초상화에 제각기 자기 나라 풍습대로 인사를 드렸다. 플리프와 넬리암은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불렀고 익살도 곧잘 부렸

다. 이따금 미술공부에 싫증을 느끼고 제나라 말로 떠들어 옆동무들의 공부에 방해를 주는 말썽도 일으켰다. 하지만 생활은 재미있었다. 미술소조실에 들어와보는 사람들은 그 모습은 보고 저저마다 《국제미술소조실》이라고 별칭 새 이름을 붙여놓았다.

활달하면서도 다감한 율야를 사귀게 된 동기도, 정열적인 추란이를 사귀게 된 동기도 하나같이, 《국제미술소조실》에서 생겨났다. 바로 이곳에서 그린 그림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미술경연에서 특별상과 금메달을 받아 세상을 들었다놓는 바람에 수많은 벗들이 생긴것이다.

몇해사이에 국제우편으로 수많은 오고간 편지들가운데서 두장의 편지는 지금도 잊을수 없다. 나는 딸애의 번역원노릇을 하다나니 편지의 내용을 죄다 알게 되었다. 율야는 자기들이 사는 중앙씨비리의 검은돈과 곰, 토끼, 여우 등 짐승들에 대하여 소개하고 시쓰기를 좋아하는 추란이는 자기 작품들과 방학기간에 있는 일들에 대하여 많이 소개했다.

딸애는 그들의 편지를 받고는 꼭 회답을 해주었다. 그때마다 학교와 궁전에서 마음껏 배우는 우리 나라 학생소년들의 행복에 대해, 날마다 돌려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배려에 대해, 주체사상탑이 높이 솟은 평양에 대해 기행문을 쓰듯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그러면 그들은 매번 회답편지에서 누구나 하루공부를 마치고 궁전에 모여와 자기의 취미와 소질, 희망에 따라 마음껏 재능을 꽃피우는 조선에 한번 가보고싶다고 한다.

한번은 통신원이 국제우편국의 일부인이 찍힌 편지를 아침일찍 가져왔다.

우리 일곱식구는 집에서 휴식하고 있었다. 편지를 개봉한 나는 내용을 읽어주었다. 서투른 로어를 읽어가며 번역을 해주었다. 그는 딸의 편지를 받고 우리 나라 애들을 무척 부러워했다. 편지에는 이런 구절도 있었다.

사랑하는 경미야.

나는 학교와 궁전에서 마음껏 배우며 뛰노는 너희들이 부럽구나.

이 중앙씨비리의 소녀는 경애하는 김정일선생님께 인사를 드린다.

...

나는 가슴이 몽클했다. 아직 때문지 않은 소녀의 소박하고 깨끗한 편지에 담긴 진심! 얼마나 가슴을 울려주는가. 복속에 살면서 복을 모르듯이 하루하루 배우고 누리는 생활의 천당을 모르는 우리 집 4형제는 뜨거웁속에 눈물을 머금었다.

또한 한번은 이런 편지가 날아왔다. 추란이의 체취가 그대로 풍기는 편지였다. 그속에는 시도 한편 들어있었다. 그 시는 우리 나라 출판물에까지 발표되었다. 편지의 내용을 읽고 일곱식구는

너무도 뜻밖의 소식에 환성을 올리였다.

《...며칠전 나는 너의 편지를 받고 길림육문중 학교에 모셔진 김일성 주석님의 동상을 찾아갔다. 그날 나는 두송이의 아름다운 꽃을 마련해가지고 가서 주석님앞에 드렸다. 하나는 너의 몫, 하나는 나의 몫으로...》

여기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랴. 나는 충격이 컸다. 아이들의 오가는 편지에서 싹트고 자라난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그들의 수정같은 추앙심은 그 어떤 어휘로도 다 표현할 수 없으리라.

행동은 말보다 값높다. 우리 집 4형제는 그 다음날 여덟송이의 꽃을 준비해가지고 만수대언덕에 올랐다. 두송이는 울야와 추란이의 몫, 두송이는 자기 조국으로 돌아간 필리프와 넬리암의 몫, 나머지 네송이는 자기 형제들의 몫이었다.

사랑의 품

수도의 화려한 밤거리를 걸으라면 형광등불빛이 명멸하는 수천수만의 창문들을 바라보게 된다. 그때 가정들에는 모두 제나름의 생활이 있고 제나름의 자량이 있으며 제나름의 행복이 있다. 또 제나름의 영광도 있을것이다.

우리 집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앞에서 요란하게 열거했지만 그 모든 크고작은 일화들은 따스한 해빛을 주고 비옥한 자양분을 준 요람이 없어야 생각이나 할수 있었으랴.

나는 광복거리 원통식살림집의 30층에 자리잡은 우리 집을 집이라고 말하지 못한다. 어린시절 이집저집의 문턱을 기웃거리며 벼짚무대기속과 정거장대합실에서 쪽잠을 자던 내가 어찌 궁전같은 요람을 집이라고 감히 말하겠는가.

방랑생활의 나날 우연히 만난 인척의 도움으로 집을 찾아가니 미제승냥이들의 폭격에 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뒤동산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봉분만이 남아있었다. 그래도 나는 그것이 《집》이라고 그 봉분곁에서 꼬부리고 하루밤을 잤다. 그것이 나의 《집》이었다. 여덟살의 그때는 오직 쏟아지는 설음뿐 앞날의 희망같은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집이었다.

하지만 우리 애들이 안겨사는 집은 응석도 있고 웃음도 있고 래일의 희망도 마음껏 꽃피울 조건이 다 갖추어져있는 집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우리 집을 집이 아니라 품이라고 부른다.

진정 그렇다. 우리 집은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장군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배려가 가득찬 보물고이며 사랑의 품이다.

한창시절 머나먼 북방의 개발지에서 로동당원으로 키워주고 첫 공로메달을 가슴에 달아준분도, 아버지장군님이시였고 대학공부를 못한 나를 과학의 최고전당의 특설반으로 불러주신분도 아버지가장군님이시였으며 오늘의 영광스러운 초소에 세워주신분도 아버지가장군님이시였다.

고마움은 나와 안해에게만 있는것이 아니다. 둘째딸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주체조선의 영예를 떨치었을 때는 우리 제도가 좋으니 재간둥이들이 많이 난다고 기뻐하시며 널리 소개하도록 해주시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설맞이공원의 《조국의 영예를 떨친 자랑무대》에도 내세워주시였으며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장자산에 야영까지 보내주시였다. 그리고 까히라에서 금메달로 조국의 이름을 빛내었을 때는 우리 나라주재 애급대사관에서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도록 배려해주시였다.

또한 아버지장군님 탄생기념일을 맞으며 글 및 그림 작품집 《꽃보오리의 소원》을 올렸을 때에는 그것을 창덕학교 선물관에 전시하여 외국손님들에게 보여주도록 하라고 과분한 은정을 돌려주시였으며 1993년 1월 6일에는 장차 장군님의 훌륭한 녀류화가가 되겠다는 결의를 담은 편지를 친히 보아주시고 평양미술대학에서 재능을 활짝 꽃피우도록 더없는 사랑을 부어주시였다.

작은 우리 집에 안겨주신 하늘같은 사랑과 배려는 이뿐이 아니다.

그이께서는 딸딸이 쓴 장편실화 《붉은청년근위대원의 수기》를 금성청년출판사에서 발행하도록 방침을 주시고 500만의 총폭탄이 되려는 우리 고등중학교 청소년학생들의 지경도서로 정해주시였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는가.

두 대학생중 한 애는 장학금까지 받으며 공부하고있다. 막내인 《소설의 주인공소녀》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녀성해안포종대초소에 설 커다란 포부를 안고 학습과 소년단생활에 열중하고있으며 태권도와 음악공부에 온갖 심혼을 쏟고있다.

딸이 많은집의 완력을 철천지원썩 미제침략자들에게 파시해보려는 모양이다.

세월이 갈수록 아버지장군님의 사랑은 더해만진다. 하늘도 줄수 없는 이런 사랑이 있을진대 어찌 범재가 수재로 되지 않으며 모두 효자, 효녀로 자라지 않겠는가.

지금 나는 이 수기를 쓰며 호젓한 서재에 홀로 앉아있다. 딸딸은 하루의 로동을 마치고 대기념비건설장의 야간돌격대원이 되어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는지 모른다. 둘째딸은 방학을 맞아 북부탄전의 명예속보원이 되어 떠난지도 며칠이 잘된다. 아들은 흰눈이 내리는 만수대로 가고 막내딸은 먼 초소에 위문공원을 떠나고... 어머니와 안해는 큰방에서 인민군대원호품을 만든다.

아직 4형제의 결음은 출발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이 계시고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가 있는 한 더 밝고 창창할 래일에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워갈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방불히 안겨온다. 하여 이제 10년후에 조국과 인민앞에 자기 자리를 확고히 차지한 우리아이들의 몫으로 또다시 재미있는 수기를 쓰게 되리라는것을 나는 굳게 확인하는바이다.

겨울밤의 은하수

방정강

우리 나라 북쪽 동해안의 솔매봉기슭에 《ㅅ》료양소가 있다. 그리 크지 않은 자그마한 이곳 룡양소에 나의 대학시절 동창생인 박성훈이 의사로 일하고있다. 두해전 우리 동창생들이 3대혁명소조를 마치고 의료부문 연구기관이나 병원들에 배치되었을 때(나는 의과학원 연구사이다) 그만은 자진하여 룡양소의사로 갔다. 그때 나뿐이 아닌 우리 동창생들이 더우기는 그에게 선망의 눈길을 보내던 처녀들이 아연해하였다.

(의학박사가 되려던 성훈동무가 룡양소로 가다니, 놀그막자리까지 넘보고 간계 아니야.)

그의 과격적인 자원부임은 우리 벗들의 의혹을 자아내었다. 룡양소로 가서 성훈은 나에게 짝막한 도착인사편지를 보내여왔다. 그뒤 2년이 가까와오도록 그는 나에게 한장의 소식도 전해오지 않았다.

어떻게 지내는가? 학위논문은, 결혼은?

아마도 일이 잘 안되는 모양이었다. 친우인 그의 일이 늘 마음을 괴롭히었다. 차라리 이제라도 그를 돌려세우고싶었다. 그리하여 나는 한번 품을 놓아 그를 찾아가려고 하였다. 그러던차에 성훈에게서 뜻밖에도 반가운 편지가 왔다. 소설같이 긴 편지였다. 하루일을 마친 저녁 나는 조급한 마음을 안고 서둘러 편지를 개봉하였다. 편지는 이러하였다.

X

승규!

그새 잘 있나? 오늘에야 비로소 펜을 드는 나를 용서하게. 한책상에서 공부하던 벗을 그리는 마음이야 예이제 변함이 있겠나. 동무의 편지를 받고 몇번은 편지를 쓰려 책상앞에 앉았네만 어디 펜이 나가야지. 그래서 회답을 미뤄오다가 오늘에야 내 몇몇이 할 말도 있고 하여 글을 쓰네.

참 먼저 내 이야기를 쓰기전에 생남도 축하하고 의과학잡지에 발표한 자네의 논문을 본 인사를 해야겠네. 한마디로 학술적의의가 있는 가치있는 논문이라고 여겨지네. 나는 그 논문을 읽고 내가 쓴 글이 발표된것처럼 기뻐했네.

승규.

동무도 알다싶이 난 화학원소주기계 0족의 방사성원소인 라돈이 들어있는 물연구를 위해 이곳 《ㅅ》료양소로 오지 않았댔나. 일부 《안온한 보신적인 연구제마 선택》이라는 비난도 받았던 나에게 이 약수연구가 인생의 눈을 크게 띄워준 계기로 될줄을 어찌 알았겠나.

동무도 대학시절 한번 와보아 알테지만 200여년의 년륜을 새기고있는 두그루의 로송이 엄엄히 지켜서서 《ㄷ》자로 둘러앉은 약수터를 기웃이 들여다보고있는 2층청사의 아래층에 나의 실험실이 있네. 우리 룡양소장은 나의 연구사업을 위해 실험실을 한방 내여주는 등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해주고있네. 나는 그새 나라의 여러 약수터를 찾아다니며 자료작업은 거의 다 해놓았네. 이를테면 《탐방객》이 되어 어깨에서 배낭을 벗어놓을새가 없었다네. 회색빛의 중절모를 쓰고 어떤 날은 60여리길을 혼자 걷기 일쑤였었네. 하여 학위논문의 장, 절 체계가 명백해졌네. 이것이 우선 동무에게 《보고》할 일이네.

나의 연구실 창문가에서는 날로 건강을 회복하는 환자들이 철봉이며 평행봉, 아령, 안마운동 등 치료체육을 하는 모습들이 내다보이고 더우기는 지심깊이에서 솟아올라 출구로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을수가 있네. 참으로 우리 대학 벗들이 반룡, 반진담소리를 했네만 여긴 공기와 물만 마셔도 몸이 날곳이라네. 나는 벗들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긴장하게 탐구의 나날을 보냈네. 약수의 전망탐사며 새로운 광천치료법의 탐구... 그렇지만 어디 성차던가. 바로 이런 때 나의 일신생활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네. 나는 한 처녀를 알게 되었네.

동무도 알다싶이 난 사실 《괴짜》가 아닌가. 학위논문을 공개심의하기전엔 결혼도 안한다. 이것이 나의 괴벽한 《결심》이 아니었던가. 시간만 있으면 도서관의 장서들에 파묻혀있다고보니 내결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히 처녀들에 대해서는 아닌보살했거든. 아마 그래서 우리 대학시절 너동무들이 나를 눈이 높은 사람으로 여겼을수 있었네. 그러다보니 너동무들은 나를 멀리했거든....

두달전 초가를 어느날이었네.

그날 나는 실험실에서 중절모를 쓰고 배낭에 시약이며 유리관들을 주섬주섬 넣으며 이제 북행렬차에 오를 길차비를 하고있었네. 그때 《똑똑...》 문두드리는 소리가 나더군.

《네, 들어오시오.》

나는 등을 수곳이 굽힌채로 대답하였네. 문소리가 나며 《저 아바이, 여기 박성훈선생이...》하는 처녀의 구슬같은 목소리가 들리었네. 나는 허리를 펴며 돌아서서 못마땅한 눈길로 처녀를 바라보았네.

《누군지... 접니다.》

《아이 선생님, 미안해요. 증절모를 쓰고계시니... 전 비료공장 압축기운전공 김오월이라구...》
처녀는 얼굴이 빨간무우가 되어 서있었네.

《오, 동무가 오월이요? 내 동무 애길 얼핏 들었소. 아버지 병때문에 약수를 받아간다지. 그런데?》

나는 처녀에게 의자를 권하며 증절모를 벗고 마주 앉았네.

《저-선생님한테서 라돈물의 미량성분에 대해 알고싶어서...》

처녀는 나의 얼굴을 뵈히 쳐다보며 말하다가 그리 달가와하지 않는 기색을 느꼈던지 말끝을 삼키더군.

《처녀동무, 50종이나 되는 미량원소를 어떻게 다...그걸 꼭 알아야 되겠소? 나도 그전에 비료공장병원 소조에도 나가있어 비료공장을 좀 아오. 비료공장이야 정양소, 룡양소도 있고 노동자들한테 젓소목장 우유며 탄산수도 공급하지 않소. 아버지병이 심하면 모시고 오오. 내 룡양권은-》

처녀의 얼굴에 실망의 그늘이 비껴있기에 나도 말을 채 맺지 못하였네. 처녀는 호- 하고 숨을 가늘게 내쉬더군.

《아버님은 공장 정양소, 룡양소에도 몇차례 가고 병원치료도 받았는데 담당의사선생이 여기 룡양소 라돈약수치료를 받아야겠다고 룡양권도 드렸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지금 기름분리기를 개조하느라고 좀처럼 현장을 뜨지 않는군요. 그래서 제가...》

처녀는 미안스리워 고개를 숙집게 숙이며 의자에서 일어서는것이였네. 나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통명스러운 어조로 말했었네.

《처녀동무, 내 지금 기차시간이 막두해서... 후날 한번 찾아오오. 우리 룡양소 약수는 라돈함유량이 우리 나라에서 첫손에 꼽히오. 우선 계속 써보시오.》

나는 증절모를 쓰고 일어서며 어깨에 배낭을 둘러메었네.

《네-에, 알겠어요. 그럼 안녕히.》

처녀는 레절을 지켜 깍듯이 인사하고 문밖으로 나가더군.

(거 참 당돌한 처녀로군.)

처녀를 돌려보내고나니 좀 너무한것같이 생각되더군. 처녀는 지난 여름부터 한주일이 멀다하게 약수를 받아간다고 했네. 아버지의 위병을 때려고 이따금 쉬는 날을 택해 오는 처녀를 차갑게 대한듯싶더군. 슬며시 얼굴이 붉어지는것이였네. 나는 처녀처럼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격지심이 들더군.

장진땅에서 사시던 나의 어머니는 지난 봄에 세상을 떠나셨네. 아들을 의학대학에 보내놓고 그리도 대견해하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듯이 저며드네. 형님들이 그저 어머니를

잘 모시려니만 하고 언제 한번 막내아들구실을 못했었네. 그런데 처녀는 어떠한가. 눈비내리는 70리길을 마다하지 않네. 역을 향해 걷노라니 처녀의 모습이 줄곧 눈앞에 떠오르더군.

(허허... 새파란 총각을 아바이로 부르다니.)

나는 나를 아바이로 만든 증절모를 벗어두고 허거픈 웃음을 웃었다네.

그후 나는 달포 남짓이 함북일대의 약수며 온천물 연구사업을 마치고 룡양소로 돌아왔네. 이젠 온 나라의 룡양소들의 특성과 라돈물성분이 험등하게 내 손에 쥐여졌다네.

눈이 내리고있었네.

눈송이들은 나의 실험실도 기웃이 들여다보는 듯 창가에 비스듬히 스쳐내리었네. 이곳에서 두번째로 맞게 되는 겨울의 눈이여서 생각이 깊어지더군. 나는 룡양생들의 호실을 돌아보고 실험실에 돌아와 자료작업을 하고 있었네. 그때 자동차의 엔진소리가 부릉부릉 바깥에서 들려오더군. 이어 출입문이 열리며 얼굴이 갱끗한 룡양소장이 들어서는것이였네.

《성 훈선생이 도에 시약을 가지러 가려 했던가?》

나는 의자에서 일어서며 《네, 그렇습니다.》하고 대답했네. 그러자 소장은 《도의약품관리소에서 의리기구들을 가져가라고 전화가 왔소. 지금 차가 떠나오. 시약도 얻을겸 가는게 어떻소? 경리과에서 한사람 가니 함께 가오.》하였네.

《네. 알겠습니다.》

나는 선뜻 응해나섰네. 솜동복도 두툼히 입고 털모자도 썼네. 승리58형화물자동차는 곧 떠났네. 경리과의 나이 많은 인수원이 운전칸에 앉고 나는 적재함우 의리기구를 받아올 나무상자에 앉았네. 자동차는 눈내리는 들길을 따라 엔진소리를 고르롭게 내며 달렸네. 차가 배기가스를 희푸르게 날리며 술매봉마루로 올랐다가 내리려는 때였네.

앞서 달리는 자전거가 한대 보였는데 그만 내리막눈길로 해서인지 눈무지속에 모재비로 굴더군.

앗차! 가슴이 덜컥했네. 사람이며 뒤에 실은 짐이며가 허양 나가 눈속에 뿌리더군. 자전거는 거꾸로 눈속에 박혔는데 뒤바뀌가 땡그랗게 솟아올라 채바퀴처럼 돌더군. 운전사가 속도를 놓았네. 차가 가까이 가몇자 나는 《아, 저 처녀가?》하고 부르짖으며 적재함에서 나는듯이 뛰어내렸네.

승규, 이 사람. 그가 누구였겠나. 비료공장 그 처녀였네. 나는 황급히 처녀의 바른팔을 잡아일으켰네. 처녀는 무릎을 절며 일어서더군. 나는 처녀의 솜동복에 솜처럼 무덕무덕 묻은 눈을 털어주었네.

《이런 큰일날번했군. 오늘도 약수를 받으려왔

됐소?)

《네, 일없어요. 자전거가 아직 몸에 붙지 못해 그만...》

처녀는 흰 이를 가지런히 드러내며 생긋이 웃더군.

(이 눈내리는 날에... 어쩌면 자전거로 약속을 날라갈 생각까지 했던말인가. 자전거를 타는 연습은 얼마나 했을가. 아마 넘어졌다가는 다시 힘을 내어 오르기를 수없이 거듭했을테지. 하여 오늘은 눈에 미끄러운 령길 내리막길에서도 자전거를 몰고... 참 보통처녀가 아닌걸.)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처녀를 비로소 바로보기 시작했네. 운전사가 자전거로부터 저만치 뿌러진 약속초롱을 들고오며 감심어린 목소리로 말했네.

《으-음, 약속처녀로군!》

그러자 처녀는 알은체를 하며 운전사에게로 다가가더군.

《아이, 운전사동지군요. 전번날에도 저를 태워다주시더니 또 신세를...》

처녀는 눈속에서 고추같이 빨갛게 된 손을 털며 여간만 미안해하지 않았네. 운전사는 두눈을 습벅이며 신세는 무슨 신세이냐고 우정 태워라도 줄 좋은 일을 한다고 되려 처녀를 위안하더군.

우리는 경리과 인수원이랑 셋이서 자전거를 바로 일궈세워 적재함에 실었네. 나는 물초롱을 들고 처녀와 함께 차에 올랐네. 의료기구나무상자가 《의자》로 되었네. 처녀와 나는 자전거를 한손으로 붙잡고 나란히 앉았네.

차는 다시 떠났네. 눈송이들은 온 하늘이 제 세상인듯 평평 내리더군. 우리는 눈을 맞으며 앉아있었네.

승규!

내 그날 자동차의 적재함에서 처녀를 똑바로 보았네.

익은 파리같이 불길한 혈색 좋은 얼굴에서는 두눈이 류달리 눈부시더군. 리지적으로 생긴, 아직은 머리수건을 내려써서 그 전모는 다 볼수 없지만 아름다운 처녀이더군. 나는 처녀에게 물었네.

《오월동무, 동무의 이름은 듣기도 좋지만 부르기도 좋군요. 장편소설 <평양시간>에 나오는 처녀이름과 같아선지. 그 처녀 성과 이름에 동그라미가 셋이더니 동무이름은 둘이로군. 허허...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되었소?》

처녀는 쌍파풀진 눈에 미소를 담고 나를 쳐다보더군

《난 아직 소설의 오월인 못됩니다. 또 동그라미를 우정 넘느라고 해서 그렇게 지은 이름이 아니구요. 그저 우리 아버지 로동자의 딸이라고 그렇게...》

《로동자의 딸?! 이름에 깊은 뜻이 담겨있군.

어서 계속하오.》

나는 처녀곁에 바투 다가앉았네. 처녀는 눈내리는 광막한 하늘의 한 공간을 주시하며 이야기를 잇더군.

60년대말 5월의 어느날 저녁이었다네. 월계획을 넘쳐한 상금을 타고 로동자식당에 들러 친구들과 더불어 한잔 술을 따른 처녀의 아버지는 집대문을 열어젖히며 《흥... 흥...》노래를 불렀다네.

처녀의 아버지의 지정곡은 《승리의 5월》이었다네. 아버지가 구들로 올라서자 다섯번째로 또 딸을 낳은 안해는 머리수건을 이마전까지 내려쓰고 하염없이 앉아있었지. 어린 딸애는 귀찮은듯 저만치 밀어놓고. 처녀의 아버지는 앓은 걸음으로 다가가 머리말에 씌워둔 포단을 들어 갓난애기의 얼굴을 보고나서 안해에게 말했다네.

《여보, 너무 상심마오. 딸이면 어떻구 아들이면 어쨌소? 딸자식도 잘 키우면 아들맛잡이라우.》

몸이 부한 산모는 그제서야 숙였던 머리를 들었다네.

《당신이 그렇게 여기니 됐군요, 어서 애 이름이나 지어요.》

처녀의 아버지는 딸애의 얼굴을 다시금 들여다보고나서 《장하고나 우리들은 힘찬 근로자 새 세기를 창조하는 승리의 주인》 하고 노래를 부르다가 무릎을 철썩 쳤다네.

《여보, 이 앤 5.1절날에 태어나지 않았소. 애 이름이 생각나오. 이제 내가 부른 노래는 로동계급을 내세워주시려고 우리 수령님께서 공장에 친히 시인과 작곡가를 보내시여 짓게 하신 노래요. 난 이 노래만 부르면 힘이 막 나오. 그래서 내 이노래제목을 따서 <오월>이라고 짓자 하오. 다섯번째 딸이라는 뜻도 있고 어떻소?》

아들 하나 낳지 못한 죄책감에 잠겨있던 산모는 부석부석한 얼굴에 방긋이 미소를 지었다오.

《이름이 좋군요. 부르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그럭히 힘차기도 하구...》

또 딸을 낳았다고 섭섭해할대신 오히려 자기를 위로하여주는 남편의 그 말에 처녀의 어머니는 눈가로 손을 가져가며 말했다오.

《여보, 우리 오월이를 아들못지 않게 잘 키우시다. 이 앤 이제 아버지처럼 비료공장을 떠메고 나갈 승리의 오월이 될거요. 어랍쇼. 그렇지 우리 오월인 승리의 주인이야. 허허허... 여보, 이름지은 값으루 나 술 한잔 주오.》

처녀의 어머니는 부엌에 내려가 술주전자를 들고와서 국사발을 잔으로 아예 한가득 부었다네.

처녀는 이야기를 마쳤네. 아버지의 병글병글 웃는 얼굴이 그려져서인지 처녀는 발그레 미소를 짓고있더군.

승규!

그 애길 듣고 가만있을수가 없더군. 한번 보지

도 못한 처녀의 아버지건만 그 초상이 방불히 눈에 어려들더라말일세. 그리하여 처녀의 아버지를 만나보고싶은 충동이 끓어번지더라구. 나는 말했네.

《오월동무, 동무의 이름은 천냥주고도 못바꿀 이름이요. 이름처럼 살기를 바라오.》

《호호호... 고마워요.》

눈은 처녀와 나의 어깨우에 소복이 내렸네. 처녀는 눈발속에서 잊을수 없는 추억의 노래를 떼더군. 바로 내 가슴속에 지울수 없는 인상을 남긴 노래 《승리의 5월》을 말이네. 나는 세번째 소절부터 처녀를 따라 입속으로 같이 불렀네.

...

자유기발 휘날리며 나아가나니
온 세계를 진감하는 단결의 웨침

...

노래는 눈내리는 자동차의 적재함우에서 점점 고조를 이루며 힘차게 울렸네. 처음에는 눈에 덮인 들길을 따라 쾌속으로 달리는 자동차의 엔진 소리에 놀리우던 노래가 겨울의 눈세계를 다 녹여버리려는듯 뜨거운 불의 도가니를 안고 울려 퍼졌네. 경리과의 나이지숙한 인수원이 부러운듯 창유리를 내리우고 몸을 기웃이 내밀고 우리를 뒤돌아보며 미소를 짓더군.

노래가 멎자 나는 노래가 주는 감흥과 동시에 이상한것을 감촉했네. 마음이 설레이더라말이야. 이름으로부터 시작하여 노래에 이어 처녀에게 마음이 가더라말일세. 바로 그러한 마음의 표시가 자전거에 가닿았네. 마침 자전거에는 공구주머니가 달려있더군. 나는 스파나와 도라이바, 뽀찌를 손에 엮바꾸어쥐며 자전거의 돌아간 손잡이를 바로 잡아놓고 제동나사도 조였네. 허허... 처녀가 자전거를 붙잡고 나는 일어서며 앉으며 자전거를 고치고... 그것도 눈을 맞으며 이따금 자동차의 덜컹거리는 《심술》에 넘어지지 말자고 서로 팔이며 어깨를 붙잡기도 하고,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는 처녀를 돕고싶은 마음의 진정이었네. 비료공장의 쾅쾅한 굴뚝이 바라보이더군. 우리는 갈림길에서 처녀를 배려했네. 처녀는 나와 운전사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는 자전거에 올라 홀연히 눈발속으로 사라지더군.

우리는 그날 도의약품관리소에 가서 의료기구도 받고 화학공장에도 들러 시약들도 얻어가지고 저녁무렵에야 료양소로 돌아왔네.

그날로부터 며칠 지난 어느날, 아침이었네.

료양소장은 자기 방으로 나를 부르더군. 소장은 갱끗한 얼굴에 어느때 없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있었네.

《성훈선생, 내 운전사동무한테서 그 약수처녀 얘길 두번째로 들었습니다. 밤에 잠이 다 안오더군. 창의고안을 하며 료양권을 받아쥐고서도 우리 료양소로 오지 못하는 아버지를 위해 약수를

받아가는 처녀를 그저 보고만 있겠습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더군. 나도 눈내리던 그날밤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잠을 설치며 뒤채이였었네. 그러다가 얼핏 눈을 붙인것 같았는데 처녀와 둘이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눈속에 나뒹구는 꿈도 꾸었다네. 소장은 안경너머로 나를 슬쩍 넘보며 흥분된 어조로 말했네.

《지금 비료공장에서 새 시비년도 비료생산에 들어가기 위한 대보수를 하고있는데 우리도 도와나섭시다. 도보전국에서도 어제 전화가 왔었습니다. 도적인 현지의료대도 무어보내려고 한다오. 그래서 난 성훈선생이 가는데 좋을것 같아서...》

소장의 말에 나는 기꺼이 응하였네. 나는 처녀의 아버지를 한번 만나볼 생각을 해오던터이고 또한 내가 소조원으로 일하던 공장병원에도 다녀오고싶었으니까. 그리고 말일세. 비료공장마을이면 동무의 고향이 아닌가. 대학시절 방학에 동무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의 각별한 대접을 받던 생각이 나더군. 동무의 어머니는 우리들에게 사슴뿔같이 다리가 길고 굵은 자계를 한소랭이 삶아 주었지.

그날 소장은 어느때 없이 기분이 좋았었네.

《곧 떠날 준비를 합시다. 약수를 수지빵통으로도 여러문통 그리고 병으로도 한 20상자 가지고 갑시다. 차차 보약제도 만들어...》

나는 어깨를 으쓱 추어올렸네.

《소장동지, 어쩌면 그런 통이 큰 생각을...》

《성훈선생, 통이 크게 일하는 비료공장에는 그래야 하오. 아까울게 뭐 있소.》

소장의 처사가 흠뻑 마음들더군. 나는 입을 다물줄 모르며 벅글벅글 웃었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젠 그 처녀 오월이가 자전거를 타고 약수를 받으러 오지 않아도 되리라는 안도감으로 해서 숨을 내쉬었네.

그 다음날 우리들은 소형빠스에 50리터통이며 약수상자들을 싣고 료양소정문을 나섰네. 의사며 간호원, 간병원들이 하얗게 나서서 손을 흔들어 주었네. 환송이 이려할전대 영접인사가 어떠했겠나. 소장이 출발직전에 도보전국에 전화를 걸어 서인지 공장정문에는 일꾼들이 나와 우리를 귀빈처럼 맞아주었네! 수인사를 끝낸후 나는 그 처녀에 대해 물어보았네. 그런데 대답이 그 처녀가 기계공장으로 갔다나. 섭섭하더군. 그렇지만 우리 몇걸음 걸지 않아 담벽처럼 긴 키높은 영에게 시판에서 처녀의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볼수 있었네.

미술가동맹의 재능있는 현역미술가들이 공장에 내려와 그렸다는 천연색사진같은 그림에서는 언제나 생기에 넘쳐있는 처녀의 성격적미가 생동하게 드러나있었네. 기쁘더군. 마치 처녀가 반겨주는것 같더라니까. 처녀는 잠시 공장을 떠났어도 자기의 모습은 공장에, 그리운 사람들속에 두고

있는것이였네.

현지의료실은 공장병원과 합심하여 합성직장의 방 세칸을 립시로 내여 꾸렸는데 정말 아담하더군. 창가에는 일일초꽃이 향기를 풍기고 현대적인 의료기구며 침대도 들어있고... 도인민병원과 구장애병원에서도 과장급의사들이 내려왔었네. 나는 고려약치로 전문의사들과 함께 광천치료를 말아했네. 노동자들이 좋아서 어쩔바를 모르더군.

그러면서도 아픈데 없다고 찾아와야지.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기대결으로 찾아가기도 했었네.

나는 소장과 함께 처녀의 아버지를 만나보았네. 김진세라고 부르는 처녀의 아버지를 찾아가니 반가와 팔소매를 붙잡고 놓지 않더군.

《이제 방송차에서 짹짹 울려나오는 말을 들었네. 이렇게 현장까지 의사들이 찾아오니 아픈것도 저절로 나을것 같구만. 어서 우리 작업반실로 가세.》

처녀의 아버지는 우리들을 노란 장판을 한 현장압축기작업반실로 데리고 갔네. 아늑한 살림집 같더군. 청자기꽃병에 생신한 국화꽃송이가 꽂혀있는 앉은뱅이책상우에 공학도서들이며 설계도면들과 계산자며 연필, 지우개, 콤팩스가 보이더군.

(듣던 말과 같이 대단하군.)

나는 놀라운 눈길로 처녀의 아버지를 쳐다보았네. 딸의 이름을 그처럼 대범하게 지은분이여서 더더구나 믿음이 가고 존경심이 갔었네. 그는 어서들 앉으라고 하며 《허허... 오월이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 인차 올걸세. 우리 오월이가 기계공장에 뭘 좀 가지라...》하고 그저 《오월이, 오월이》했네. 딸을 끔찍이도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였네. 우리는 향긋한 향수내가 풍기는 온돌방에 둘러앉았네. 료양소장이 약수를 잡수니 몸이 좀 어떤가고 묻자 아버지는 눈을 습벅이더군.

《난 처음엔 우리 오월이가 시간마다 고뿌에 딱끈하게 데워 부어주는 물이 무슨 물인줄을 몰랐었네. 그런데 글썽 점점 배가 편안해지지 않겠나. 위가 좋아지고 신경통증세가 덜어지구 허허... 밥사발 밑굽을 다 드러내구. 우리 오월이 수고도 수고지만 애길 들으니 소장선생두 의사선생두...》

김진세아바이는 근력이 좋아진것이 눈에 현듯했네. 처녀의 아버지는 그러면서 다시 딸의 사랑을 터놓았네. 앉은뱅이책상을 가리키며 오월이가 지금 자기가 하고있는 압축기의 3단공정 기름분리기의 개조를 다 도와준다고 했네. 원래 발기는 처녀가 했더군. 시간당 천립방의 압축가스를 더 내려는것이 처녀의 목표였다네. 시간당 천립방 더하면 압축기를 두대나 더 놓는것으로 된다네. 비료의 예비는 천립방 수자속에 무드기 감춰있었네. 하여 딸의 이 발기를 아버지가 발벗고나서...
현데 첫번째 시험운전에서는 실패를 했다네. 아

버지의 이야기를 흥미있게 듣고있는데 출입문이 열리며 이마에 땀이 번지르한 처녀가 배낭을 메고 들어서는것이였네. 처녀는 《아이 오셨군요.》하며 어찌나 반가와하는지 목직해보이는 배낭을 어깨에서 벗어놓고 우리들의 손을 잡고 막 뛰더군. 료양소신세를 하늘만큼 졌는데 언제 다 갚겠는가하고 하며 어떻게나 진정을 담아 말하는지 되려 미안쩍더군.

나의 눈길은 자꾸만 배낭에 가닿았네. 무엇을 가지러 기계공장에... 호기심이 부쩍 동했네. 현데 진세아바이가 풀어놓은 배낭을 보고 나는 그만 깜짝 놀랐네. 배낭에 들어있는것은 기계부속품이었는데 기름분리기의 부분품이라더군. 지난번 시험에서 균열이 왔던 부속이였네. 재질강도가 보장 못되었다는군. 하여 처녀는 공장대학선생을 찾아가 력학계산을 다시 해가지고 기계공장에 가서 가공해온것이네. 나는 부속품을 들어보았네. 무겁더군.

(아, 이 무거운걸 홀로 메고오다니!)

처녀가 대단히 돋보였네.

하지만 나는 그때도 처녀를 다는 모르고있었네.

다만 처녀의 심장의 박동을 따라 나의 심장도 함께 뛰기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었을뿐이네.

처녀는 앞이마에 차분히 젖어내린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며 그저 이웃공장에 잠시 다녀온듯 말없이 서있었네. 처녀의 아버지가 《네가 참 수고를 했구나. 이제 됐다 됐다. 이번에야 틀림없을테지.》하며 싱글벙글 웃더군. 그러자 처녀는 《아이참, 아버지두... 선생들이 계시는데...》하고 귀염성스럽게 눈을 찡긋하더군.

승규!

우리 의사들의 삶의 보람과 공지는 그 어디에 있나? 새삼스러운 질문같지만 난 요즘 이런 물음을 제기하고 스스로 즐거움에 잠기고 희열을 느끼네. 글썽 의사들이 기대결을 찾아가 병날세라 지켜서서 돌보니... 참 세상에 이런 나라가 또 어디에 있겠나.

약수치료는 이목을 끌었네. 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을 찾는데 웅근 이틀품이 들었네. 발생 직장, 질안, 뇨소, 류산... 직장마다 종업원명부를 들고 한사람한사람 짚어가며 겨우 찾은게 예닐곱명밖에 안되더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간 약수는 병치료목적으로보다 주로는 건강장수 보약수로 돌려졌네. 따끈따끈 덥혀주니 노동자들이 꿀물같다고 하였네. 아마도 이것은 우리 약수의 비길데 없이 월등한 라돈물만이 아닌 우리 제도가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혜택을 주는 거기에 있지를 않겠나. 생활은 그 무엇인가 이 시대 의사의 본분을 자각하게 하며 흘러갔네.

밤이였네.

도서관에서 빌려온 신간약학서적들을 보다가

밤늦게야 합숙호실로 들어선 나는 방안에 떠도는
류다른 꽃향기를 함뿍 느끼었네. 창가의 원탁우
에 꽃병이 있더군. 청자기꽃병에 노랗고 연분홍
빛나는 생신한 실국화 서너송이가 꽂혀있었거든.

깨끗이 정돈된 방안, 가지런히 놓인 책들...

꽃병에 눈이 자꾸만 갔네. 꼭 어데서 한번 본
것인데... 록두빛이 은근하게 나는 꽃병인데 구멍
이 송송나게 꽃무늬를 립체미가 나게 새긴것이였
네. 한참 뚫어지도록 보아서야 생각이 났네. 바
로 공장에 오던 첫날 김진세아바이의 그 압축기
작업반실에서 본 그 청자기꽃병말일세. 그날에도
꽃병에는 국화가 함뿍 피어있었거든.

(옳아, 이진 오월동무의 꽃이야!)

최고 부드러운 꽃잎우에 처녀의 모습이 어려들
더군. 그러면서 이상스레 마음이 설레더군. 나는
창가에 서서 달빛이 은은한 드넓은 공장의 가스
관들이며 증기관들과 비료탑들을 바라보았네. 그
러자 생각이 자연히 그 처녀에게로 달려가더군.
오월이는 지금 저 달빛이 흘러내리는 합성탑아래
에서 작업모를 가꾼히 쓰고 일하고있을테지 하고
생각하니 창가에 우두커니 서있을수가 없었네.
나는 옷걸이에서 작업복을 내리워입고 합숙호실
을 나섰네. 말하자면 국화의 향기에 끌려서말이
네.

아니나다를가 압축기장에 이르니 총조립을 다
그치고있었네. 오늘밤은 김진세아바이가 새로 개
조한 압축기의 3단공정 기름분리기를 설치한다고
했네. 이번의 기름분리기는 아바이의 일종의 《졸
업논문》격이라고들 했었네. 80년대초에 공장대학
을 나온 아바이는 기름분리기개조에 40년의 수리
공경험을 죄다 바쳤다 하네. 가스속에 끼여있는
기름찌꺼기를 고압조건에서 높은 속도로 분리시
켜처리하는것은 그만큼 시간당 가스생산량을 높
이는것이라네. 참으로 이것은 《귀신》같은 김진
세의 인생총화라고도 하더군. 나는 전투장에 뛰
어들었네.

오월이의 날렵한 모습도 사람들속에서 언뜻언
뜻 보이더군. 김진세아바이가 나를 띄어보고 다
가오며 《선생은 온 하루 직장들을 돌아다니며 수
고를 했을텐데 밤 편히 설게지.》하며 걱정하더군.
그래서 난 《아바이, 절 아직도 의사로만 보십니
까. 절 어제날의 소조원으로 여겨주십시오.》 하
고 말했네.

아바이는 껄껄 웃으며 나를 옆사람에게 소개하
더군.

《료양소선생입니다. 이번에 정말 수고를... 성
훈선생, 어서 인사를 나누세. 우리 오월이 공장
대학선생이네.》

선생은 서글서글 웃는 낯으로 나의 손을 뜨겁
게 잡아흔드는것이였네.

(아니, 대학선생두... 이밤에?)

나는 영문을 몰라 눈을 두리번거렸네. 후에 알

고보니 그 선생은 오월이를 따라 밤길을 걸은것
이였네. 기름분리기의 최종조립을 앞두고 력학계
산이며 설계도면의 완성을 위해 기술적지도를 준
선생한테 다시금 계산수치도 꼼꼼히 보여드리며
운전조작에서 있을수 있는 정황도 물으러 간것
이였네. 대학선생은 처녀에게 감심되었다네. 그
리하여 선생은 현장에 와서 진세아바이와 더불어
기름분리기의 조립에 달라붙은것이네.

진세아바이가 《의사선생 손은 약손》이라며 굳
이 나에게 전투장을 뜯겼을 권고했지만 나는 스
파나를 들었네.

밤은 깊어갔네. 오월이가 김이 문문 나는 등그
런 알루미늄통을 들고와 내앞에 내려놓았네.

젖소목장에서 보낸 우유통이였네.

처녀는 우유통 뚜껑을 열면서 말했네.

《오늘밤은 의사선생에게 선참 드리는데 어때
요?》

수리공들이 《거 참 좋은 생각이요.》, 《어서
드리오!》 하고 웅성웅성하더군. 단발머리 압축기
운전공처녀가 앞에 나서며 《어서 드세요!》 하고
오월이의 손에서 고뿌를 받아 나에게 주더군.
오월이가 눈을 짙게 흘리며 침을 놓는것이였네.

《애 청숙이, 너 오늘밤은 까불면 안돼...》

아마도 호들갑스러운 처녀인 모양이였네. 나는
감미로운 우유를 후-후 입으로 불며 마시고 고
뿌를 청숙에게 주었네. 청숙이가 나에게 말을 걸
어오는것이였네.

《우리 오월언니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진
제가 붙여준 별명인데 <산소>라고 불려요. 산소
를 알지요?》

나는 여처구니가 없었지만 룡조로 응수했네.

《청숙동무, 산소를 모를 사람이 어데 있소. 화
학기호로 산소분자 두개 O₂!》

그러자 청숙이는 내가 이렇게 대답하기를 기다
린것처럼 《맞았어요!》하고 바른손으로 동그라미
를 크게 그리며 《그 오들은 우리 오월언니의 이
름동그라미 두개가 아니냐요. 맞지요?》 하고 말
하는것이였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려오더
군.

《꼭 맞소! 참 청숙동문 고등중학교시절에 화학
박사로 불리웠겠구만. 응.》

청숙은 《네, 그런 별명은 못받았지만 5점은 언
제나 맞았답니다. 화학을 모르고서야 비료공장에
올 자격이 없지요.》 하고는 정색해서 자기의 진
심을 터놓는것이였네.

《보세요. 저기 공장 울타리밖 높은 산마루에서
끌어들이는 산소흡입관을... <H₂O>, <CO₂>...우리
비료공장은 산소가 없인, 동그라미가 없인 안된
답니다. 그런데 언니이름에는 산소가... 그래서인
지 오월언니는 약수만이 아닌 <산소향기>를 준답
니다. 꽃도 피워 온 작업반에 놓아주면서 오들을
말이에요!》

무척 명랑하고 기지가 있는 처녀였네. 나는 청숙이의 말을 곰곰히 새겨들으면서 (《산소향기》를 주는 처녀 《오월이!》) 하고 처녀의 이름을 입안소리로 불렀었네. 단발머리 처녀의 말이 옳았네. 처녀는 내 방에도 꽃의 류다른 향기를 주었으니까. 마음이 날듯이 흥떠지더군. 어찌 그밤을 잊을수가 있겠나.

획-획익- 창밖에서는 눈바람이 터지더군. 하지만 기세들은 하늘을 찌를듯했었네.

작업이 마감고비에 이른 그무렵, 노래소리가 들리더군. 가장 어려운 때도 노래를 부르며 난관을 이겨내고 가장 기쁜 날도 노래를 부르며 기쁨을 서로 나누는 사람들이었네. 노래소리는 겨울밤의 눈바람소리를 누르며 밤하늘에 울리어갔네.

...

동무들아 이 기세로 굳게 뭉치여
인민경제계획을 승리로 맺자

나도 목청껏 노래를 불렀네. 혈관에서 피줄이 툭툭 뛰더군. 이 뜨거운 사람들속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살고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이었네.

그 다음날이었네.

그날은 아침부터 온 압축기작업반이 명절날처럼 들끓었네. 오월이의 압축기 3호기대에서 시간당 천립방의 가스를 더 짼어내는 (여기서 가스를 짼는다고 하네. 피스톤의 운동을 두고 말하네.) 기적이 바로 아버지와 딸에 의해 일어나니 말일세. 이날 나는 의료실에서 안절부절 못하였네. 대보수운전시험이 끝나면 우리 일도 끝나기에 치료분석자료들을 종합하는데 어디 일손이 잡히던가. 하여 오월동무의 3호기대엔 두번이나 갔다왔었네. 그처녀의 압축기조작대우에 꽃병이 놓여있더군. 나는 괜히 울렁거리는 마음을 안고 창가에서 서성거리었네.

드디어 주전동기스위치를 넣는 《부-웅》 하는 웅글은 소리가 들리더군. 나는 숨을 조이었네. 이 시각 고압가스압축기를 담차게 운전하는 처녀의 모습이 창가에 비껴들더군. 잠시도 한자리에 서있지 않으면서 1단으로부터 6단으로 고압가스를 짼는 처녀의 긴장된 눈빛을 마주 보는듯했네. 압축기의 동음소리는 고르로이 들려왔네. 성공인듯 싶었네.

그때였네. 갑자기 사람들의 쿵북듯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었네. 나는 문을 박차고 나가 계단을 뛰어내렸네.

(아, 이 일을 어쩌면...)

압축기장으로는 뽕안개와 같은 가스가 새어나오고있었네. 압축기장 문이 열리며 진세아바이가 서너명의 수리공들과 함께 가스에 질식된 오월이를 안아들고 나오고있었네. 나는 황급히 다가가 처녀를 맞들고 의료실로 올라왔네. 처녀를

침대에 눕히고 긴급대책을 세웠네. 강심제며 가스해독주사들을 놓고 포도당점적도 시작했네.

맥박이 가늘게 뛰더군. 안도의 숨이 나갔었네.

수리공들의 말에 의하면 일은 이렇게 벌어졌더군. 한 30분가량 이상이 없던 기름분리기에서 그만 《씩-씩-익》 하며 가스가 새어나왔다네. 가스는 물총을 쏘듯이 터져나오며 삽시에 뽕안개 가스연막을 쳤네. 진세아바이가 주전동기 스위치 켜라고 버락같이 소리지르며 기름분리기로 뛰어가려 했네. 그때 처녀는 진세아바이를 막아섰다네. 처녀는 진세아바이를 밀어버리고 발브를 향해 육박했었네. 첫순간 그는 숨막히며 기침을 찾게 되며 밀려났다네. 하지만 처녀는 끝내 뚫고 들어가 발브를 힘껏 틀어돌리고 그만 그우에 몸을 덮었네. 발브는 부르르 몸을 떨다가 멎고 압축기는 처녀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따라도는듯 웅-웅 더 세차게 돌고돌았네.

진세아바이는 사색이 되어 처녀의 침대머리에 꿰어앉더군.

《애야, 이 일을 어쩌면 좋냐. 응, 내앞을 막아서다니. 너의 아버지앞에 내가... 내가 정말 면목이 없게 됐구나, 면목이. 승삼이 이 사람, 내가 잘못하였네.》

그찰나 나는 하마트면 손에 들고있던 주사약통을 떨굴뻔했었네. 나는 귀에 걸었던 마스크를 급기야 벗어들고 《네?!》 하고 가뜰이나 큰 두눈을 더 크게 떴었네.

(그럼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란 말인가. 세상에 어쩔 이런 일도...)

가슴을 막 두드리고싶더라니까. 나의 놀란 얼굴표정을 띄어보고 진세아바이가 일어서며 《영?!》 하고 눈을 깜빡이더군. 녀의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의식을 차립니다. 모두들 밖으로 나가주세요. 환자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했네.

나는 진세아바이와 함께 의료실을 나섰네. 압축기장 바깥의 란간에 서서 진세아바이는 내 손을 으스스하게 틀어쥐며 말했었네.

《내 짐작이 가네. 자네들은 날 오월이의 친아버지로 안계로군. 오월이가 나를 보고 <아버님> 이라고 부르니 처음 오는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여긴다네. 그런데 내가 아버지구실을 못하지. 그애 아버진 내 친구였는데 6년전에 시비년도비료생산 마감전투를 나홀 앞두고 현장에서 압축기를 운전하다가 그만 순직했다네. 아, 저 애가 나를 위해 것처럼 밤잠도 잊고 끼니도 때로는 건느며 뛰어다니다가 저렇게... 마음이 좋지 않군. 참말로 저애 아버지가 이름을 잘 지었지. 우리 로동자들의 오월이라니까!》

진세아바이의 우묵한 눈굽에 눈물이 그들먹이 고이는 것이었네.

승규! 그때의 내 마음을 어떻게 다 말하겠나.

관자노리가 푸들푸들 마구 뛰더군. 나는 한동

안 아버지의 곁에 그저 묵묵히 서있었네.

약수, 자전거, 기계도면, 꽃병, 기계부속품배낭이 엮바뀌며 눈앞으로 어려들더군. 그리고 구슬같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처녀의 얼굴이 말일세.

(자기 아버지도 아닌 자기 작업반의 압축기수리공을 위해 그러렴!... 오월이! 너는 과연 어떤 처녀이기에 그렇듯 불길같이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마음을...)

아버지의 눈에서도 맑은 이슬이 점점이 떨어졌네.

이날 나는 처음으로 처녀의 집안 애길 들었네.

그 처녀의 집을 오래전부터 《딸부자집》, 《압축기운전공집》이라고들 불려왔다네. 언니들이 압축기를 운전하다 하나둘 시집을 가며 《딸부자집》이라는 이름은 사라져가도 처녀가 혼자 남게 된 오늘날까지도 《압축기운전공집》이라는 이름은 더 자랑스레 불리운다네. 처녀의 나이가 스물여섯이 되는 이해에 와서 평양이며 원산 등 도시에서 언니들이 저마금 편지를 보내오며 대학교원, 과학원연구사, 학사... 이렇게 끝끝한 총각들을 대상으로 선택할것을 독촉했다네. 하지만 처녀는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네. 아버지가 잡던 기대를 끝까지 잡고 한생을 압축기와 함께 살겠다고 말이네. 가슴이 파도치듯 뛴뛴하며 부글부글 끓어올랐네. 눈앞으로는 압축기앞에 초병처럼 선 처녀의 모습이 크게 확대되어 안겨왔네.

아, 오월이!

구름발같은 파도형의 머리며 실박한 곡선미를 이룬 두어깨 그리고 가름한 그 얼굴에서 흑진주같이 번뜩이는 눈동자며 아침과 같이 싱싱하게 피어나는 미소... 그 진함이 없는 열정에 그 누가 반하지 않으랴!

처녀에게 하고싶은 술한 말들이 뇌리에 갈마들었네.

며칠뒤 처녀는 씻은듯이 나왔네. 하여 나는 처녀를 찾아갔네. 방긋이 웃어반기는 처녀에게 내가 먼저 한 말은 이러하였네.

《오월동무, 난 지금까지 진세아버이를 동무의 아버지로 잘못 보았소. 참 어찌면 그렇게 친아버지처럼...》

나의 목소리는 저으기 떨렸네. 하지만 이때 처녀의 대답이 어떠했는지 아나. 처녀는 머리를 가로 젖는것이였네.

《아니, 옳아요. 잘못 보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옳아요!》

처녀는 눈곱에 손을 가져가더군. 어깨를 가버이 떨면서 처녀는 나직이 입을 열었네.

《몇해전이었어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녀가신 우리 비료공장에 찾아오시었어요. 지도자동지께서는 저의 아버지가 다루던 압축기앞에 이르시여 기대를 아주 잘 다

루었다고 치하하시었어요. 김진세아버님이 그때 저의 아버지애길... 지도자동지께서는 참 가까운 동무를 일찍 잃었다고 못내 서운해하시며 동무를

보니 우리 수령님께서 <미더운 동무>라고 치하하신 승삼동무를 보는것 같다고 승삼동무처럼 비료공장의 심장부를 이루는 합성직장의 압축기를 아끼며 만부하로 돌려 비료로 쌀로 우리의 사회주의를 더욱더 빛내자고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대요.》

처녀는 가슴노리에 두손을 끌어올리며 부르짖듯 걱정애 넘쳐 말하는것이였네. 그 맑은 구슬같은 목소리에는 그 얼마나 깨끗한 진정이 어려있던지 나는 그만 《아!》 하고 한참은 입을 크게 벌렸네. 어느새 나의 눈곱도 축축히 젖어불더군.

(그래 그렇구말구. 아버지야. 우리의 전세대 그분들은 모두 아버지야. 그리고 너 우리 로동계급대가정의 딸, 우리 수령님 우리 지도자동지의 효녀야.)

나는 내가 어느새 처녀를 사랑하고있다는것을 느끼었네.

승규, 나의 이 감정을 리해할테지. 쌍수를 들고 동의할테지. 이런 처녀를 사랑하지 않고 그 어떤 처녀를 사랑하겠는가. 이런 처녀와 함께라면 이런 크나큰 심장을 지닌 처녀와 함께라면 이 세상 가지 못할곳이 없고 저 하늘에 올라 별도 따내리울듯싶기에. 나는 환희에 잠겼네. 이 세상 최고의 행복을 내가 죄다 안은듯싶었네. 현대 문득 마음한구석에 과연 내가 이런 자랑스러운 처녀를 사랑할수 있을까 하는 위구 비슷한 느낌이 오더군. 처녀는 아득히 높은곳에 서있는데 나는 아직 채 녹지 않은 얼음버캐들이 웅크리고있는 이른봄의 골짜기에서 처녀를 바라보고있는것 같았기에.

그렇지만 나는 이런 열적은 번민을 털어버리고 처녀를 만났었네. 의료대의 일도 끝나 래일 아침 료양소로 돌아가야 하므로 나에게 지울수 없는 추억을 준 처녀에게 고마운 인사를 하고 떠나고저.

살이 오른 불그레한 길동근 달이 하늘가에 비스듬히 걸려있는 겨울밤이였네. 나는 처녀와 함께 비료생산의 동음이 장엄하고 둔중하게 울리는 동해바다가의 백사장을 거닐었네. 바다바람은 우리 두사람의 외투자락을 가버이 날리고 파도는 기슭에 하얀 천필을 끊임없이 펼치고있었네.

진작 처녀와 함께 걷노라니 미안한 생각이 불쑥 들더군.

승규!

이 편지의 첫장들을 더듬어보게. 처음에 내가 처녀를 어떻게 대하였나. 《탐방객》차림으로 길이 바쁘다고 처녀가 묻는 말도 통명스러운 어조로 무뚝뚝하게 대답하지 않았댔나. 사실 처음 나는 처녀를 숙보았거든. 얼굴이 붉어지더군. 하여

나는 정식으로 처녀에게 사과했네.

《오월동무, 내 동무를 처음 만나던 날 잘못했소. 이제라도 라돈의 미량원소…》

내가 이렇게 말을 더듬자 처녀는 《아이, <할아버지>두… 호호호…》 하고 깔깔 웃는게 아니겠나.

《뭐요? 할아버지, 그래 옳았소. 할아버지가 하하…》

우리 두사람은 배를 그러쥐고 웃었네.

참 갑작스럽게두. 그 처녀는 나의 탐방객차림을 잊지 않고있는것이었네. 처녀는 밤바람에 앞가슴으로 흘러내리는 목수건을 뒤로 젖히며 말했네.

《성훈선생,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지요 뭐. 그 바쁜 길을 더디게 하다니. 난 그날 룡양소소장선생님한테서 다 들었어요. 그리구 성훈선생이 그처럼 큰 일을 한다는것도 말이에요. 참 진세아버님이랑 여러 로동자들이 이번에 라돈약수덕을 톡톡히 봤어요. 어서 완성하기를 바래요. 우리 로동계급이 관심을 가지고있는 학위론문을 말이에요.》

처녀는 진심으로 말하더군. 나는 처녀의 말을 듣고 그밤 또다시 감복했었네.

뭐, 그처럼 큰 일을?! 우리 로동계급이 관심을 가지고있는 학위론문을!

눈시울이 파르르 떨리고 가슴이 향기로운 꽃을 안은것처럼 흥그려워지더라말일세. 아, 과연 그 누가 시대앞에 지닌 의무를 리행하려 모대기며 큰일을 하는것인가. 꽃과 같은 마음을 가진 처녀는 이밤도 나의 곁에서 국화꽃의 그 짙은 향기를 풍기는것이었네. 사랑의 감정이 파도치듯 일어번지더군.

하늘은 높고 검푸르렀네. 그 한가운데 둥실 뜬 달이 우리 두사람에게 한껏 은은한 빛을 뿌려주었네. 그리고 그밤에는 내 나서 처음 보는 희한한 광경이 거대한 하늘에 새겨져있었네. 그것은 은하수였네. 금은보석을 한배 가득 실은 하늘의 달배가 쉬임없이 금보석 은보석을 내려뿌리듯 은하수가 원경을 지으며 펼쳐진것이었네.

처녀는 은하수를 바라보며 환성을 울리더군. 그땠 꼭 천진한 소녀같더라말일세.

《저것 봐요. 은하수가 꼭 우리 공장 비료폭포 같지요. 야-참, 어쩌면 신통할까요?!》

처녀의 눈빛은 그대로 별빛이었네.

《뭐-요? 비료폭포?!》

나는 되물으며 은하수를 바라보았네. 그런데 글썽 두 마음이 꼭 같아서인지 내 눈에도 꼭 그렇게 보여왔거든.

《바로 보았소. 꼭 비료폭포요!》

나는 흥뜬 목소리로 빙글빙글 웃으며 말했다네.

처녀는 은하수를 잡으려는듯 바른손을 쭉 퍼들

며 《호호호…, 은하수비료폭포, 비료폭포 은하수!》 하고 시를 읊듯 부르짖는것이었네.

그러자 처녀의 말을 확인이라도 하듯 겨울의 웅심깊은 하늘에서 은하수의 하얀 비말들이 폭포가 되어 찬연히 뿌러지며 내리는것이었네. 그 금은보석같은 알갱이들은 차거운 겨울의 대기속에서 이상하게도 조화를 부리는듯했네. 새싹은 파릇파릇 돌아나고 거뭇한 푸른 곡식들이 우썹우썹 자라고 황금의 대지가 내 조국의 하늘아래 설레이는것이었네. 그 금나락 물결치는 들가에 서서 바로 처녀는 만풍의 대지를 거머쥔 기쁨을 안고 흰 이를 드러내며 복스러운 웃음을 짓고… 그것은 환영이 아니었네. 눈앞에 비껴든 산 현실이었네. 우리는 나란히 미소를 지으며 걸었네. 달빛은 우리 두사람을 거인처럼 만들어 백사장에 그림자로 새겨놓더군. 끝없이 마음이 울렁거리더군. 오늘같은 이밤에야 어서 말을 해야지. 심장속의 그 말을 해야지.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밤하늘의 달이 초조히 굽어보고 파도가 새겨들으려고 제 목소리를 낮추는듯싶었건만 말이 어디 나가야지. 두입술에 빗장을 가로지른듯 가슴만 공연히 뛰며- 하여 나는 별수 있나, 처녀가 그토록 사랑을 담는 은하수에 나의 진정, 편정을 얻을수밖에.

《오월동무, 잊을수 없는 밤이요. 난 언제나 이 겨울밤의 은하수아래 서있고싶소!》

처녀는 은하수에 고운 눈길을 가져가며 방긋이 웃고있었네.

《고마워요. 그럼 언제 다시?》

《은하수가 비길 때 다시!》

《오세요. 은하수는 언제든 비길테니까요!》

처녀의 눈에 이슬이 맺히며 번뜩이었네.

아, 가슴이 풍선처럼 부풀어오르더군. 나는 최상의 행복, 무상의 희열에 잠겼었네. 처녀와 함께 가는 그 길이 이 나라의 청춘들이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길이 길이 모셔가는 효자의 길이기예…

나의 영원한 벗 신승규!

편지를 이만 끊으려네. 이것이 지나온 나의 생활의 한토막이네. 고마운 나의 벗, 그런데 자넨 뭐 이제라도 돌아서라고? 아니 난 돌아서지 않으려네.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을 따라 현실속으로 로동계급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그들과 생사운명을 같이 하려네. 나의 새로운 길동무 오월이와 더불어 우리 로동계급의 심장을 더 활력있게 뛰게하는데 나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려네. 자, 그만 편지가 길어졌네. 동무의 귀여운 아들에게도 축복을! 그럼 부디 안녕히!

×

나의 가장 친근한 벗인 박성훈의 편지는 여기서 끝났다. 하지만 편지에는 보이지 않는 글발들

이 많았다. 그 글밭들은 그의 뜨거운 열정의 숨결로 시대의 메아리로 내 가슴의 흥벽을 쳤다.

(아, 성훈이, 동무가 선택한 길이 옳았어.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었어.)

나는 숨박히는 듯한 가슴을 부여안고 수도의 나의 집 창가에 서있었다. 그날따라 은하수는 하늘가에 찬란히 비껴있었다. 그 눈부신 은하수에서

나는 아직은 만나보지 못하였지만 그 열풍마저 선히 그러지는 김오월이와 박성훈 두 청춘남녀의 행복한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다정히 부르는 《승리의 5월》의 노래곡조도 들었다.

나의 가슴은 드디어 그들처럼 환희로 설레이었다. 그때라 류성이 길게 포물선을 그으며 은하수를 향해 날아가고있었다.

돌이 귀하여라 외1편

량덕모

손에 닿으면 차갑고
눈에 보이면 시끄럽던 돌이
이제는 만질수록 정이 붙고
나날이 귀하게 여겨질줄이야

지난 세월
엮어져도 넘어져도
부딪치는것이 돌이어서
돌모루 돌박산 돌담집...
그 이름도 돌로 시작되던고장

못사는것의 죄명에 놀리워
세월의 이끼를 들쓰고 숨도 못쉬던 그 돌들
언제부터인가
쓰이는데가 많아져
등너머 먼데서까지 실어오게 된것이

새 제방을 넓히며
랭습지 물끓을 썰며...
여기서도 돌을 찾는 소리
저기서도 돌을 부리우는 소리
그 소리의 여운을 타고
이 가슴을 다시 울려주는 그 음성

무덕무덕한 돌무지를 바라보시며
돌이 많다고 타발하지 말고

화를 복으로 전면시키라던
어버이장군님의 가르치심이어!

못잊을 그날의 가르치심대로
보기도 싫던 돌을 주어
제자리를 찾아 앉힐수록
탐탐하고 빛이 나
쓸어만주고싶은 이 마음

누가 와도 자랑하고싶어라
아득히 뻗어간 강변의 제방이며
뒤동산의 사태막이 웅벽들을...
문화주택사이로 휘여든
돌포장길은 또 얼마나 멋진가

아, 내 나라 강토의 막돌 하나도
누구보다 중히 여기시는
우리 장군님의 뜻이 어려
내 고향의 돌은 이리도 은을 내거니

버리면 버릴수록 화가 되고
후손만대 래일을 위해
쓰면 쓸수록 복이 되는 돌
이 돌들을 떠나
내 따로 금덩어리를 찾지 않으리라!

꽃버들

봄별이 재롱이는 발머리따라
흙 한줌 비물에 씻겨내릴라
정성스레 꽃버들 심는 처녀야

보든말든 봄은 사랑 다 기울이는
네 마음이 그대로 꽃버들이나
꽃버들이 그대로 네 마음이나

아, 해마다 봄마다 네 모습처럼
버들잎은 푸르고 고운 꽃 피여
풍년드는 이 땅을 젊게 하려니

무정한 세월은 너에게서
처녀시절 꽃시절은 실어가도
땅에 쏟은 그 사랑은 식히지 못하리!

애국림을 바라보며

류동호

해쓷는 아침의 나라 사회주의 내 조국 강산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낙원으로 가꾸는 우리 시대의 주인공들을 찾아떠난 나의 발길음은 운송마을에서 멎었다.

구름우에 솟은 소나무마을이라 하여 《운송》이라고 하였는데 소나무는 몇그루 찾아볼수 없었다. 대신 잣나무가 무성한 숲에 《애국림》이라는 글발이 나의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서 나는 당세포의 분공을 받고 한생을 바쳐 이 숲을 가꾼 한 로당원-《잣나무할아버지》(마을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에 대한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리당일군의 목소리도 뜨거움에 젖어있었다.

흔히 분공이란 받은 때에 수행하고 집행하였다고 보고하군한다. 그렇게 하면 그 분공에 대한 당원의 의무는 끝난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나는 처음 받은 분공을 스스로 자기의 고정분공으로 받아안고 근 43년간을 성실하게 수행해온데 대해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나는 한 당원의 참된 당생활, 그의 참된 한생의 자욱이 깃든 《애국림》앞에서 범상하게만 생각해온 분공에 대한 깊고도 뜨거운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전쟁이 끝난 그해, 운송마을 세포위원장의 반토굴집에는 다섯명의 당원들이 모여앉았다. 그들은 승리한 마을을 어떻게 꾸릴것인가에 대해 토의했다.

세포위원장은 먼저 집부터 다시 짓자고 하면서 폭격에 넘어진 소나무를 끌어내려 미국놈들이 보관듯이 번듯하게 새 집들을 짓고 온정덕의 그 자리에는 소나무대신 열매도 주고 나무도 주는 잣나무를 옮겨 심자고 했다.

나무를 심기에는 너무도 할일이 많고 너무도 간고했던 그 시절이었으나 승리자들의 넓은 도량은 미래를 생각하였으며 세포위원장의 그 제의는 곧 당세포의 결정으로 채택되었다.

그 분공을 박동무가 스스로 맡아나섰다.

목표는 200그루, 너무도 아름다운 분공이었다.

포화에 모든것이 불타버리고 폐허가 된 산천에 그 어디에 잣나무모가 있었으랴.

허나 박동무는 주저않지 않았다. 그것은 다른 아닌 조국앞에 지닌 당원의 의무를 수행하는 길, 후대들에게 물려줄 조국의 만년재부를 마련하는 길이었기때문이었다.

박동무는 이곳에서 한그루 두그루, 저곳에서 또 세그루 네그루 이렇게 어린 잣나무를 찾아내

여 땀흘려 옮겨심었다. 그리하여 분공은 수행되었고 분공안에는 《집행》이라는 두 글자가 기록되었다.

그러나 분공집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 이듬해에도 박동무는 스스로 산림보호원이 되어 휴식일마다 또 짬시간마다 산발을 타고 오르내리며 빈자리를 찾아 잣나무를 떠다심었다.

스스로 찾아하는 일감은 할수록 더 많아지는 법이다.

박동무는 잣나무를 떠다심으면서 그 사이에 머루와 다래, 찔썩이를 비롯한 열매나무들과 오미자, 도라지, 드릅 등 약초들도 옮겨심었다.

이렇게 날과 달이 흐르는 과정에 마을에는 협동조합이 조직되었고 박동무는 분조장, 반장을 거쳐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박동무는 당세포에서 맡은 분공을 그 어느 하루도 잊은적이 없었고 마음의 탕개를 늦춘적이 없었다. 그 누구도 그에게 그때 받은 분공에 대하여 상기시킨적은 없었으나 박동무는 그것을 자기가 조국앞에 후대들앞에 스스로 지닌 의무로 생각하였으며 그 일에 자기만이 아닌 안해와 아들 딸 온 가족을 동원시켰다. 그 마음에 감동되어 온마을이 떨쳐나섰다.

세월은 흘렀다. 모든것이 변했다.

막을수 없는것은 세월의 흐름이라 그 세월의 흐름속에 분공을 준 세포위원장도 먼저 가고 전승의 그날 반토굴집에 모여앉았던 다섯명의 당원들중 남아있는 당원은 오직 한사람 박동무뿐이다.

그도 이제는 늙었다. 전승의 그날에는 혈기방장한 청년이던 그의 머리우에 이제는 흰서리가 내렸고 70이 넘은 그에게 이제는 손자, 손녀애들만 하여도 한구들 가득하다.

하지만 박동무는 매일 산에 올라 나무를 가꾸는것을 어느 하루도 그만둔적이 없으며 그 일에서 남은 여생의 보람을 찾고있다. 하여 그는 동네아이들과 마을사람들속에서 《잣나무할아버지》로 불리우고있다.

성실한 노력에는 언제나 풍성한 열매가 따르는 법이다.

40여년전 한 당세포가 모여앉아 전승의 환희속에 마음속으로 그려보며 설계했던대로 운송마을에는 네귀번듯한 기와집이 줄지어 들어앉았고 온정덕에는 키높은 잣나무들이 알찬 열매를 자랑하며 빼곡이 들어 섰다.

기슭을 따라 돌아보아도 굽을 따라 들어가봐도
마음 흐뭇한 산촌의 풍년작황이 가슴벌게 안겨
온다.

소소리높은 잣나무꼭대기에는 잣송이들이 좌락
좌락 달려 절 좀 보라는듯 바람에 설레는데 그
바람결에 들크무레한 머루와 다래 향기가 실려와
폐부를 자극한다. 찔팡이와 오미자는 빨강게 익
어수집은듯 얼굴 붉히고 약초밭에서는 하얀 백도
라지들이 이랑이 좁게 들어섰다.

아름다운 경치, 풍성한 열매...

잣나무림, 약초밭, 런던히 뻗어간 수려한 산천
경계에 취하여 돌아보니 무엇이랴 이름할수 없는
뜨거운 걱정이 가슴을 꿰인다.

산천경개도 장관이고 열매도 장관이다.

한 당원이 자기의 한생과도 같은 40여년동안을
고향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바친 그 성실한
노력이 풍요한 열매로 주렁진것이다.

세포회의록에 단 한줄로 기록되었을 그 분공,
그해에 집행하고 보고한 그 분공을 자기 량심에
글발처럼 새겨넣고 스스로 집행하고 해마다 총화
하며 한생을 살아온 한 평범한 당원.

나는 가슴속에 되새겨보았다.

분공- 이 한마디속에 그 얼마나 깨끗하고도 참
된 한 당원의 한생이 숨쉬고있는가.

분공- 이 평범한 말속에 깨끗한 량심의 씨앗을
묻고 성실한 노력으로 열매를 가꾸며 고향의 산
천을 꽃피운 한 당원의 성스럽고 고귀하고 아름
다운 삶의 자욱자욱이 비껴있고

분공- 이 부름속에 한생을 변함없이 우리
경애하는 장군님 이끄시는 당의 위업을 심장으로
받들어나가며 사회주의 내 조국의 번영과 부강
을 빛내어나가는 우리 수백만 당원들의 뜨거운
충성심이 불타고있다.

뿌리는 땅을 그러안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
게한다. 그 열매는 만사람에게 기쁨을 주며 이
땅에 행복을 준다.

지심깊이 땅을 뚫고 바위를 가르며 뻗어내리는
그 억센 뿌리처럼 심장으로 조국을 그러안고 우
리당을 받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당원들이고
우리 인민들이다.

재가루만 날리는 폐허우에서 더욱 번영할 조국
의 래일을 생각하며 불타버린 산에 나무를 심어

가꾸고 준엄한 《고난의 행군》길에서도 웃음으로
만난을 이겨내며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

이렇듯 깨끗하고 순결한 량심을 지닌 사람들,
이렇듯 뜨거운 심장을 지닌 사람들이 우리 장군
님을, 우리 조국을, 우리 사회주의를 받들고있
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승리의 비결이고 래일의
행복의 담보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조국의 산천을 뒤덮은 수림
이 영원히 푸르르듯이 우리의 앞길은 밝고 휘황
하며 그 길에는 승리와 영광, 행복만이 약속되어
있는것이다.

나는 소리높이 웨치고싶다.

사람들이여,

이 나라 그 어디를 찾아가든 산천경개에 매혹
되기전에 먼저 그것을 가꾼, 거기에 깃든 애국의
마음을 헤아려보시라.

이 나라 산천에 한그루 나무, 한포기 풀이라도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땀으로 자기가 가꾸라.

그 언제 그 누가 먼저 이름지었는지는 모르지
만 《애국림》이라는 친근한 이름으로 불리우며 푸
르려 설레이는 운송마을의 무성한 잣나무림, 한
평범한 당원의 참된 노력과 고귀한 한생을 안고
설레이는 푸른 숲...

그 잣나무림, 아니 이 나라 어딜 가나 무성해
지는 그 숲속에 나도 한그루 나무가 되리라. 그
것도 해마다 열매를 맺는 나무가...

40여년, 덧없이 오고가는 세월의 그 하루하루
에 충성의 당생활을 기록하며, 피로 지킨 고귀한
이나라 산천에 깨끗한 량심의 자욱자욱을 남기
며 한길을 걸어온 그 길을 나도 걸으리라. 그치
럼 나도 말없이 조국을 받들고 우리 당을 받들며
사심없이 자기를 바쳐가리라.

그리고 심장으로 뜨겁게 내 조국을, 우리 당을,
경애하는 장군님을 노래하리라.

나는 오늘도 내 조국의 어디서나 묵묵히 푸른
숲을 가꾸며 자기의 한생을 바쳐가고있을 무수한
《잣나무할아버지》들을 찾아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울창한 잣나무림속에서 보이지 않는 한 당원의
한생이 비긴 그 성스런 삶의 자욱자욱에 조심하
나의 작은 발자욱을 따라세우며...

녀성의 노래

정은옥

비쳐보는 모습

내 녀성임을
사뭇 깨달을 때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나를 비쳐보게 하는
더없이 고결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쩌면 녀성이 지녀야 할 모든것
인정미도
강직함도
그리고 또 소박함도
고스란히 다 지니신 김정숙어머님

때없이 거울앞에 서면
가리마 곧게 빗으시던
어머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여 내 머리칼 오리오리
정히 빗고빗는 마음입니다

부엌에서 밥을 지을 때도
어머님의 작식터가 먼저 생각납니다
산나물을 맛있게 무치시던
그 알뜰한 솜씨
하여 내 만든 식찬의 간맞춤도
다시 한번 더 가늠해보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입니다
내 동지들을 위해 마음쓸 일 있을 때

불처럼 뜨겁던
어머님의 손길을 먼저 놓아봄도
때로 어려운 일감을 말아안을 때
저도 모르게 도천리의 그 마을길을 더듬어봄도

진정 그 마음입니다
내 웃음을 지어도
어머님처럼 밝게 짓고싶고
노래를 불러도
어머님처럼 씩씩하게 부르고싶은
아. 이 진정, 이 뜻은...

내 사는 하늘아래 땅우에
어머님 그 모습보다
더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모습은 다시 없기에
우리 혁명이, 우리 인민이
녀성의 귀감으로 높이 받든 김정숙어머님

그 아름다움에 있어서
그 빛남에 있어서
이 땅의 녀성들모두를 합쳐도
정녕 대신못할
아, 어머님의 그 모습은
녀성으로 태어난 우리들모두-
누구나 비쳐볼 모습입니다
한생을 우러러볼 해님입니다!

내 바라는것은...

붓을 들며
내 바라는것은
녀성의 이름으로 부르는 나의 노래
들꽃처럼 무한히 소박했으면

하여 그 시줄마다에
다정한 내 어머니 내 동생
살뜰한 내 녀동무들
들꽃처럼 송이송이 피어났으면

불밝은 창가에 피는 그들의 웃음
고향들판에 뿌려지는 그들의 땀방울
그 모든것들과 더불어
그들의 숨결이런 평범한 날들이

내 시줄에서 아름답게 향기 풍겼으면

하여
이 땅과 운명의 숨줄을 잇고
적은 힘 다해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며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미는 그네들
그 장한 모습들이
조국의 시화원에 싱싱히 피어났으면

더 바랄것 없으리라
한송이 들꽃같은 나의 노래도
장군님 따르는 이 나라 녀성들
그 아름다움의 메아리를 더해주는

한가닥 고운 청으로 높이 올리리니
한껏 푸르른 조국의 하늘아래

더욱 만할발 조국의 시화원에
활짝 피어서 지지 않을
아, 나의 들꽃, 나의 노래여!

어머니의 영웅메달

심심벽촌의 내 어머니 가슴에
영웅메달이 있습니다
일곱자식을 안아키우며
그리도 자그마해진 녀인의 가슴에
이 나라 국민의 최고영예인 금별이 있습니다

내 어머니
늘 옷장속에 간수하더니
남녀평등권법령발표의 기념일엔
흰적삼우에 선뜻 없고나선
영웅메달

내 어린 날엔 다 몰랐습니다
이슬젖은 치마폭을 질끈 동이시고
늘 벌에 살던 어머니
그 흘린 땀에서 차레진
응당한 보수라고만 생각했던 그 메달

이제는 나도
머리엿을 녀성이 되고보니
참으로 생각 깊어집니다
결코 바친 위훈으로만 받을수 없는것
내 작은 가슴에도
형언못할 무게를 실어주는 그앞에

그저 메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정들과 어깨나란히
세상을 향해 나선
이 나라 녀성들의 자랑스런 모습입니다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억세게 떠미는
우리들 조선녀성의 떳떳한 권리입니다

아, 가슴 벽차웁니다
섬약한 녀인들의 가슴에
장부들도 쉽게 없을수 없는 금별을 얹어준
내 조국의 크나큰 믿음앞에
그 뜨거운 사랑앞에

내 더 말해 무엇합니까
오늘날 이 나라 녀성들이 누리는
모든 참된 권리도
모든 꽃같은 웃음도 가득 실린 이 메달
이 세상에 녀성이란 떳떳한 이름으로
어머니 가슴우에 지닌 이 금별

아, 진정 이 메달앞에서
무슨 말을 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수령님 안겨주시고
위대한 장군님 꽃피워주시는
우리 녀성들의 삶의 권리에 대해
복된 생활에 대해, 앞날에 대해!
이 하나의 메달이 다 말해주고있는데야...

조선치마저고리

-해외동포녀성이 부른 노래-

어머니도 언니도 나도
곱게 차려입고 나서면
구름머금은 이역의 하늘밑에서도
민들레꽃 노랗게 핀
고향길을 걷는듯싶은 치마저고리

그러면 어머니 떠나온 고향
그 맑은 박우물가에
내 얼굴이 비끼는듯싶고
그러면 조국의 한복판에 내가 사는듯
파아란 하늘이 삼삼 보여오는 조선치마저고리

이역의 하늘빛에 물들지 않고
이역의 땅빛에도 물들지 않은

푸르고고운 이 빛같은
타향의 찬바람에
때묻지 않고픈 우리의 순정

세월의 류행도 따름이 없어
예나제나 곱게 맨 저고리고름은
고향을 못잊어, 정녕 못잊어
가슴에 옥땀한 리별의 아픔인듯
꿈에서도 안고사는 상봉의 기쁨인듯

아, 즐거워도 슬퍼도
이역의 하늘빛에 머리들고 사는 우리
언제나 즐겨입는 조선치마저고리
조국의 부름안고 달려갈 땐

기쁨의 눈물에 젖고젖는 치마저고리

그것은 진정 그것은
살아도 조국의 녀에 살고
죽어도 조국의 정에 죽고픈

우리의 마음

김정일장군님 따르는 길에
고이 지녀 간직할
우리들 조선녀성의 절개예요

나는 조선녀성이다

이 말은
한창 처녀시절의 꽃발을 걷는
내 가슴에서
마치 고무풍선과도 같이
저 멀리로 자꾸만 날아오른다

어찌하랴
애써 잡아두지 못할
나의 가슴겨운 기쁨인데야...
이 땅에 사는 녀성이라면
누구라없이
잠재울수 없는 걱정인데야...

그저 생각할수록
이 제도가 겨울도록 고맙고
우리 누리는 삶, 누리는 행복이
녀성으로 태어난 행운을
시각마다 깨우쳐주는 내 조국-

가슴 터놓고 말해보자
우리 어데서 무슨 일을 하건
그 어느 생활의 구석진 갈피에
녀성의 눈물이 있다더냐 아픔이 있다더냐

권리란
누릴 땐 다 몰라도
없을 땐
그리고 가슴에 사무치는것
그것이 가버린 옛 세월엔
이 나라 녀인들을 모질게도 괴롭혔나니

그것이 없어
세상에 태어났어도

이름 석자조차 지닐수 없었던
버림받은 인생의 한숨이여
길가에 몸을 던진 한많은 녀인들의
가슴찔던 유서여

아, 그 세월이
모질었던것만큼
내 오늘 보란듯이
조선녀성이란 이 말을
가슴에 소중한 안고서 산다

그러면, 아 정녕 그러면
가슴뿌듯한 이 말은
하늘을 나는 내 기쁨의 무수한 날개
세상천지에 평등히 비끼
내 환희로운 생활의 무지개

날아가다오
내 심장의 목소리여 노래여
내 마음의 하얀 비둘기가 되어 날아가다오
거세찬 폭풍이 되어 날아가다오
우뢰가 되어 날아가다오
녀성들이 사는 이 세상
그 어데든지 너 날아가다오

이 땅에
장군님 품안아 키우시는 딸들이 있는 한
나의 목소리, 녀성들의 이 노래는
그이께서 무성히 안아가꾸신
대화원의 설레임처럼
그 무수한 꽃잎들의 노래처럼
소리높이, 자랑높이 울리리라
-나는 조선녀성이다!

나의 첫 시를 두고...

인민학교때 내 지은 작문이
벽보판에 나붙은 그날부터였던지
나는 알지 못하네
언제부터 시쓰기를 시작했는지

병사시절에도 있었네
땀에 젖은 군복주머니엔
즉흥시 깨알처럼 박아쓰는 시첩이,
대학의 나날에도 남다르게 바빴네

권강일

짹짹이 생각하며 시를 쓰느라...

하지만 늦도록 빛을 보지 못했네
보내는 원고마다 고스란히 돌아왔네
이렇게도 힘든가 재능이 없는가
피로움에 마음이 흔들리던 어느날
나에게 차례졌네 백두산답사권이

보았네 동기와지붕의
키낮은 고향집 뜰에 서서
이 세상 가장 빛을 뿌리는
높은 집을 우러렀네

붉은 화살표 따라 걸음걸음
청봉 베개봉 밀림속을 걸으며
타다 남은 우등불자리에도 오래도록 멈춰서며
나는 생각하였네
조국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잡힐듯 하늘이 가까운 백두산에 올라
나는 보았네
우리 수령님 쌓아올리신 위업의 높이를

우리 장군님 빛내가시는 높으신 그 뜻을
일생토록 오르고오를 삶의 절정
백두산는 나에게 가르쳤네
감정이 무엇인지 느낌이 무엇인지
사람이 얼마나 숭고해지는지

답사길에서 나는 썼네
꾸미지 않아도 철철 진정이 넘쳐나는 시
편집부에 보냈네
시는 되돌아오지 않았네
번쩍 활자가 되어 잡지에 실려왔네

이것이 나 하나 추억만이 아닌줄,
열매를 거둔 과학자, 예술가에게도
혁신자의 자랑 높은 가슴에도
백두산과 더불어 위훈의 길
보람 높은 길을 걸을줄 나는 아네

가려네 이해에
고향집에 쉰다섯해 태양이 빛나는
나는 또 가려네 백두산으로
거기서 또다시 큰걸음을 떼려네

순회길을 걸으며

신현숙

밤은 깊어 은하수 기울어도
조작쇠를 돌리며
붉은 신호등 지켜가는 순회길
나 혼자서만 걷지 않는다

고압증기 흐르는 소리
화력타빈의 고르로운 동음소리
심장의 맥박처럼 새겨들으며
수령님 자욱따라 나는 걷는다

그날의 그 음성 다시 들으며
그날의 그 모습 다시 그려보며
수령님 모시고 함께 걷는
나의 순회길이어

이른아침 출근길 걸을 때에도
휴양소의 등산길 오를 때에도
마음은 항시 그 자욱따라
이 길을 걷고있었나니

새해 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행복의 대문을 열어가는 길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으신 뜻을
만부하의 전력으로 빛내가는 길!

이 길을 걷지 않는다면
인생의 천만리길 걷는다 한들
우리 삶이 값이 있으랴
저 하늘의 별처럼 빛을 뿌리라

동트는 이 새벽
채광창너머 바라보이는
현지교시판의 빛나는 글발들이
노을속에 수령님 미소처럼 안겨오거니

아, 전기를 앞세우라고 하신
수령님의 그 유훈 꽃피워가는 이 길에
오늘도 래일도 전류는 흐르리라
끝없는 세월처럼 영원히...

왓새꿀의 주인들

리성식

예로부터 가을비는 늙은이 턱수염밑에서도 웃고간댔건만 아침부터 부실부실 내리기 시작한 비는 중년이 넘도록 좀처럼 멎을줄을 모른다.

지금 우리 분조원들이 들어앉은 똑막의 처마밑으로 락수물이 주룩 주르룩... 흘러내린다.

왓새꿀안의 비탈밭 여기저기에 그루 끊어 모아 세운 보초막같은 강냉이무지로 소록소록 스며드는 비줄기를 눈아프게 내다보며 분조원들은 자기 나름의 상념에 잠겨있었다.

여기 꿀안논에서 벼베기를 하다가 비도 오고 휴식시간도 되어 초막안에 들어앉아 쉬는참이었다.

《에 참, 날씨두... 강냉이가 가물에 새들새들 마를텐 물 한방울 안떨구더니 난알들이 한참 말라야 할 요즘에 와선 왜 이리두 줄줄 내쏟는지 원.》

꼭신하니 깔아놓은 개암실외우에 두다리를 꼭 펴고앉아 가지담배를 빨아대던 장칠성이 비물 질벽한 밖에다 콩초를 내버리며 투덜거렸다.

똑막기둥에 비스듬히 기대누운채 비발 가득찬 허공만 찌벌서해 내다보던 나도 저도 모르게 통내뻘었다.

《글쎄 망할놈의 하늘이라니가요.》

사람의 감정이란 얼마나 이상한것인가... 불과 며칠전까지만 해도 소슬한 가을비에 옷이 화락하니 젖으면서도 《어 참, 비가 잘 오는군! 김장용 무우배추가 살이 평평 오르겠는걸.》 하고 너스레를 떨며 비방울 날리는 하늘을 유쾌히 올려다보던 내가 지금은 (물론 칠성이때문이긴 하지만) 그 하늘에 욕을 퍼붓고있는것이다.

빨락지담배팩을 뒤적이던 장칠성이 나의 옆구리를 툭 건드렸다.

《한대 태우지 않겠소?》

나는 그의 손바닥에 놓여진 러과담배를 흥심없이 넘겨다보다가 도리를 저었다.

《왜? 비맛은 수탉처럼 떨지만 말고 담배연기로 속을 달쿠라니가요. 요즘 새로 생산되어 인기가 있는 담배인데 그 맛이 아예 좋소.》

《맛 좋으면 혼자 많이 피우려.》

장칠성을 온몸지 않게 흘려보고난 나는 내 주머니안의 양건잎담배쌈지를 꺼내 펼쳤다.

탄실분조장의 호주머니에서 닳은 콩을 꺼내 빠작빠작 씹으며 고소한 냄새를 풍기던 경남이가 장칠성의 손바닥에 놓인 그 《꿀벌》을 살며시 집어들었다.

《장아저씨, 미안해요. 저도 속을 좀 달쿨 필요성이 제기돼서...》

저보다 나이가 20년 우인데도 어떻게 된 판인지 장칠성하고는 간격없이 지내오는 녀석이다.

칠성의 옆구리에 찰싹 달라붙어 좋아라 나들거리는 경남을 지켜보던 나는 우뚝해서 소리쳤다.

《야, 너 그런 쪼아먹는데만 빠치지 말구 일본새부터 좀 고쳐라- 벼벨 때 그게 뭐가? 미친 할미달래 캐듯 사방 널어놓으면서말야. 네가 흘려논 벼알을 줏느라고 병너어머니만 더 수고하지 않아.》

나무토막을 베고 번듯이 누워있던 (허리아픈때문이다.) 병너어머니가 제켄에서 무안하여 《어린 아이가 그럴수 있는건데 뭘 그러우.》 하며 두둔했으나 경남은 통통한 볼살을 빨강게 붉힌다.

미친 할미 달래 캐듯한다고?!... 정작 말을 해놓고보니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칠성을 좋지 않게 여기던 나머지 그와 가까와진 경남이까지도 미워져 지나친것이다.

사실 칠성에 대한 나쁜 감정은 엇그제부터 시작되었었다.

그제 아침모임때 방탄실은 몹시 초조해서 분조원들한테 의논했다.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10월초에 우박이 내린대요. 팍흘려 마련한 난알을 논바닥에 뿌려던질수야 없지 않아요. 그래서 닻새내로 벼를 모두 베여 묶어야 해요. 헌데 보다실이 고장난 기계는 아직 고치지 못했으니... 어떻게 한번 좋을가요?》

누구도 선뜻 대답을 안한다.

성미급한 나로서는 정말이지 답답하기 그지없는 침묵이었다.

나는 보다못해 그 침묵을 활 밀어던졌다.

《어떻게 할거나 있소. 무조건 해야지.》

그런데 천만뜻밖의 통 소리가 나의 뒤머리를 때리었다.

《무조건 해야 된다는건 둘째문제요.》

장칠성의 목소리였다.

나는 불끈해서 그한테로 돌아섰다. 눈살을 찡긋이 치켜뜨며 반박했다.

《그럼 첫째문제 뭐요?》

《그건 아직 생각중이요.》

《렐모레 당장 우박이 쏟아진다는데 생각만 하다말겠소.》

나는 진출자라는 사람이 정말 한심하게 논다는, 도대체 일을 하자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책망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걸 애써 눌렀다. 많은 사람들앞에서 차마 그의 인격까진 무시하고싶지 않았기때문이다. 참자, 참는 사람이 승리자라지 않는가.

참을 인자가 셋이면 군자라는데... 하며 속으로 자신을 다잡았다.

우리 두사람을 불안한 눈길로 살피던 탄실분조장이 칠성이한테 조심스레 묻는 것이었다.

《장아저씨 생각은 어떤가요?》

《수확길 놔두고 뭇이 안타까와 허리 아프게 낫질을 하겠소. 난 그런건 달갑질 않소.》

통명스러운 대꾸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탄실은 그 통명스런 대꾸를 무슨 중요한 조언처럼 받아들였다. 당장 우박이 쏟아진다고 속상해하던 그가 기계가 수리될 때까지 벼가울을 뒤로 미루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어 이들이 지난 오늘 아침부터 (정말 아까운 이틀간이었다.) 벼베기에 착수하였다.

헌데 마디에 웅이라더니 오늘 아침부터 비가 오면서 논바닥이 물지락물지락해졌다. 신떡같은 흙반죽이 와짝 이겨붙으면서 주행바퀴가 사슬에서 자꾸 벗겨져 수확기를 움직일수 없었다. 그래 할수 없이 분조원모두가 낫을 들고나섰던 것이다.

미리 나의 의견대로 낫으로 벼베기를 시작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나는 뒤늦게야 자기 주장을 고집하지 못한걸 한탄하였다.

(생각중이라던 첫째문젠 어찌고 낫들고 어정어정 따라나섰단.)

심사가 알궂어진 나는 내쪽으로 오는 장칠성의 《꿀벌》연기를 (별로 향긋한게 싫었다) 훌 붙어치우고 마라초언기를 뽕양게 내공졌다.

그러다가 그의 다리에 신겨져있는 목이 길고 불이 넘적한 곤충색 장화를 씨뿌듯해서 내려다보았다.

첫날 맨발로 일하다가 무엇을 밟았는지 《아코-》 하더니 즉시로 장화를 신고 나와 좀처럼 밧을 줄을 모른다. 경남이며 처녀들도 다 아래도리를 활 걸어올리고 차고 화락한 논판에 몸을 잠그는 오늘까지도...

남없이 얼굴색이 벌겋벌겋하고 말무리속의 기린처럼 꺾두룩한 그의 모습을 끄지 않게 흘려보던 나는 담배맛이 싹 잡치는바람에 절반도 타지 못한 담배를 밖에다 내던지고 그자리에 벌렁 누워버리고말았다.

후둑 후둑둑... 초막지붕을 때리는 비방울소리, 쭈룩 쭈르룩... 락수물은 여전히 내 가슴을 울리며 쪽새풀 가꾼한 처마굽을 구울러내린다. 굵은 비와 썰렁한 바람기에서 벌써 겨울의 전조를 느낀듯 산등성이 섰포기밀에서는 배짱이들이 불안스럽게 씨룩거린다. 담배연기 가득찬 막안 공기를 헤가르며 들려와 귀안에서 으응~ 으응~ 공명을 일으키던 자연의 온갖 소음이 별안간 폭 꺼져들더니 그 어덴가 아득한곳으로 멀어지며 꿈결에서처럼 어렴풋이 들려왔다.

화목한 가정처럼 한건의 언쟁도 꼬물만치의 문

제거리도 없던 우리 분조!... 그 조용하고 단란하던 집단이 때아니게 복잡해질줄이야?...

사실 나는 《부분조장》이었으나 내적으로는 분조장이나 다름없었다.

갓 서른인 탄실분조장은 마음씨 곱고 인정이 많았으나 반면에 주대가 세지 못하고 사업전개력이 부족하였다. 자신의 약점을 잘 아는 그는 언제나 무슨 일이 제기되면 나의 의사를 물어처리하였으며 대외관계나 완력전같은것은 전적으로 내가 나서서 처리할것을 위임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그 위임을 람용할 내가 아니었다. 나는 자기를 잘 안다. 나한테는 자그마한 직권욕도 리기심도 없다. 나이는 서른일곱, 학력은 농업전문학교 졸업... 한창나이에 전문지식도 소유했겠다, 성격 또한 호방스럽고 체격까지 황소처럼 우렁치여 만사에 막히는데가 없다.

하지만 리상은 소박하였다. 실농군!... 이것 하나면 다였다. 또 한가지 바란다면 내가 속한 우리 분조가 남의 말밖에 오르지 않는 것이며 영예로운 열톤분조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자면 분조원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분조사업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 그것은 최근 당에서 알곡소출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농촌진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그 우월성을 강조한 분조관리제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기도 하다.

그 모든것은 어느 한 완력 센 사람이 앞에 나서서 분조채를 옹바로 힘있게 끌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바로 그래서 나는 스스로가 분조의 채가 되어(탄실분조장이 바라는 것이긴 하지만) 모든 책임과 부담을 걸머메고 나갔다.

분조원들 또한 나의 좌상적인 위치와 역할을 인정하였으며 자기처럼 믿고 따랐다.

하여 이 우만등의 말은 곧 분조내의 법처럼 통용되었고 행동 한번이면 분조원모두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처럼 하나의 규정과도 같이 확립되었던 분조내의 기풍이 장칠성의 출현으로 하여 건잡을수 없이 형클어져갔다.

처음 그의 분조편입을 두고 얼마나 기뻐하던 나였던가?

작년 가을 어느날...

날알 꺼들이기를 끝낸 분조원들은 분조휴계실 마당에서 즐당콩파기를 하고있었다.

중낮무렵 한 장정이 분조휴계실마당에 나타났다. 하루전 가족과 이사짐을 자동차에 싣고 구주 고개를 넘어온 진출자였다.

키가 얼마나 큰지 고개를 젖혀야 얼굴을 마주볼수 있었다.

《1분조에 배속되어 일하러더군요. 장칠성이라 부릅니다.》

《장칠서영?!... 어야 이름도 별날구나.》

입빠른 황아주머니가 눈치없이 번지는 소리에 그만 폭소가 일어났다.

무안해할줄 알았던 칠성은 오히려 벌썬 웃으며 키득거리며 아낙네들과 맞장구를 치는 것이었다.

《제 우로 누이가 여섯인데 부모들이 어쩌다 아들을 보자 일곱번째만에 성공했다하여 칠성이라고 지었다질 않습니까?》

그리고는 나한테 인사하면서 하는 소리가 또한 걸작이었다.

《키 큰 사람 싱겁지 않은게 없다고 저도 키가 커서 그런지 좀... 하하.》

마치 구면이기라도 한듯 무릅없이 벌썬거리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인사말을 건네는 칠성을 탄실분조장이 당콩대결로 불러세웠다.

《장아저썬 오늘 장대꼭두의 꼬투리들을 따야겠어요. 마침 잘 왔어요.》

아낙네들이 반침목우에 올라서서도 따기 힘들어 남겨둔 당콩꼬투리들을 장칠성은 별로 품들이지 않고 척척 따내렸다.

《당콩 딸 걱정들은 하지 말고 앞으로 장대를 더 큰걸로 세우십시오. 그리고 천정 바를 집이 있으면 미리 요청들 하구요.》

첫 대면에 벌써 칠성은 분조원들과 한식술처럼 어울렸다.

자기를 못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못난이가 아니듯이 제입으로 자기를 싱겁둥이라 하는 그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나를 즐겁게 만들었다. 생전에 인민들의 식생활문제때문에 그토록 심려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심장으로 받들고 농업전선에 자원진출한 그가 무척 돋보였고 믿음이 생겼다. 했건만 나날이 흐르면서 그에 대한 나의 견해와 감정은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철벽철벽 비물 차는 발자국소리...

《어유- 무슨 비가 자꾸...》

집에 돼지물 주리 내려갔던 황아주머니가 문가에 나타났다.

나는 허구픈 상념에서 헤어났다.

손목시계를 보니 휴식시간이 썩 지났다.

나는 자리에서 성큼 일어났다.

《자, 이젠 시작들 해봅시다. -》

그래서야 분조원들은 벗어걸었던 비에 젖어 끈적끈적한 옷저고리며 비옷들을 주섬주섬 꺼입었다. 장칠성은 뭔가 마뜩지 않은 기색을 짓고 마지막까지 앉아있었다.

×

《나가자-》

여기서 소리치면 저기서 기꺼이 받아웨친다.

《나간다아-》

몇사람이 한배미씩 말아가지고 골안이 들썩하게 떠들어대며 와짜 일손을 다그친다.

《야하, 이것 봐라! 벼이삭이 겨드랑이를 살살 굽으며 놀자누나.》

너스레를 떨며 아래배미를 내려다보는데 경남이를 옆줄에 앞세우고 나가면서 그가 흘리는 벼

이삭을 슬쩍슬쩍 좇곤하던 병너어머니가 나의 시선을 감촉하고 얼른 자기 줄에로 돌아서는 것이 띄었다.

하하 웃고난 나는 못본척하며 허리를 숙였다.

잘 영근 이삭을 무겁게 단체 누르끄레하고 길쭉길쭉한 이파리를 활짝 펼친 벼대들을 한웅큼씩 모아잡으며 낫으로 불이 나게 후려쳐 나갔다.

뿌듯뿌듯한 그루터기를 한입씩 물고 둔중하니 드러누운 겉스레 기름지고 잘 앗은 두부모같이 물렁물렁한 바닥흙이 시간이 감에 따라 지나온 뒤로 넓고 길게 펼쳐진다. 선들선을 날선 낫을 가져다걸고 지그시 당길적마다 투드득 투드득 하는 룰동적인 음향과 함께 알찬 이삭들이 왼쪽 겨드랑이에 척척 와 안기면서 간지럼증을 일으킨다.

그 간지럼중에 괜히 웃음집이 흔들거리고 낱알 향기에 담뱃 취한 마음은 절로 흥떡흥떡 들뜬다.

그 어떤 세찬 열정의 과도에 떠실려 불끈 허리를 일으켜세운 나는 마치 그 무슨 만세라도 부르듯 두팔을 우쩌덕 추켜올리며 목껏짓 웨쳤다.

《자-아... 봄빈 잠비고 가을빈 떡비라는데 마음속까지 폭 적서가지고 와닥닥 다그치자구요!》

누렇게 익은 비바다속에 잠겼던 분조원들의 머리가 잠수함 트라스마냥 우줄우줄 솟아났다가는 어느결에 쑥 잠겨든다. 빨강고 파란 비옷자락이 비안개를 휘저으며 황금색 이삭우듬지와 어울려 설레이면서 조화로운 잔물결을 일으킨다.

웁쉴웁쉴 흥취가 떠돌고 부쩍부쩍 일능들이 오르던 작업장에 매아닌 한숨이 흘러지났다.

장칠성의 입에서 터져나온 한숨이었다.

그는 벼는 안베고 논두렁에 나앉아 눈살을 찌프리고 나의 거동만 지켜보고있었다.

그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슬그니 일어나더니 아래배미의 탄실분조장한테로 정정정정 걸어갔다.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방탄실의 얼굴이 홍시처럼 빨개진다.

일터의 벼그루 끊어지는 소음속에 그들이 주고받는 말소리가 도간도간 들려왔다.

《장아저썬 저만 따분하게 자꾸... 농사군인 제가 대가울철에 어떻게...》

《아, 우리가 있지 않소. 그러단 나같은건 분조장 한번 해볼새가 없겠군요.》

(또 뭘 추동질하는가?)

나의 언짢은 시선을 느낀듯 칠성은 얼른 탄실의 결에서 물러나 벼수확기 세워논곳으로 향한다. 다리 부러진 황소처럼 엎어져 태평세월만 보내는 기계를 덩뎅히 살피면서 주변을 빙글빙글 돌던 그는 뭐라뭐라 중얼거리며 자기 일하던곳으로 갔다.

내뒤편을 지나칠 때 마른 입을 짹(그것도 요란하게) 다시는 것이었다.

《가을빈 떡비라구요?! 정말 참...》

한심하기 그지없다는 그 속대사가 나의 신경을

진드렸다. 나는 낫날을 논바닥에 쿵 박아놓고 일어나 누렇게 익은 벼이삭들을 사방 가리켰다. 《이렇게 푹 익었는데 떡이야 다 된 떡이지요. 그래 떡이 싫소?》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기를 넘두에 둔것 같았다)이 질척질척한 논판속에서 으시시한 비를 맞으며 일하는게 그리도… 물론 이런속에서도 몸을 한껏 잠그고 해대는 투신력은 좋지마는 그건 두번째 문제란걸 알아야 합니다.》

《그 첫번째 문제란걸 도대체 뭐요?》

《…》

장철성은 내가 도교하게 나오자 입을 쓰겁게 다시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물러났다. 논두렁을 공골말 건너뛰듯 후닥닥 넘어뛰어 자기 말은 배미로 들어섰다. 엉치가 하늘로 치솟도록 가느다란 허리를 짓속이고 서툴게 낫질을 하더니 얼마 못가서 또 싫증이 났는지 벼단을 깔고앉아 담배대를 꺼내문다. 그 무엇인가 간절한 빛이 어린 눈으로 줄곧 기계를 바라본다. 그의 다리목을 감싼 사출장화가 나의 눈썹리를 찢었다.

나는 부지중 나의 발바닥을 쳐들어보았다. 벼그루터기에 활귀고 찢리어 온통 벌겋벌겋 허물이 생겼다.

험상하게 변해버린 나의 발바닥 그리고 처녀들의 감탕에 얼룩진 희고 말큰말큰한 종아리와 엇갈려 칠성의 굵직한 다리목에 신겨진 그 번들번들 윤기도는 끈적색 장화가 안겨오며 나의 가슴을 굽었다. 저도 모르게 꿈틀 반감이 살아올랐다.

허나 나는 그것을 애써 눌렀다. 원래부터 완성된 사람이 없듯이 그가 농사도 처음이고 또 성미가 그렇게 돼먹어 그러는건데 고만한것도 리해 못하고 맞대들러는 나자신이 지내 웅졸하게 여겨졌기때문이다.

나는 마음을 크게 고쳐먹었다. 에라, 농촌혁명의 선배인 내가 널리 리해하자! 앞으로 차차 나아지겠지… 하면서도 장철성이 착실한 농사군이 되도록 타이르고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만은 잊질 않았다.

×

경남이가 어데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아침모임을 끝내고 논배미로 헤어질 때 나는 탄실분조장한테 한마디 비쳤다.

《그 애가 자리에 누워 몸살이나 하지 않는지 모르겠군.》

방탄실은 소리없이 웃더니 그가 오늘 군도서관에 책때문에 들어갔다고 놀라운 대답을 했다.

《장아저씨하고 토론이 있었어요.》

이 두번째 말이 나의 기분을 십시에 잡쳤다.

원래 경남은 중학교를 졸업하던 작년 여름 평양중앙대학 입학시험을 치르었었다. 력사학부를 지망했었는데 아쉽게도 점수가 두점 모자라 미끄

러지고말았다.

나는 차라리 잘됐다고 그를 위로해주었다. 농사가 것처럼 중요해 사회안전원이며 지식인들까지도 농촌을 탄원하는 현시대에 농사군의 자식인 력사학자가 무언가?! 사회주의를 지켜가는 오늘의 이장엄한 현실이 곧 훌륭한 력사인데 과거사나 캐션 뭘하겠는가, 이리더 경남을 농사일에 마음 붙이고 분조생활에 충실하도록 늘 살피왔었다. 때론 아픈욕도 하면서.

그러던걸 장철성이 나타나 콩밭을 잊지 못해하는 비둘기같은 그대 마음을 들쭉서놓았다.

어제것을 잘 알아야 오늘의것을 더 잘 아끼고 위할수 있다고, 특히 중요하게는 혁명의 온갖 원수들의 경제붕쇄와 말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오늘의 《고난의 행군》도 1938년 겨울의 그 고난의 행군과도 같은 준엄하고도 격동적인 현대력사일진대 그 자랑찬 투쟁과정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해선 그것을 력사기록장에 올릴 전문가들도 있어야 한다면서 경남을 력사에서 취미를 떼지 않도록 추동질했다.

나의 견해를 무시한것은 경남이 문제만이 아니었다.

병너어머니 일도 그랬다.

사실 전쟁로병인 그 녀인은 부대로력자였다. 그런데 본인이 가을철에 부지깽이도 뛰는 땀데, 특히는 우리 수령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농사때문에 심려하셨는데 나이가 들었다고 어떻게 뒤구석에서 흥글거리겠는가며 가을걷이때만이라도 농산분조에 배속되어 일하겠다고 제기했다.

나는 작업반장한테 말해 병너어머니가 농산반성원이 되는걸 밀막았다. 그런걸 장철성이 나서서 그가 농산분조에 출근하도록 해놓았다. 그래야만 녀인의 마음이 더욱 편할것이며 또 그렇게 하는것이 로병의 지난날을 빛내여주는것이라면서.

장철성은 원래 돼먹길 그렇게 돼먹은 사람이니 할수 없다치고 문제는 그한테로 기울어지는 탄실분조장의 주대 없는 태도였다.

한번 경중을 울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다.

《분조장이 채를 든듯히 잡아야겠소. 요즘 분조일이 말이 아니요.》

장철성에 대한 추종은 곧 나에 대한 도외시로 된다는 일종의 암시기도 했다.

방탄실은 그저 해죽이 웃기만 한다. 그의 어정쩡한 태도는 분조의 기동인 나의 책임감만 더해줄뿐이었다.

나는 이리저리한 문제를 갖고 장철성한테 한번 단단히 충고를 줘야겠다고 버르었다.

그런데 일두 참… 뭇다면 깨꼬한다더니 그가 먼저 나를 찾아들었다.

말은 배미를 다 제끼고 논머리에 나앉아 숨을 돌리는데 장철성이 곁에 와 앉으며 담배를 내밀

었다.

《한대 태우지요. 요즘 새로 생산되어 인기있는 국내산...》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은 뻔드륵한 소리여서 나는 들은척도 안하고 내 호주머니안의 일담배만 꺼내 맡았다. 고운 사람 달래러 와도 곱고 미운 사람은 주러 와도 밍다더니 그가 아무리 담배를 권하고 어찌도 언짢기만 할뿐이다.

칠성의 파르스름한 《꽃벌》연기와 나의 푸릿한 일담배연기는 엉켜드는 우리 두사람의 심리를 말해주듯 뱅글뱅글 꼬이며 머리맡 허공을 감돌았다.

나는 역한 향수대같은것이 풍기는 그의 담배연기를 용서없이 밀어치우는 심정에서 땅냄새처럼 구수하고 정돈 마라초연기를 확확 내뿜었다.

그 독한 일담배냄새에 질겁한듯 몸을 움츠리던 장칠성이 나의 눈치를 살피며 넌지시 말을 건넜는 것이었다.

《저... 누가 만약 우동무한테 충고를 준다면 우동문 어떻게 생각하겠소?》

《생각할거나 있소? 충고야 약처럼 좋은건데.》

인간의 갱신과 사회의 진보를 위해 그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공정한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나도 장칠성한테 말하기는 싫지만 충고를 주리라 결심하고있는것이고, 헌데 누가 나한테 충고를 준다는건 무슨 의미인가?!

《거참 만등동문 생긴것처럼 일도 잘하지만 성격이 씨원씨원해서 좋거든요. 내 언제부터 동무한테 신중하게 충고할게 있었는데...》

롱담이 진담으로 돌변한듯한 느낌에 첫순간 병병해졌던 나는 그 어떤 격한 감정에 떠밀리워 깔고앉았던 낫자루를 뽑아들며 화닥닥 일어섰다.

《뭘 뭐라구요?! 나한테 충고를??》

《아니, 왜 이렇게?...》

장칠성도 당황하여 일어났다.

나는 당장 받을소처럼 그의 턱밑에 이마를 바싹 들이댔다.

《그래, 무슨 충고를 줄게 있다는거요?》

《우동무가 오늘의 이 왁새골에서의 벼가을에 대한 인식을 옳바로 가져야겠소. 사실 동무가...》

《내 인식이 어쨌다고요? 나 이거라구요.》

《자, 자 성은 내지 말고... 나와 힘을 합쳐 벼수확기를... 요즘같은 조건에서도 쓸수 있게끔 개조해보지 않겠소?》

《그게 지금껏 생각해온 첫째문제요? 사실 충고는 내가 동무한테...》

이러며 내가 성을 내자 칠성은 더 어찌지 못했다. 어처구니가 없다는듯 마른 입을 다시더니 머쓱해서 물려갔다.

나는 기가 막혀 말이 다 안나갔다. 입술만 덜덜 떨며 그의 격두룩한 뒤편을 쏘아보았다. 별판의 장대같은 그가 더없는 싱검둥이로 안겨왔다.

음산하게 드리웠던 구름장들이 짝 빼개져나가더니 거울쪽같이 맑고 파아란 하늘이 머리위에 펼쳐졌다. 미역을 흠뻑 감고서 둥기둥기 떠오른 해는 따뜻한 별을 발산하며 쟁글쟁글 웃기 시작했다.

축축이 젖었던 논바닥흙과 두렁콩이파리 그리고 산자드락의 풀판에선 시루김같은것이 물물 피어올랐다. 비로소 천고마비의 계절이 이 땅에 도래한듯싶었다. 흙도 풀도 옷자락도 건조해지고 훈훈하니 덥혀졌다.

하건만 칠성이 또 하여 잔뜩 흐려진 나의 마음은 좀처럼 개일줄을 몰랐다.

나는 벼포기밑그루사이로 열기설기 늘어져서 밭을기는것을 방해하는 고마니 풀줄거리를 손모서리로 탁 뿌려던지기도 했고 벼이삭끝엔 난파닥 올라앉은 메뚜기가 괜히 보기 싫어져 낫자루로 뺨 쳤박기도 했다. 했으나 풀줄거리는 《애매한 나보곤 왜 해보시오?》하듯 휘익 누웠다가는 도로 발딱 일어났고 낫뜨머리한테 쥐맞은 메뚜기란 놈도 《그 둔한 솜씨에 나를 어찌보겠다고요? 흥.》하며 나를 조롱하듯 모자창에 훌쩍 뛰어오른다. 벼줄기며 골바닥흙이며 낫날이며 하는것들을 배경으로 장칠성의 싱검둥한 얼굴이 나타나 가까이 졌다 멀어졌다 하며 환영처럼 눈앞에서 얼른거렸다.

애써 참자해도 도저히 그럴수가 없었다.

증나면 보리방아를 더 잘 찼는다고 성난김에 반나절씩것을 한참에 왈왈 해제겼다. 그러다가 낫날건사를 아차 잘못하여 왼손등을 쳤다. 뺨건 피가 살을 적시는 순간 격한것이 꿈틀 솟구쳤다.

나는 낫을 활 쥔뿌리고 일어났다. 성풀이를 하지 않고서는 한시도 살것 같지 못했다.

헌데 장칠성이 보이지 않았다. 두루 살펴서야 작업장을 떠나 골안을 벗어나고있는 그를 띄여보았다. 나는 탄실분조장한테 그가 지금 어데 가가고 통명스럽게 물었다. 분조장은 수확기의 리대벗김방지기구를 만들기 위해 읍기계공장엘 다녀오겠다기에 허락했다고 한다.

그 소리에 피씩 비웃음이 나갔다.

롱구를 하라면 키가 크니 그런대로 할지 몰라도 무슨 손재간이 있다고 제가 그런걸 만든단말인가? 낫질하기 힘들고 논구석에 박혀있기 답답하니까 읍거리에 나가 바람도 쏘일겸 허리도 펴며 쉬다가 공장사람들한테 《한대 태우십시오, 요즘 새로 생산된 매우 인기있는...》하며 러파담배꽂이나 쥐여주고서는 만들어달래가지고 올려고 그러겠지.

차라리 잘됐다고 나는 생각했다. 일도 못제끼면서 괜히 눈앞에서 얼씬거리는데보다 아예 보이지않는편이 낫기때문이다. 농사일이 처음이어서 몹시 힘들텐데 까짓거 외판데 가서 기껏 몸을 쉬우고 오라지. 그지간 우리가 말끔히 다 끝내놓을테니까. 하긴 우리가 너무 몰인정했어.

내심은 이러면서도 나는 탄실분조장한테 오금을 박아댔다.

《이런 땀 사정보지 말고 한몸동이로 쳐몰아야 하는거요. 본인자신을 위해서도 로동규률통제와 당면과업수행에 대한 요구성을 높여야 하오.》

《우아저씨도 참...》

방탄실은 해죽이 웃더니 살그니 다가와 수건으로 나의 상한 왼손을 싸매주었다.

너인의 나긋나긋한 손더듬과 따스한 입김에 녹아들어 나는 더이상 고집을 세우지 못했다.

×

《자- 삶은 고구마나 하나씩 맛보라구.》

어느새 집에 내려갔는지 병녀어머니가 원보에 씌운 팥주리를 무겁게 이고 나타나 하는 소리였다.

산자드락 밤나무아래의 풀밭에 나왔어 맨승맨승해서 실참을 보내던 분조원들은 환성을 울리며 그를 맞이했다.

즐거운 고구마추렴이 벌어졌다.

분조원들은 통통 살찐 고구마의 껍질을 슬슬 벗겨서는 물물 서려오르는 김을 훌 불어가면서 맛있게 씹어댔다.

경남이가 제일 고구마를 좋아하는것 같았다.

하얀 농마가루가 파삭파삭 이는 알을 골라들고 보근보근한 속살을 정신없이 깨무는 그를 유쾌히 지켜보던 나는 저도 모르게 통 내뽐었다.

《애, 너 그 먹는데만 빠하지 말고...》

《어그 또 그... 애가 이젠 버를 얼마나 잘 벤다구요.》

병녀어머니가 나의 입에서 벼알을 사방 널어놓는다는 지청구가 튀어나올가봐선지 앞질러 두둔했다.

내가 할 말은 그게 아니었다.

나는 경남이한테 눈짓으로 탄실분조장을 가리켰다.

임신중인 그는 아래배가 알리게 봉싷 솟았는데 경남의 어깨너머로 고구마를 넘겨다보며 군침만 삼킬뿐 체면때문인지 선뜻 손을 못대고있었던것이다.

그제야 병녀어머니는 《에그, 이 정신보지.》 하며 탄실의 품에 먹음직스레 생긴 알로 가득 안겨주었다.

나는 경남의 이마뺨을 가볍게 튕겨주었다.

《임마, 너자들이 무슨거 어썰적엔 새콤한것과 단것을 얼마나 먹고싶어하는질 알아야 돼.》

《우아저씨 그런걸 어떻게 알았어요?》

《살아가느라면 다 배우게 된다.》

나는 허허 웃으며 그자리를 벗어났다. 잡관림 속에서 탄실분조장한테 줄 새콤달달한 살땀이를 따넣으면서 슬뻗슬뻗 꿀안을 내렸다. 너자들의 눈이 못미치는 개울에 내려가 목욕을 할 생각이 나서였다.

봄별은 머느리 쪼이게 하고 가을별은 팔을 쪼이게 한다더니 추석을 눈앞에 두었는데도 해별은 꼼찍이 따갑고 날씨는 절기에 어울리지 않게 제법 물କୁ어댔다. 산기슭 논머리에 소담히 피어난 들국화송이들이 나른해 늘어졌고 밤나무가지마다 다닥다닥 매달린 밤송아리들에선 때아닌 밤알이 맥없이 떨어져내렸다.

버들방천 웅달소에서 시원히 미역을 감은 나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휘파람을 호이호이 불면서 흥글흥글 되올라왔다.

왁새골과 노루골이 합쳐지는 넓다란 공지를 지나다가 노루골방목지에서 홀로 빠져나와 풀을 뜯는 늙수레한 누렁황소와 맞다들었다.

문득 반가움이 솟구쳤다.

나이가 많아 부림소에서 도태될 때까지 내가 맡아 관리하던 소였기때문이다.

꼬리를 휘휘 저어 파리를 날리면서 한가로이 새김질을 하는 황소를 감회로이 지켜보던 나는 가까이 다가가 말큰말큰한 코살을 어루쓸어주었다.

《이것아, 늙은이 정양소에선 왜 빠져나와 자유주의를 하느냐? 자연의 혜택속에 피둥피둥 살이 오르니 갑자기 일하고픈 마음이라도 동한거지.》

이러는 나의 머리속에 한가지 생각이 번개쳤다.

논판가운데 들어박힌 벼수확기를 이 소로 끌면서 가동시키면 꽤 될것 같다는 생각이였다.

분조원들도 나의 제안에 찬동하였다.

나는 막안에 있던 바줄을 가져다 황소 목등에 돌돌 감은 다음 기계의 본체 앞고리와 련결시켰다. 황소를 땀다 때려몸과 동시에 수확기를 가동시켰다. 얼마간 일이 제대로 되는가싶더니 리대가 텅그렁 벗겨져나갔다.

역시 소가 없을 때나 마찬가지였다.

불끈해진 나는 괜히 벼고랑만 탕치고 일하는데 방해만 주는 수확기를 논배미밖으로 끌어내자고 말했다.

그런데 그 의견은 뜻밖에도 반대에 부딪혔다.

탄실분조장은 장아저씨가 온 다음 (칠성은 오늘도 나타나지 않았다.) 토론해서 하자고 깔끔한 표정으로 통을 놓았고 입 가버운 다른 아낙네들도 장아저씨가 알면 큰일난다면서 들썩했다.

경남이까지도 《첻, 장아저씨 꽤 기계를 가동시킬수 있다고 했는데...》 하며 종알거렸다.

나는 뺨이 울긋하여 그들을 다물아세웠다.

《요즘 분조 분위기가 달라져가고있소. 그래 이 우만등의 말대로 해서 지금껏 잘못된 일이 무엇있소. 예? 우리 분조가 10톤분조의 명예를 지니고 모든 면에서 항상 앞자리를 차지한것이 그래 누구의 공헌이요? 나를 쫓는 장동물 따르든 그건 본인들 신념대로 할 노릇이긴 하지만 여하튼 감정이 별나지는구만.》

이래서야 더이상 다른 소리들이 없었다.

이번엔 수확기를 배미박으로 끌어내기 위해 리대를 썬 다음 논머리로 방향을 돌렸다.

경남은 내가 시키는대로 회초리로 소영덩작을 들이갈것고 나와 다른 분조원들은 뒤에서 기계를 밀었다.

이라 이라!-

영차, 이영차!-

그때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다.

《이건 무슨 망둥이요?》

고함소리가 머리우에서 울림과 동시에 경남은 바줄을 잡은채로 뒤로 벌렁 나자빠졌고 나와 다른 사람들은 기계들에 가슴팍을 짓조으며 멈춰섰다.

소와 수확기사이에 장칠성이 장승처럼 뻗치고 서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방금 지고오다 내려놓은 별나게 생긴 쇠기구가 놓여있었다. 후에야 알았지만 그것은 수확기의 리대벗길방자기구였다.

기상이 험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휘둘러보던 칠성이 경남의 손에서 회초리를 와락 빼앗아 똑똑 꺾어던지었다.

《경남이, 너 지금 제정신이나. 력사를 전공한다는 녀석이 그래 시대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고 해- 엉?》

칠성의 우둘우둘 떨리는 주먹이 금시라도 경남의 면상으로 날아들것만 같아 나는 그애 앞을 막아나섰다.

《여보, 거 아이한테 뭘 그러우? 해보겠으면 나와 직접 해보구려.》

이러며 팔소매를 슬슬 걷어올렸다.

나의 우람진 체격에 위압당했는지 칠성은 더 어찌지 못하고 거친 숨만 쉴썩 내쉬었다.

무척 실망한 눈빛으로 나를 건너다보던 그는 할이야기가 있다면서 버들방천쪽으로 좀 내려가자고했다.

그가 하자는데로 응한다는것은 자존심이 허락칠않는 노릇이었으나 만약 거절한다면 분조원들 앞에서 나의 인격이 떨어질판이라 (분조 기둥이 난가 아니면 칠성인가를 똑바로 인식시키는 중요한 순간인 자리이기에) 먼저 한발 앞서 씨잉씨잉 걸었다.

뒤따르던 칠성이 질책조로 물었다.

《그래 우동문 지금 어데로 가고있소?》

《어데로 가긴?... 동무가 요구한 버들방천으로 가지.》

《그걸 묻는게 아니요. 동무가 살며 일하는 목적이 어데 있는가말이요.》

《...》

나는 그만 대답이 막혀버렸다. 언제 한번 그런걸 특별히 생각해본적이 없었던것이다.

나는 그한테 별 언질을 다 잡는다며 눈을 흘겼다. 으쓱한곳에서 걸음을 멈추고 마주 섰을 때 장칠성은 속타는듯 한숨을 꺼지게 내뿜는것이였다.

《이자 갓 농사일을 시작한 나로서는 십년세월 농업전선을 지켜온 동무한테 말할 면목이 없긴한데... 우동무 일이 참으로 섭섭하기 그지없구려.》

《섭섭해요?! 이거라구야 참...》

하도 기가 막혀 나는 허거프게 웃고말았다.

《나도 장동무 못지 않게 기계화를 원하고 또 그걸 위해 여태껏 많은 노력을 해온 사람이요, 그렇지만 글썽...》

우박이요 투신력이요 하는 소릴 뇌일려다가 그만두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이고 환경에 불리한것이기때문이다. 근본이야 사상정신상태가 아닌가.

나는 엄숙한 낯색으로 목청을 높였다.

《지금이 어느때요, 예?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고난의 행군>을 하는 이때에 글썽 조건이 좀 불리하다고 구실만 대며 건들거려서야 되겠소. 안변청년발전소 건설자들이 발휘한 혁명적군인정신을 발휘해서 우린...》

《우동무, 생각을 좀 바로 가지요-》

칠성의 눈에서는 여직 볼수 없었던 노기가 벅끗 내비끼었다.

《조금만 머릴 쓰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좋은 조건을 마련할수 있는것두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그제... 그제... 술한 사람들을 고생시키면서... 가슴아픈 일이요.》

나는 그만 말문이 막히고말았다. 뭐라고 반박하며 우뚝거리고싶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더구나 좀전에 본, 칠성이가 어데선가 만들어가지고온 리대벗길방자기구가 떠올라 반발할 의기가 잦아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나는 충고를 주고 칠성은 꾸중을 들어야 하는... 이러했던 두 사람의 처지가 일순간에 뒤바뀐다는 놀라움속에 강렬하니 뇌리를 치는것이 있었다.

저도 모르게 자세가 낮아졌다. 그냥 말다툼을 벌렸댔자 이기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당장 우박이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옴니암니 언쟁질만 하다말겠소.》 하며 객적게 그자리를 먼저 뚫었다.

한풀 기가 죽어 버들방천을 벗어나다가 어느 한곳에 이르러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우리 마을과 이웃 리를 련결하고 더 나가서는 이웃군으로 통하는 지름길인 그곳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도사적터가 있었다.

아버이수령님의 거룩하신 발자취가 어린 그곳에는 력사의 증견자인양 사철 푸른 잣나무 한그루가 거연히 자라고 조약들과 금잔디로 알뜰히 정리되어있었다.

스무해전 비내리던 어느 봄날...

달리던 차를 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바로 이자리에서 모내기를 하던 농장원들을 만나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농장원들의 터갈라진 손을 쓸어주시며 산골농사도 하루빨리 기계화하여 농민

들을 힘든 손로동에서 해방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날 아버지수령님의 품에 안겨 기쁨의 눈물 짓던 농장원들속에는 나의 어머니도 있었다.

아, 두해전 7월... 수령님께서 서거하시었다는 청천벽력파도 같은 소식에 접하여 우리가 땅을 치며 통곡한것은 무엇때문이었던가!... 눈물을 삼키며 다지고다진 맹세는 무엇이었던나. 기념일때마다 온 농장이 사적터를 찾아와 정성작업도 하고 꽃묶음도 증정하고 충성의 결의도 다지는것은 애서였던가?...

방금전에 들은 장철성의 책망이 귀청에 울렸다.

《그런데 우동문 뭐요. 비내리는 조건에 맞게 수확기를 살려 쓸 생각은 조금도 안하고 낫을 들고 자신만이 아니라 술한 분조원들을 찬비가 내리는 논란에 들어세웠지. 그렇게 하는것이 곧 <고난의 행군> 정신이라고 난 생각지 않소. 물론 부림소를 비롯한 가능한 수단을 다 리용하려것은 좋은 생각이요. 하지만 얼마든지 살려쓸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야 무엇때문에... 우동문 기계를 비내리는 조건에 맞게 개조해 쓸 생각은 하지 않고 논두렁밖으로 밀어냈으니 기계화를 위해 적지 않은 일을 해 온 자신의 지난날마저 이젠 무시해 버렸단말이요.》

그건 사실이었다. 내가 바로 내가... 모자라는 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는 자력갱생의 방법으로 일할 생각은 못하고 막무가내로 힘내기만하려 했으니 어디 뻤는가?!

나는 어깨가 처져가지고 논둑길로 허청허청 걸어갔다.

고삐에서 풀려난 황소가 풀을 뜯으며 마주 내러왔다.

미련한 소라더니... 외곶으로밖에 일할줄 모르는 내 처지가 어찌면 그리도 방불한지. 화가 치미는바람에 나는 소영덩짝을 발로 걷어쳤다.

놀라 달아난것은 소가 아니라 나 자신이였다.

그놈이 눈알을 떠부럭거리더니 《날보곤 왜 해보우? 시키는 일만 고분고분 해온 난데.》하듯 우렁진 뿔을 겨누어세우고 무섭게 달려들었던것이 다.

쓰디쓴 패배감이 꾸역꾸역 밀려들었다.

저녁무렵부터 수확기는 경쾌한 동음을 내며 버를 베어넘기기 시작하였다. 해가 짹짹 나서 감이 어느 정도 든데다가 리대고정굴개를 조립해 맞추니 제법이었다.

장철성은 제가 직접 기대공이 되어 수확기를 운전했다.

왜서인지 걸어다닐 때면 장화 신은 다리를 절룩절룩 절었다. 그는 이따금 논바닥에 내려서서는 탄실분조장이 묶어놓은 벼단을 우쭐 안아올려 이삭을 와실랑와실랑 흔들며대며 《아주머니, 이런 호합진 아들을 낳으라구요. 첫코에 생남을 해

야지 그러지 않다간 내리내리 일곱번째만에 나같은 칠성이를...》하고 툽을 던져 폭소를 일으키곤 하였다.

그러다가 문득 신중해서 경남을 가까이 불러세운다.

《애, 그 논문은 다 뻤느냐?》

《자료고증도 미약하고 또 주제가 명확히 서질 않아서 아직...》

《음... 조금해할건 없어. 자료는 그 항일무장투쟁시기때치와 지금 사회주의가 좌절된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리용하는게 좋을거야. 어쨌든 주제는 오늘의 <고난의 행군>의 본질과 승리의 필연성 그리고 그 력사적의의를 명확히 밝히는 방향에서 잡아야 돼.》

이러고는 어느새 병녀어머니한테로 다가붙는다.

《이번 일요일에 학생아들이 전병로병과의 상봉모임을 요구하던데 어머니 응해주셔야겠습니다. 왜요? 이런 논머리에서 하면 보다 현실적이면서도 어머니자신도 떳떳해서 좋을텐데.》

내결에 와 선 탄실분조장이 속살거렸다.

《당일군을 하던 사람이 다르지요?》

《?!...》

《도소재지 방적기계공장의 부문당비서를 했는지 않아요! 나도 리당비서동지한테서 듣고야 알았어요.》

(글쎄 어쩐지...)

생활은 예전그대로였으나 분조의 공기는 변했었다.

모든것이 이 우만등을 축으로가 아니라 장철성을 중심으로 흘러가고있었다.

수확기의 구성지고 우렁찬 발동소리가 고막을 세차게 두드렸다. 그 소리는 마치도 나에게 《이보시오, 만등동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보시오- 생각해보시오.-》하고 일깨워주는 그 누군가의 곡진한 음성처럼 심장을 울리었다.

...저녁총화를 위해 우리는 서늘한 기운이 드리운 논머리 버딩풀밭에 둘러앉았다.

나는 그때까지도 무겁고 번거로운 상념에 묻혀 탄실분조장의 로력일공시를 꿈속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처럼 어렴풋이 들었다.

이 순간 나는 그 무엇인가 꼭 있어야 할것이 빠진듯한 공허를 느끼었다.

이럴 때면 의례히 머리맡 허공을 감돌아야 할 《꿀벌》의 파르스름한 연기가 없었고 습관처럼 내 옆구리를 건드리면서 《한데 태우지 않겠소? 요즘 인기를 독차지하는...》 하던 장철성의 절절한 음성이 울리지 않았던것이다.

나는 어쩐지 궁금하여 뒤를 돌아보았다.

칠성은 경남이결에 웅크리고앉아 머릴 푹 수그린채 장화목만 꼭 움켜잡고있었다.

분조장의 작업총화는 계속되었다.

《우아저썬 오늘 정량 한반보를 넘쳐수행했어요.

그래서 로력공수 <이점 삼>을 매겼어요. 정말 수고 많았어요.》

하면서도 녀인의 고운 눈엔 실망의 그늘이 비껴돌았다.

나는 그의 눈길을 슬며시 외면했다. 땀뿜지 못한 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눈을 지그시 내려감으며 장철성의 반응을 두렵게 기다렸다.

그는 틀림없이 《정량 한반보 넘쳐수행이라… 수고했군요. 하지만 무조건 넘쳐수행한건 둘째문제요. 첫째문제 바로…》 하고 통을 놓을 것이다.

헌데 이상하게도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이외로 경남의 다급한 비명이 튀어올랐다.

《장아저씨, 왜 이러세요? 아니, 장아저씨-》

흠칫 놀라 돌아보니 장철성이 경남의 다리를 팔고 쓰러져 있었다.

앉은 자리에서 어리벉벉해져 서로 마주보던 분조원들은 불길한 예감에 그한테로 우르르 몰려들었다.

철성은 신음인지 헛소리인지 분간키 어려운 소리로 웅얼거렸다.

《다리를 좀… 장화… 아…》

누군가의 재빠른 손이 장화로 졌다.

쉬이 벗겨지질 않는다.

한참 신고해서야 가스로 벗기었다.

순간 놀란 비명들이 새어나왔다.

피범벅이 된 발, 통통 부어오른 종아리…

후날에야 알았지만 그는 무엇에 발을 찢리우고서도 상처를 장화안에 숨기고 남모르게 고생해왔었다.

그를 빨리 진료소로 실고가 구급처치해야겠는데… 힘꼴이나 쓰는 장정은 나밖에 없는지라 나는 얼른 그를 들쳐업었다.

다른 장정이 처져내리는 그의 엉치를 거들었고 경남이와 방탄실이 다리통 하나씩 받들며 뒤따랐다.

버들방천을 침병침병 빠지면서 걷는데 죽은듯 업혀오던 철성이 뜨직뜨직 뇌었다.

《우동무, 나때문에 수고만… 하긴 건 둘째문제지…》

《첫째고 둘째고간에 다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몽쿨한것이 솟구쳐오르며 목을 메워 나는 더 말을 잊지 못했다.

내가 그의 몸을 업긴했지만 실상 정신적으로 내가 지금 그한테 업혀가고있다는 느낌이 가슴을 아파게 적시었다…

날알꺼들이기에 이어 탈곡까지 끝내고나니 머리우에선 락엽이 날리고있었다.

그 락엽을 밟으며 뜻밖의 손님이 우리 마을을 찾아들었다.

평양 사회과학원의 한 책임일군이였다.

얼마전에 올려보낸 경남의 소론문을 출판물에

내기로 했는데 수정안도 토의하고 리당비서를 만나 미래의 력사학자를 래년엔 꼭 중앙대학에 추천할데 대한 문제도 합의하고 올라갔다. 그런데 경남은 자기는 《고난의 행군》이 승리적으로 끝난 다음에야 대학에 가겠다고 하여 다시 한번 사람들의 찬탄을 자아내었다.

우리 분조 아니, 농장의 자랑이고 조국의 훌륭한 미래인 열여덟살의 어린 경남이!

그런 뛰어난 인재를 몰라보고 한뼉 와새꿀안의 논구석에나 묻어둘려던 나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장철성이가 아니었다면…

날이 갈수록 철성에 대한 새로운 감정만 짙어졌다. 손잡고 본때있게 일해볼만한 인간이라는 신심이 나를 즐겁게 해주었다.

했건만 나는 섬섬하게도 그와 헤어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당의 신임에 의하여 내가 이웃마을에 작업반장으로 임명되었던것이다.

한해도 저물어가던 어느날 나는 분조원들과 작별을 하고 새 초소로 떠났다.

…우리 두사람은 와새꿀어구의 버들방천에 점도록 마주서있었다.

그간 잊을수 없는 추억의 자욱을 짙어온 와새꿀안의 산등이며 논밭들, 그곳에서 와하하 웃고 떠들면서 강냉이그루 캐기를 하고있는 정든 분조원들을 돌아보며 쉬이 걸음을 못떼는 나의 옆구리를 철성이 가볍게 건드렸다.

《자, 한대 태우오.》

나는 그가 내미는 담배를 사양 않고 넘겨받았다.

《그간 장동지한테 미안한 일이 많았는데…》

《허- 이런… 실없는 한숨은 희망을 허물고 쓸데없는 고민은 인생을 망치게 한다는데… 아, 거 또 둘째문제로구만요. 예? 하하, 우리의 첫째문제야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고 주인구실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것이지요. 예? 하하… 와새꿀엔 나도 있고 또 새 로력도 여러명 배속돼왔으니 맘놓고 떠나오. 아무데 가든 주인구실을 잘 하면 되지요.》

뜨거운 감정속에 나는 《꿀벌》을 붙여물었다.

향긋하고 그윽한것이 폐장을 간지럽히며 흘러들었다. 주인! 주인구실을 한다는게 쉽지 않지. 언제나 창발적이고 헌신적인 인간들만이 그 궁지로운 지위를 차지할수 있는것이 아닌가.

지나온 생활의 흔적인듯 버그루러기만이 솟아있는 논배미들, 그 땀배인 포전들은 새로운 의미를 띠며 눈가득 안겨왔다.

나는 언젠가 어제날의 당일군, 오늘의 훌륭한 진출자가 기계부속을 지고 걸어온적이 있는 소로길을 따라 힘차게 걸음을 내짚었다.

풀판

동기춘

풀판은 느슨히 누웠습니다
늘씬한 등판은 젊고 싱싱합니다
아침이면 안개의 흰옷을 고이 입고
내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밤새 기다린 그 풀판에
나는 염소떼를 가득히 놓아줍니다
가벼운 바람이 살랑 불고
실안개 찾아서 이슬에 스밀 때
해가 솟습니다 쟁글쟁글 웃는 해는
해살을 가득 물었다가 함뿔 뿔어대는것 같지요
이슬구슬이 해살을 엮어 무지개옷을 짚니다
곱습니다 아니 기운칩니다
풀판은 꿈틀 몸을 뒤회는것 같습니다.
그 힘찬 품에서
앞선 염소가 한입 가득 푸른 잎을 뜹니다
그러면 줄기에서 하얀 진이 방울방울 솟습니다
뒤따른 염소가 또 한입 가득 뜹니다
때마다 하얀 방울은 다시다시 맺힙니다
풀판의 흰젖이 고여오르는것이지요
한낮이 옵니다
염소들이 배가 불렀습니다
덥습니다 노근해집니다
염소들은 물을 먹고싶어합니다
저 아래서 팔팔팔 물소리납니다
물기슭에서 들꽃이 웃으며 기다립니다
산나리도 다문다문 쉼어서 정취있습니다
차랑차랑한 자개돌 맑은 물은
풀판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샘이랍니다
물마신 염소들이 한가로이 새김질하고
새끼염소들은 귀엽게 깡충거립니다
나에게는 이때가 한가한 때이지요
풀판에 번듯이 드러눕습니다
개미들이 풀대에 부지런히 오르내리고
민충이가 풀끝에서 한뼘만한 천하를 굽어봅니다
그옆 양징한 꽃에서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노랑나비 파랑나비 꿀을 빨니다
신통히도 아기가 젖먹는것 같아요
어여쁜 나비들이 춤을 춥니다
팔랑팔랑 그 독무, 뱅글뱅글 그 쌍무
나는 박수라도 치고싶어 웃습니다
종다리가 뗏습니다 솟구쳐 솟구쳐
어데 있는지 보이지 않지만
풀판은 느슨히 누워 그 노래를 듣습니다
저 종다리도 풀판의 어느 구석에 깃을 틀고
한낮이면 떠올라 노래를 불러줍니다
갖가지 풀판의 식물들이 기쁨에 겨울 때
나도 피리를 꺼내 한곡조 넘깁니다
염소들은 귀를 종긋거리며 매-애, 매-애
나는 그것들을 한무리 늘굴 궁리를 하며
파아란 하늘에 날아가는 구름떼를 쳐다봅니다.
낮이 기울어 복수초덤불길을 내릴 때면
불그레 어린 석양빛은
잘 가라고 바라는 풀판의 미소같습니다
염소떼를 울안에 몰아넣고
한마리씩 젖을 짤 때가 제일 흐뭇한것 같아요
대줄기같은 젖살에 맞아서
우유통은 거품을 일킵니다
젖내가 납니다 풀판의 젖내는 향기롭습니다
해종일 준 젖이 철철철 차오릅니다
따뜻한 등불밑에서 훌훌 불며 마시면
속이 훈훈하고 든든해집니다
강냉이가루나 한줌 뿌리면
모두가 벵글썩
누군가 한소리 뿔을 때도 있습니다
밤새 살찌오른 염소떼를 몰아
날뵈으면 또다시 풀판에 가지요
나에게는 그 풀판이 어머니같이 생각됩니다
온갖 생명 다 먹여 키우는
싱싱하고 힘찬 그 품
이 어머니대지가 있는 한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풀판을 내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